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82-883 1982년 7월 23일(금) & 2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July 23 & 2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JUL 2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라스베가스 30대 교포>

전처를 토막살인

2년전 이혼·· 질투심때문?

(라스베가스에서-LA지사)교포여인의 시체가 6개로 토막난채 라스베가스시내 한복판 쓰레기장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었다. 지난 18일밤 라스베가스시내 2400 선라이스 애비뉴의 쓰레기장에서 청소부가 토막난 여인의 시체 일부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긴장한 경찰은 이 엽기적 살인사건을 수사한 끝에 시체의 신원이 페퍼밀카지노 딜러인 한국여인 김인애씨(31)임을 밝혀냈다. 또한 라스베가스경찰서 특별수사반은 20일 상오9시30분께 범인용의자로 전남편 김일천씨(35)를 시내모텔의 파킹장에서 체포했다.

20일 현재까지 토막난 김여인의 머리, 양팔과 오른쪽 다리는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으나 몸통과 왼쪽다리는 다운타운 동편 8마일지점 선·리이스·마운틴 쓰레기장에 묻혀 있는것으로 경찰은 추정, 계속 찾고 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 강력반의 에드슈와브수사관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 10개 블럭의 쓰레기통들을 뒤져 밤11시경 머리가 발견되고 자정께 팔하나를 찾았으며 새벽3시30분에 나머지 팔을 발견했다』면서 시체도막은 모두 신문지로 싸여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프랭크·제고비크수사관은 20일 『시체는 도끼에 의해서 토막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해부를 통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고비크수사관은 『살해시간은 지난15일께로 보고있다』고 밝혔으나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살해했는지는 『수사관계상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밝힌 제고비크수사관은 『범인체포는 익명의 제보자의 정보』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살인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클라크카운티구치소에 수감된 김일천씨는 어머니가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지난 4년전부터 라스베가스호텔등을 전전한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살해된 김여인은 남편 김씨와 2년전 이혼한 후 3자녀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페퍼밀카지노에서 블랙잭딜러로 일해왔다. 경찰은 살인동기가 김여인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는데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용의자인 김일천씨 는 라스베가스경찰에서도 잘 알려진 「트러블메이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기록에 의하면 김씨는 운전법규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됐었고, 식당등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연행됐었으며, 심지어 공공벤치에서 무단취침으로도 유치장신세를 진 인물이었다고 한다.

특히 도박벽과 낭비벽으로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아 10년전에 결혼한 김인애씨 와는 자주 다투게 되고 끝내 2년전에는 합의이혼에 까지 이르렀다.

이혼한 김인애씨는 3세난 아들과 6세와 8세의 딸등 3자녀 부양에 힘겨워 했으며, 호텔방 청소를 하다 딜러교육을 받고 카지노에 취직했다.

지난 13일에는 자녀양육비를 가져오겠다던 전남편 김씨가 뉴멕시코 어머니에게 얻어온 돈을 또다시 도박에 써버려 김여인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었다고 주변에서는 전하고 있다.

주택난 해소위해 시정부서 추진

개인주택 지하실을 임대

아트·이글튼 토론토시장은 토론토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인집의 지하실을 아파트로 렌트할 수 있도록 규정(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토론토는 지난 30년간 개인주택의 지하실 임대를 금지했다.

만약 이글톤의 제안이 메트로시위원회를 통과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안에 수천개의 지하실이 임대될 수 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렌트·하우징(임대주택) 증가계획이 토론토에서는 별로 효과를 보지못할 것이라고 결론, 이글튼시장은 "단기간으로는 새 주택건설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있는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메트로의 임대유휴율(the vacancy rate)은 0.6%로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그나마 비어있는 것은 대부분 호화판 콘도미니움이다.

종전의 아파트렌트규제 규정중에는 「각각의 지하아파트는 주차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글톤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독신자들에게 적당한 거주장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아파트렌트로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중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김여인의 토막시체의 발이 처음 발견된 쓰레기통.

<인터뷰> — 몬트리얼 김창훈총영사

관광안내도 하는 직업외교관

"오는 8월14일자 「라·프레스」지 좀 봐요. 한국관계특집이 여행란(Travel Section)의 대부분을 차지할 꺼예요"

첫마디 부터 자랑이 대단하다.

총영사란 반드시 영사업무만 목적하지 않고, 이 사회에 한국을 알려 교역량을 늘리는 무역가의 역할에서 관광안내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무량을 갖고 있다는 몬트리얼총영사관의 김창훈총영사.

1,500명의 교민수를 갖고있는 몬트리얼총영사관이 생긴지 2년남짓, 영·불어권의 공존을 가진 캐나다에서 불어지역 쾌백에서 한국외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레베크수상의 쾌백당이 집권한 이래 언어문제(Bill 101-쾌백주에서는 불어만 공용어로 한다는 법률조항)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몬트리얼을 떠나 서부로 향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있으나, 쾌백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한국·쾌백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김총영사는 한·카교역량 11억달러(81년 통계) 중 약40%가 쾌백에서 이루어진다면서 쾌백주는 관광자원, 수력자원등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밝다 고 말했다.

이민전망에 대해 쾌백주이민관들이 한국인이민자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인식, 점차 한국인들의 투자이민도 늘틸 것 같다는 김총영사는 프렌치캐네디안들은 거의 인종차별같은 것은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김창훈총영사

쾌백이민 전망 밝아

올림픽에도 조언

한국이민자들이 걱정하는 언어로 인한 교육문제에 대해 김총영사는 "쾌백에서는 불어습득후에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자녀들이 영·불어이중언어 능력을 갖게되면 캐나다· 사회에서 훨씬 출세할 수 있다", 고 밝은 전망을 내린다.

「올스타 게임」취재차 왔다는 기자의 말에 김총영사는 다시한번 올림픽얘기로 열을 올린다. 88년에 서울서 올림픽이 열리게 됨에 따라 몬트리얼올림픽을 주관했던 관계자들이 곧 방한, 한국측에 많은 조언을 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6년 올림픽으로 아직도 근 1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몬트리얼시는 자기들의 시행착오등을 한국측에 전달, 서울올림픽을 훌륭하게 꾸밀 수 있게 할 작정이라고 김총영사는 전했다.

파리대학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60년)를 딴 뒤, 뜻밖에 외교계로 진출, 직업외교관 생활만 20년이 넘는 김총영사(51)는 그의 학력이 말해주듯 불어가 유창하다.

가봉대사를 지냈던 김총영사는 외교관생활의 대부분을 UN에서 보냈다. 외무부에서는 유럽·아프리카국장을 지냈고, UN 1·2등 참사관, 공사등 외교관의 요직은 전부 거쳤다.

UN산하의 국제민항기구(ICAO)본부 같은 빌딩에(1000 Sherbrooke, W)위치한 총영사관(1-514-845-3243)에서는 몬트리얼 시내 전경이 한 눈에 보인다.

(몬트리얼=유승민기자)

북한외교관 또 망신

카이로서 시계 밀수하다 들통

(마나마(바레인)21일=연합)북한 외교관이 지난 18일 1,200개의 손목시계를 이집트에 밀반입하려다 잡혔다고 21일 카이로의 알·아람지가 보도했다.

카이로 공항의 이집트세관원들은 18일 쿠웨이트주재 북한 무역사절단 부회장 심회덕씨를 시계 밀반입혐의로 체포하고 시계를 압수했다.

이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한 첫날인 20일에는 체포된 자가 "외교관"이라고만 했다가 21일에는 "북한인"임을 밝혔다.

카이로에서는 70년대에도 북한 외교사절단 1명이 마약 해쉬쉬를 밀수하려다가 체포됐었다.

우편보험제 실시

귀중품 분실 보상

(서울21일=연합)한국 체신부는 오는 8월1일부터 국제우편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한국과 캐나다등 세계의 100개국 사이에 통용될 이 제도는 우편으로 보내는 귀중품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한 것이다.

귀중품에는 보석류, 수집동전, 우표및 중요문서들이 포함된다.

보험료는 54,200원당 300원씩이며 우편료는 따로 가산된다.

이 제도는 세관이 있는 전국 10개도시 우편국에서 실시된다.

王室경호책임자 辭任

침입범 절도죄有罪

(런던-AP) 버킹엄궁에 두번씩 침입해 엘리자베드2세여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갔던 마이클·페이건(30)이 6월의 침입사건과 관련된 절도혐의등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왕실경호를 맡은 경찰 지휘관 마이클·트레스트레일이 일신상의 이유로 경찰에서 사임했다고 윌리엄·화이트로 내상이 밝혔다.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대리점
란콤화장품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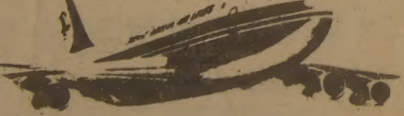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일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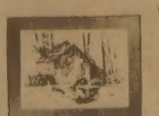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여름 수영복 스페샬세일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536-1692 R.245-3539

HOSANNA ART
AND FRAMES
특별할인기간 : 7 월말까지
OPENING SALE ☞ 20% OFF
토론토 한복판(영×블루아)에 새로 그림가게를 OPEN했읍니다.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호 올림
*사진액자, 서양화, 동양화 액자주문.
*자수 스트레취, 유리등 전문.
*프린팅 그림.
*졸업증, 각종자격증, 액자전문.



2 BLOOR ST. W. (영×블루아)
Cumberland Terrace 내(Subway Level)
Takeout Food Section 근처
☎: 921-8093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정부와 대결 불가피"

벨·캐나다서 정부요청 거부

(오타와)국영업체 에어·캐나다 항공회사와 벨·캐나다전화회사는 21일 연방정부의 연 6% 물가인상억제책을 거부, 정부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재정위원회의 도날드·존스톤장관은 앞으로 2년간 연간 5~6%의 물가인상 상한선을 엄격히 지킬 것이며, 벨·캐나다와 에어·캐나다의 문제는 새로 설치된 물가감시위원회가 해결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트루도수상은 최근 악화일로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자진 물가인상억제와 봉급자들의 봉급인상 억제를 호소했다.

에어·캐나다의 패트릭·데일리 대변인은 금년 첫5개월간의 경비가 이미 15%나 늘었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 항공료 인상을 6%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못박았다.

벨·캐나다의 델·제임즈 대변인은 회사가 이미 83년도 예산을 15% 늘리기로 한 계획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화요금 인상건은 10월중 캐나다방송전신위원회(CRTC)에서 검토된다.

벨·캐나다는 6월28일의 연방예산안발표가 있기 수시간전 가정용전화요금 25%인상및 비지네스 전화요금 35% 인상을 요청했었다.

〈식 자 안 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가격저렴
★ 빠른 서비스
한국일보사
☎ : (416)533-2361

통일문제의견조사

교포상대 연구팀 구성

캐나다 교포들의 모국통일에 대한 의견을 모국의 통일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사연구팀이 토론토에서 구성됐다.

이 연구팀은 책임자 이석현(이민사자료연구실장)·이근우(숭공문화협회장)·유형숭(메트로토론토도서관 서지조사부장)·이충효(오타와 연방정부 관리)씨의 4명으로 이들은 설문을 만들어 8월초 교민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에 착수한다. 1개월간에 걸쳐 조사될 설문은 교포들의 조국관·통일관·남북한 실정에 대한 인식도·통일여건에 대한 태도·캐나다교포의 방북태도·교포사회의 통일에 대한 기여자세, 모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등 8개분야에 걸친 54개이다.

본보는 〈캐너더뉴스〉 시절(80년7월26일자) LA지사(한국일보 미주본사)등과 함께 캐나다 독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의견을 조사했었다.

본국 통일원의 위촉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전 캐나다교포중 3~5백명을 무작위로 추출, 일일이 면접하는 방법을 쓴다.

조사결과는 정부의 교민 통일교육·홍보방향 설정에도 사용된다.

체전 복권판매

체육회, 공동사무실도

8월14일의 전국체전을 준비중인 캐나다체육회(회장 이병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1)체육대회, 2)11개 산하단체의 공동사무실 마련, 3)체육회관 건립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28명이 참석했다.

조충원 총무이사에 의하면 체육회는 이번 체전의 재정보충을 위해 3달러짜리 복권 2,500매를 발매한다. 총 1만달러의 경품이 걸린 이 복권의 1등상은 한국왕복 항공표 1매(서울여행사 제공), 2등 밍크·코트이며, 30등까지의 상품이 있다.

산하단체 공동사무실 임대건은 인력및 경비절약, 체육업무의 능률화를 위한 것으로 계속 물색하기로 했으며, 회장단이 추진하는 체육회관 건립은 봉두완 본국 국회의원과도 어느정도 얘기가 구체화, 전액 본국정부 도움으로 건축한다는 것이다.

조총무이사는 21일 "전국체전이나 체육회관 건립은 모두 일반교민에 대한 일체의 민폐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선 이병권 회장이 사재 5천달러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상군 철수건의

외교정책 분석연구소, 예산절감책

「외교정책분석연구소」는 유럽과 한국주둔 지상군의 철수를 옹호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해군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유럽및 아시아 지역의 미군 주둔을 감축할 것과 아울러 이 지역의 국가들이 자체방위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회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의회관리들은 이러한 고조되고 있는 의회내의 분위기는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군사비지출에 제동을 걸으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유럽과 기타지역에서 대부분의 지상군을 철수함과 동시에 해군력에 기초한 세계전략을 구상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일본은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여 동북아 지역의 방위에있어 기본적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군을 현대화 한후 주한미지상군을 철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로에 선 미국의 전략」이라는 표제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군사문제 전문가이며, 미상원 군사위원회의 자문관으로 있는 제프리레코드씨와 정치군사학 전문가인 로버크·햄스퇴역해군소장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유럽에 약34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육군과 해병대가 과반수인 22만명을 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3만8천명중 약2만2천명이 지상군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인 레코드씨는 "미국의 가상적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동맹국들이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도 미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서독을 비롯한 유럽 동맹들이 공동방위에있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영화『텐』의 여우 보·데렉이 출연한 영화『타잔』은 거의 다 벗은 자태로 나타난 보·데렉의 육체미로 한몫 보았었다. 그런데 『타잔』 선전용포스터에서 보·데렉은 얼굴만 진짜일뿐 몸매는 내 것을 빌렸었다"고 주장한 모델(사진)이 등장해서 화제.

하이드로회사 경영난 봉착

요금인상 6% 제한 받아

온타리오주에 독점적으로 전기·수도를 공급하는 온타리오·하이드로(Ontario Hydro)는 창사 76년 사상 처음으로 고용원 임시해고(Lay-off)를 고려중이다.

밀랜·내스티취사장은 20일 하이드로가 고용동결책을 쓰고 있으며 일부직원들을 재배치하는 한편 임시해고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드로는 사무직과 발전소가동직에 2만4천명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다.

하이드로측은 얼마나 많은 직원이 언제쯤 임시해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캐나다달러가치가 1센트 떨어질때 마다 하이드로는 외국차관이자로 2천만달러를 추가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타리오에너지위원회는 83년도 전기·수도요금 인상률을 13.9% 허가했으나 연방정부는 6%로 제한, 연방정부 주장에 따를 때 회사는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방재정위원회(Federal Treasury Board) 돈·존스톤회장(장관)은 전화요금, 에어·캐나다항공요금및 우편요금등 오타와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시사했다.

하이드로요금은 온타리오에너지위원회(OEB)에 의해 평가, 책정되나 강제규정은 없다. 단, 주정부는 하이드로의 결정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으나 현재까지 주정부는 하이드로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민자로서 한국에 있어서의 동서문화의 만남을 생각한다.

김정근(온타리오주이민사연구소 연구원·본사 논설위원)

◆김정근씨

1. 개화와 근대화

1882년 뉴욕에서 발간된 한 책에서 저자인 윌리엄·그리피스(William Griffis)는 한국을 가리켜 「은자의 나라」라고 하였다. 19세기 후반, 개화기 전야의 한국사회를 그리는 표현으로서 「은자」란 말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회한의 감정을 몰아다 준다. 그 속에 담겨있는 상상력과 상징성 때문이다. 그때 한국은 과연 하나의 섬세한 동양적 「은자」였는지도 모른다.

외국문화의 영향은 "횡포적"

자아지키며 세계성 지향해야

그때로부터 한국은 짧고도 절망적인 개화에의 시도기를 맞는다. 때늦은 이 시도는 이내 들이닥친 외세의 강풍 앞에 쓰러진다. 청일전쟁(1894), 노일전쟁(1904)의 미끼이자 전쟁터가 된 한국은 두 전쟁의 승자인 일본의 손아귀에 쥐어져 어둡고 긴 식민지 시대를 겪는다. 개화에의 꿈은 깊은 겨울잠 속에 묻히고 만다.

이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독립을 찾은 한국은 민족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고, 또 그 떨어져 나간 동족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속에서도 땅위의 한 양지를 가꾸기 위하여 신생국으로서의 의지를 불태운다.

한국은 올해로 신생국 건설에의 집념어린 싸움을 전개한지 서른일곱번째 해를 맞는다. 정치적 미숙과 압제로 점철되기도한 이 국가건설의 싸움에서 한국사회의 절대다수 성원의 관심의 표적이 된 개념은 「근대화」였다.

「개화」에서 「근대화」까지로 연결되는 우리 민족의 세계지향적 의지는 쇄국주의의 무의미성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경영의 원리로서 「개화」와 「근대화」라고 잡은 지표속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냉엄한 인식이 스며있으며 바깥세계와의 일정한 관계속에서 부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꾸며가고자 하는 민족적 염원이 서려 있다.

2. 동과 서

「개화」, 「근대화」의 지향이 기복을 반복하는 한국현대사 100년 동안에 「은자의 나라」 한국은 서양과의 만남을 구체화시켰다. 통상조약을 통한 국가단위의 관계가 이때 시작되며 기독교 선교사를 통한 민간끼리의 만남도 이루어진다. 식민지시대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하여 서양을 만나며, 독립이후에는 미군이라고 하는 하층문화 전달자를 통하여 서양을 이해하기도 한다.

한국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서 문화의 만남의 형태들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것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형태들은 한국인의 이해에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점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극복하고 넘어가야할 짐스러운 전통의 찌꺼기들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게나마 이들에 의해서 감당되어진 면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분이 아닌 큰 줄기를 본다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국문화가 서양문화를 만나온 양식 가운데는 문제가 없지도 않은 듯하다. 이 점은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는 금년들어 국내외의 많은 지식인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첫째, 한국이 근대국가로서 자아확립이 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서양과의 만남이란 대등한 상대끼리의 관계이기 보다는 일종의 불평등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수입은 있었으나 문화수출은 없다시피 했으며, 한국인의 마음속에 수입품에 대한 사대성과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자멸감이 늘어갔던 것이다. 국내의 한 시인은 「이제부터는 가능한대로 서구문화와 문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외국문화와 문학의 이론이 우리 문학에 끼친 영향은 영향이라기보다 횡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양과의 문화관계에 있어서 균형의 결핍을 지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점은 한국에 있어서의 동서의 만남에는 전통사회의 자체전개로서의 근대화라는 방향에서 우리의 주체적 필요에 따라 서양문화가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차라리 외부세력의 필요에 따라 주어진 것을 수용하는데 그쳤다는 흠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것을 그때 그때 받아들이는데 그쳤을 뿐, 문화수입에 있어서 마땅히 따라야할 분별과 선택이 없었다는 것이다.

세째, 한국에 있어서의 동서의 만남에는 이른바 서양문화의 전달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인이 만난 서양은 주로 선교사, 미군, 일본 식민주의자들, 그리고 이들 여러 그룹과 제휴된 일부 한국인들을 통해서였는데, 이들은 서양문화의 전달자로서는 제한과 결함이 많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서양문화를 총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가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서양에 대하여 턱없이 비굴해지기도 하며, 턱없이 배타적으로 되기도 하며, 또 격에도 맞지 않는 허장성세에 빠지기도 하는등 서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이들 문화전달자들의 결격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동서문화의 만남의 현장에 이와같이 불평등관계, 주체성의 결여, 문화전달자의 결격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마침내 이 두 문화의 만남으로 하여금 한국사회

이민자의 긍정적 역할은

동서문화 관계서 기대돼

의 참다운 근대화를 낳게하기보다는 어설픈 서양화를 낳게하고 말았다는 것이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찬 반성이 일고 있다. 자아가 그 속에 침몰되고 없어지는 서양화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요구에 따라 열등감없이 서양을 만나며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자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가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는 방향이라고 이해된다. 70년대 이래의 한국학연구 붐이며, 우리것에 대한 애착이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의 한 지식인은 「민족적 동일성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성질과 문화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녘으로 세계를 향하여 스스럼없이 자아를 열어놓으면서, 다른 한녘으로는 끝없이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이 문화적 지방성과 세계성과 사이를 조화시키려는 과제야말로 한국사회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혜로써 대처해야 할 시련이자 도전이 아닌가 한다.

3. 이민과 동서문화의 만남

개방체제로서 독립국의 살림살이를 시작한 한국은 80년대에 들어서 그 개방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 듯하다. 국내에서 나오는 문서들에는 「개방」과 「국제화」라는 표현이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다.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많은 수의 학자, 문화관계 종사자, 유학생들을 북미와 유럽에 내보내고 있다. 「개화」와 「근대화」로 표상되었던 어제의 과제가 오늘도 한국사회의 크나큰 과제로 되어 있음을 본다. 어쩌면 이것은 「은자의 나라」로서의 마지막 껍질을 벗는 아프고 힘겨운 작업인지도 모른다.

이민은 한국사회가 워낙 개방체제로 시작된 이래 그 개방의 정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생긴 한 산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역으로 개방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한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쉬운 한가지 예로, 통칭 60만이라고 하는 북미의 이 거대한 한인이민사회와 국내사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장·단기간의 친척·친지방문, 편지교환, 전화통화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을 생각해보라. 이민과 한국사회의 개방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학술교육, 무역, 외교적 접촉과 더불어 대규모의 이민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사회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서양과의 접촉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면적 접촉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민자는 이 전면적 접촉의 한가운데에 놓인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위치는 이민자로 하여금 한국에 있어서의 동서문화 관계 속에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 역할은 긍정적인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민자의 역할이 긍정성을 띠려면 그것은 위에서 세가지 면에서 지적해본 역사적 과오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리라.

한국과 캐나다가
뜨거운 우정으로
만나는 곳
—토론토 한국일보—

브라질 "봉디아"
친목회

브라질에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금번 제4회 친목및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온가족 동반하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 일 : 1982년 8월 7일(토) 11시
(음식은 각자지참)
장 소 : Sunny Brook Park
(축구장옆, 마지막 주차장)
♣오락과 상품이 준비되었음.
연락처 : 성용창 759-3583
박정환 533-7759
♣우천시는 다음주로 순연함.

봉디아친목회
회장 성 용 창

SANDY'S GIFT & CHINA
세일기간 : 7월중순~8월중순(1달간)
↔ BRIDLE REGISTRY ↔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가정을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분들을 위해 고급 자기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시는 기회를 드리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40 pc: 8 숲 수픈, 8 나이프, 8 포크, 8 살라드 포크, 8 티·스픈
Reg. $480
Sale $280

— 각종 고급 자기류 구비
◎최고급 독일 Rosen-thal
◎최고급 영국 Wedgwood(40% off)
— 고급 아일랜드제 Waterford Crystal(30% off)
— 재고 Stock이 제한되었사오니, 선착순에 한합니다.
— 고급 스텐레스 취급

30% ~70% Off

고급 아일랜드 크리스탈

Markham place
2900 Steels Ave. E.
(돈밀 × 스틸스)
☎ : 889-4216 Mrs. 허

제6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항
골프대회 개최

성하의 계절을 맞아 각 고등학교 동창회 대항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친목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7월31일(토) 11시30분
장 소 : Castlemore Golf & Country Club
참가자격 : 각 고등학교동창회 회원 3인이상및 게스트
참 가 비 : ①각 동창회당 $50
②개인당 $30(그린 Fee및 디너포함)
시 상 : ◆단체 Gross 1,2,3등 및 Net 참피온
◆개인 Gross 1,2,3등 및 Net 1,2,3등
◆게스트 Gross 1,2,3등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모스트 어네스트 플레이어
연 락 처 : 정용주(☎ : 274-4303)
이춘수(☎ : 536-2243)

주최 : 경동중고등학교 동창회
후원 : 한인골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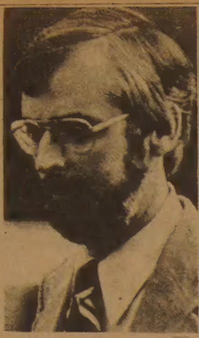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남성 부하직원에 보상금

여성 상관의 섹스요구 거절로 강등

(매디슨(미 위스콘신주)) 여성상관의 섹스요구를 거절한 때문에 강등됐다고 주장하는 미 연방정부 직원이 보상금 $196,500을 받도록 21일 판결받았다.

고통(?)은 받았지만 치부(?)하게 된 장본인은 신체장애자사회보장국 직원인 데이빗·회브센씨. 그는 상관인 재클린·레이더여사의 요구를 받고 모텔에서 만나긴 했으나 섹스를 거절한 직후 강등당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부인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우울한 성격이 됐었다고 증언했다.



◆$196,500의 보상금을 받게 된 데이빗·회브센씨.

◆섹스를 거절당하자 부하직원을 강등시킨 재클린·레이더.

金聖鍾 作

冷血 ⑰

그녀는 애꿎은 남편 품속서 울음만…

그날밤 한기수는 의아한듯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당신 얼굴 왜 그래? 이쪽이 부은것 같은데…』

손을 들어 그녀의 왼쪽 뺨을 만진다。그녀는 얼른 얼굴을 피했다。

『멍이 든 것 같은데…』

유심히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무서워 얼굴을 돌렸다。 낮에 도세에게 얻어맞아 저녁이 되자 눈에 띄게 부어올라있었던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녀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게무슨 말이야? 얼굴이 저렇게 붓고 멍까지 들었는데…』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남편이 뒤따라 들어왔다。

『어떻게 된거야? 어쩌다가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래두요!』

그녀는 날카 신경질을 냈다。남편은 창백해지더니 말없이 그녀를 쏘아보기만했다。 그녀는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쩔는 꾸며대지않을수없었다。

『부딪쳤어요。 짐꾼하고 부딪쳤어요。 짐꾼이 오는줄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부딪쳤어요。 어떻게나 호되게 부딪쳤던지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죽는줄 알았어요。』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으로바라본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돌아왔지요, 뭐。』

『가만 뒀단 말이야?』

『지게꾼한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잘못은 저한테도 있었는걸요。』

『갑자기 너그러워지셨군。 웬 일이지?』

남편의 빈정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왈칵 눈물이 나왔다。 얼굴을 홱 돌리면서 눈물을 찍어내자 가까이 다가와 감싸안는다。

『울긴, 아이들 처럼…。』

『몰라요。』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와락 안기면서 기어코 울음을 터뜨렸다。한기수는 아내의 돌연한 태도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이해할수없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가 있다。 바로 그런 것이겠지。 그는 자기나름대로 편리하게 생각하면서 아내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었다。 아내는 몸집이 커서 껴안으면 귀엽고 아담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큰 나무둥치를 껴안고 있는 기분이다。 그러나 남자니까 껴안아주어야 한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아내의 크고 풍만한 육체에 매혹되었지만 오래 살을 섞다보니 이제는 그런 느낌 보다는 오히려 아내의 육체에 치이는것 같은 기분이 든다。

『미안해。울지마。자, 그만 울라구。』

남편이 그럴수록 문자는 더욱 섧게 울었다。 애꿎은 남편만 붙잡고 속에 있는 비밀은 털어놓지 못한채 울기만 한다。 이 기회에 죄다 털어놓아 버릴까。 그녀는 문득 그런 충동에 사로잡힌다。 침을 꿀꺽 삼키고 남편을 올려다본다。 시선을 얼른 내리고 그럴수는 없다고 다짐한다。 남편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인줄은 몰랐다。 모세라는 사나이도 무섭지만 그보다는 남편이 더 무섭다。 영원히 비밀로 해야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한다。 나의 일생의 자리에서도 비밀로 해야한다。 죽은 뒤라 할지라도 남편한테 버림받는 것은 정말 싫다。

하필 모세와 육체관계를 가진 그날밤 문자는남편과도 또 살을 섞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하루에 외간 남자와 남편을 동시에 상대한 그녀는 초죽음이 된채 참담한 기분에 싸여 밤을 밝혔다。

朴男 그림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33>

〈독자의 광장〉

"VIVA KOREA"

김 성 헌 (토론토 교포)

"VIVA ITALIA !"

이곳 이태리 콤뮤니티의 들뜬 감정은 브라질을 준준결승에서 물리치면서부터 가열되기 시작하더니 준결승에서 폴랜드를 물리치면서 가히 미칠 지경에 이르고, 지난 11일 결승에서 서독을 이기고 나서는 그 열광이 절정에 이르렀다.

마치 혁명이라도 일어난듯 거리엔 삼색 깃발의 광란!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 차들의 행렬! "VIVA ITALIA!", "VIVA ITALIA!" 남녀노소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울고….

마치 우리에서 풀려난 야수들의 날뛰과도 같은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 옛날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던 그들의 후예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제길 뭐 축구 좀 이겼다고 저렇게 점잖지 못하게 난리들이람… 이거 시끄러워 견딜 수가 있나!" 혼자 투덜거리는 내 마음속엔 분명히 어떤 시샘이 있음을 감출 길 없다.

이민자는 마치 시집와 사는 며느리의 마음과 같은 것일까? 음으로 양으로 항상 어떤 긴장 속에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친정오빠가 고등고시라도 붙었다는 소식은 그 며느리에겐 자기자신이 당사자라도 된듯 흥분되어 떠들것이다. 그것은 현재 처한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으며, 사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친정이 못살고 불운만이 겹친다면 시집온 며느리는 기가 죽고, 시집식구나 동서들 사이에서도 경시당하게 되는 것이고 보면 하다못해 친정집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등의 하찮은 소식이라도 자랑거리가 될만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심정이다.

우리 친정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무엇일까?

-한 여자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

-한 남자가 그것도 경찰이 60여명의 인명을 소탕했다는 이야기.

-지하철 공사장이 여기저기 가라앉았다는 이야기.

-문교주가 2400쌍의 남녀결혼식을 Newyork 메디슨·가든에서 주관했다는 이야기.

-김일성이 유례없는 생일잔치를 가졌다는 이야기.

그 누구도 이런 소식을 듣고 "VIVA KOREA!"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어나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 우울한 소식 아닌 무엇인가 속시원한 소식이 언젠가는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곳에 갓 시집온 막내며느리같은 우리지만 시집식구나 큰 동서들에게 무언가 우리 친정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하고 싶다. 그때엔 우리도 그간의 위축되고 서글프고 고단했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VIVA KOREA!", "VIVA KOREA!"를 목이 쉬도록 외치며 손에 손에 태극기흔들며 거리를 달릴 것이다.

힛트영화「E·T」 하루 3백50萬弗

38일만에 $1억2천만을 벌어, 지금까지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을 보인 『스타·워즈』의 총 $4억을 무난히 능가할 것으로 보이는 영화 E.T.는 꿈많은 10살짜리 소년과 외계인간 E.T.와의 만남을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표현력을 최대한으로 구사, 하루에만 $350만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영화는 이제까지의 모든 영화 흥행기록을 깰 것으로 영화계서는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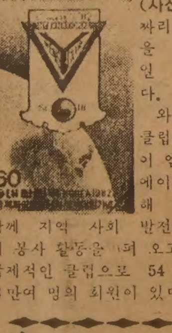
영화감독 스티븐·스필버그는 허리웃 최고의 감독으로 부상했다. 영화 E.T.(Extra-Terrestrial), 아카데미 수상작인 『잃어버린 방주의 침입자들(Raiders of the Lost Ark)』, 드릴러물 『폴터가이스트』등 그가 감독한 3개 영화가 지난 주말 총 2천만달러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

스필버그가 지금까지 감독한 작품은 이들 3개뿐으로 말하자면 그가 만든 영화는 전부 흥행에서 성공한 셈이다.

□□□□ □□

와이즈맨 우표 20일부터 발행

체신부에서는 <국제 와이즈맨 55차 세계대회 기념> 우표(사진)60원짜리 1종을 20일 발행했다.



와이즈맨 클럽은 와이엠시이에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펴 오고 있는 국제적인 클럽으로 54개국에 3만여 명의 회원이 있다.

한국일보 533-2361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三國志 (423) 글·高羽榮·그림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노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 Hamburger Shop($65,000): 미시사가의 바쁜 쇼핑센터 내. Rent는 $575(월)이며, 9년간 지속. 비데오게임 2대의 면허(월 순수입 $1,200). 현재 매상은 많지 않으나, 좋은 장소와 Rent & Lease의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매상 늘리고자 하시는 분에게 적합. 일요일 휴업.

◉ Variety & Hardware($59,900): HWY 401과 Kingston Rd 동쪽의 동네 안에 위치. 위에 층에 살림집있으며, 넓은 주차장 있음. 가게크기 1,500 s.f정도. 주매상: $6,000이상 개런티. 이윤 30%이상. 건물매매도 가능.

◉ Gas Station: 월 수입 만불이상. 적은비용. 모든 장비와 살림집. 그리고 2.4에이커 대지포함. 해밀톤 서쪽에 위치. Price Reduced to $259,000 Only.

짧은 시간, 편한 사업

◉ Card Centre($42,000): 가게시간 9:30~5:00(월~금). 이윤 45%이상. 1인 운영가능. 다운타운의 사무실 건물의 지하상가 내. 새로운 통로가 연결될 계획이며, 전망좋음. 작년 순수입 $25,000이상.

◉ Card Centre($59,900): 시간 10:00~6:00(월~토). 이윤 47%. 1인 운영가능. 다운타운 바쁜 쇼핑몰. 2년됐으며, 앞으로의 전망좋음.

◉ Card Centre($150,000): 영업시간 주50시간 미만. 다운타운 Royal Bank Plaza 내. 년 수입 5만불이상.

◉ Variety & Gift($45,000): 시간 8:00~6:00(월~금). 주매상 $3,500~$4,000. 이윤 35%선. 곧 은퇴할 노부부가 운영. 전망좋음.

★기타 : 다른 사업체나 부동산들도 있읍니다.

市場에 相談室 의무화

閣議、시행령改正 施設·販賣士기준 強化

휴게소·오물收去場 설치도
都賣면적 5천m² 이상으로

국무회의는 20일 市場의 근대화를 위해 모든市場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販賣社제도의 도입에필요한 販賣社의 자격과 등록에 관한 기준을 정한 市場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改正令에 의하면 都賣시장은 5천m²이상의 延面積을 갖추고▲일반小賣 시장은 1천5백m²(서울市外지역은 7백m²이상)▲백화점은 5천m²이상(서울시외지역 3천m²이상)▲쇼핑센터 1만m²이상(서울시외지역 5천m²이상)▲大型店舖 1천5백m²(서울시외지역 7백m²)이상의 건물면적을 갖추어야하며 이들 시장들은 모두 건물면적의 60% 이상을 賣場으로 割愛해야한다. 또 이들 시장은 相談室과 유計量臺、공중전화등을 갖춘 소비자보호시설을 해야 하고 水洗式화장실、汚物收去場과 공동작업장등 위생시설을 갖추는한편 전기와 給配水시설은 물론 셔터·店舖의 標識物·홍보판등기본시설을 갖추도록했다.

「常設」 대지千m²… 「季節」 3百50m²이상
大型점포 건물면적60%이상 賣場으로

개정령은 또 常設시장은 垈地가 반드시 1천m²이상이어야하고 季節시장으로 개설되는 시장은 3백50m²이상의 垈地를 확보하도록했으며 계절시장개설자격요건은▲상설시장개설자▲농협등조합▲市長·郡守·區廳長이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 정했다.

이季節시장의 開設者로 지정된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할수있게 했고 또 시장개설자는 시장入住者로부터 店舖와 垈地、시설관리비를 지정할수 있게했다.

개정령은 또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할때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중에서 지정하도록하는한편 販賣社는 자격시험에 합격한사람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에등록을해야하며 상공부장관은 販賣社로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된는경우와 자격을 취득한후 계속2년이상 流通業에 종사하지 않은사람은 판매사자격을 취소할수 있게했다.

한편 이개정령은 旣存시장개설자가 기간내에 再허가요건을 갖추지못할 부득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내에 시설을 갖출수있게 유예기간을 주었다.

또 개정령은 市·道知事가 재허가요건을 갖추지못한 기존시장개설자에 대해 이개정령시행후 2년이내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결과에 따라 허가요건을 갖출수있도록지원조치를하게했다.

國務次官에 댐임명 레이건

【워싱턴19日AP=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19일 케네드·댐 시카고대학교무처장(49)을 수석국무차관에 임명했다.

월터·스토슬現 수석국무차관과 교체, 국무성 제2인자의 위치에 오르게될 댐씨는 닉슨행정부당시 슐츠신임국무장관이 예산국장으로 있을 당시 부국장으로 일한바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마이어·래시경제담당국무차관후임에 경제학자인 W·앨런·윌리스씨(69)를, 제임즈·L·버클리안보지원과학·기술담당국무차관후임에 윌리엄·슈나이더 2세를 각각 선임했다.

이들 3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民正、「7·3조치」 補完작업
"實名예금 課稅목적外는 秘密보장"

내달10일 公聽會열고 副作用 최소화키로

民正黨은 오는 8월10일 서울에서 公聽會를 열고 「6·28」「7·3」경제조치에 대한各界의 반응을 청취、검토한후 최종적인 黨차원의 補完策을 마련할 방침이다. 民正黨은 이공청회에 앞서 來週中까지는 경제조치에 대한 補完策의 기본방향과 政策팀의 一元化이후 정책연구활성화방안등을 黨총재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陳懿鍾정책위의장은 20일 『이번에 公聽會에는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정히 대변할수있는 인사들을 公述人으로 선정、최대한 民意를 수렴하겠다』고 말하고 『이 公聽會를 계기로 「7·3」조치등의 부작용을 最少化할수있는 黨차원의 補完策수립을최종적으로 마무리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民正黨의 정책관계자들은 이날 黨이 構想하고있는 「7·3」조치의 대체적인 補完策은 ▲預·積金의 實名化실시이후라도 개인의 預·積金에 대해서는 課稅목적이외에 비밀을 철저히 保安하고▲자금의 出處조사는 자금의 도피를 방지하기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고있다. 民正黨의 補完策은 또 그외에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는 일정액이상의 利子취득자에 한정하고▲종합소득稅率의 인하등 세금減免확대에따른 재정부문의 財政赤字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는 것등이다.

이밖에 民正黨은 ▲預金이자에대한 差等稅率의 적용▲앞으로 금융資産稅制를 개편할때 實物資産稅도 보강、균형稅政을 기하도록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經濟조치 書面질의
民韓·국민「국회不召集」代案

民韓黨은 7·3經濟조치를 비롯한 國政전반에 걸쳐 對정부書面질의를 낼계획이다.

林鍾基총무는 20일『對정부書面질의의 내용이 마무리되는대로 국회를 통해 정부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현재『金在映·朴寬用두부총무가 전문위원들과 함께 그 내용을 작성중』이라고 말했다.

林총무는 『與黨측이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에 우선 書面질의를 통해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한다음 임시국회소집과 관계常委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내용을 작성중인 金在映부총무는 『22일까지 骨格이 나올것』이라고 말하고 내용중에는 ▲張여인사건의 後續조치에대한 미진한 사항▲세계은행이 지적한 對韓경제건의의 문제점에서부터 6·28조치、7·3조치의 문제점▲中小기업貸出이행사항등이 포함될것이라고 밝혔다.

국민、經濟特委회의

국민당은 20일상오 非常經濟대책特委(위원장 李聖秀의원)제1차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협의한끝에 「7·3」經濟조치에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현실적측면에서 조사하기위해 各項目별로 연구과제를 分擔、各界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청취키로했다.

賣出부진 純益은 늘어
上場2백6개社 上半期중 0·9%증가
金利·원자재·油價등 原價줄어
自動車·食料등 호조…建設저조

지난상반기중 계속된 불경기로 국내기업들의 판매가크게부진했으나 전반적인 수익률은 오히려 개선된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증권관계기관이 조사한 12월말결산상장법인 2백6개社의 상반기중 매출액증가율은 15·5%로 전년동기의 44·8%증가에비해 현저하게감소했으나 순이익은 0·9%가 증가, 전년동기의 1·9%감소에비해 개선된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다.

올들어 1·14조치、5·18조치등 金利引下를 포함한 경기활성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가 예상외로 되살아나지않았고 수출도 부진한데다 물가안정에 따른 판매가격인상률도 둔화、매출액의 신장률은 15·5%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金利의 잇따른 인하로 금융비용이 크게줄었고 油價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안정으로 원가상승률이 둔화、순이익률은 증가했던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업종별 순이익률을보면 자동차등 조립금속이 524·1%、음식료품 97·3%、비금속광물 90·9%로 신장률이 두드러졌다.

이 업종들은 계절적인 요인과 국내건축경기의 회복기미、신종차량의 개발등에 힘입은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전반적으로 해외수주액이 전년동기에비해 증가세를 보였으나 신장률은 둔화됐으며 매출액증가률은 21·8%로 전년동기의 50·8%에 비해 줄었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2·4%로 전년동기의 3·6%에 비해 줄어들어 채산성이 악화됐다.

家電3社인 金星社、三星電子、大韓電線도 VTR、컬러TV의 판매가 늘어났으나 냉장고의 판매부진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에비해 약간 늘어난반면 순이익 증가률은 다소 떨어졌다.

이밖에 도매(무역)업종과 섬유업종은 수출부진으로 외형신장률의 둔화와함께 채산성이 악화됐고 제1차금속광업、석유화학등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새마을誠金 기탁자 全대통령、致賀親書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새마을성금을 기탁해온 現代그룹 鄭周永회장등 8명의 기업인에게 親書를 보내 致賀했다.

이날 全대통령으로부터 親書를 받은 기업인과 寄託金額은 다음과 같다.

▲鄭周永現代그룹회장 5억원 ▲金宇中大宇그룹회장 5억원 ▲趙重勳大韓航空회장 3억원 ▲金用山極東建設회장 2억원 ▲金相鴻三養社회장 2억원 ▲李東燦코오롱그룹회장 1억원 ▲金範明東海산업사장 3천만원 ▲金東萬海東화재해상보험회장 2천5백만원.

新聞·放送社長등 金총리、招請만찬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20일하오 서울의 신문、방송、통신사장 12명을 三淸洞총리공관으로 초청、만찬을 베풀었다.

이란軍、최종攻勢 임박
바스라 外人 撤收개시

【니코시아·워싱턴19日UPI=聯合】이란은 19일 이라크남부 전략요충 바스라港을 사수하고있는 이라크軍의 반격을 격퇴하고 敵을 섬멸하기 위한 최종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란軍의 새로운공세에 대비、바스라거주 외국인들은 이항구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軍사령부는 이라크軍이 바스라港을 위협하고있는 이란軍에 맹폭격을 가해 막대한사상자를 내게하였다고 발표하는 한편 이란軍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호라마바드와 일람市의『경제목표물』들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수십명의 바스라거주 외국인들이 이란軍의 거듭된 바스라공격위협하에 이미 바스라를떠났으며 영국、스위스、일본、소련、중공、한국인들도 바그다드주재自國대사관으로부터 바스라를 떠나라는 권고를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란·이라크 양군은 섭씨43~49도를 오르내리는 폭염때문에 지난주말 바스라 전투를 고비로 지상전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것으로 美정보소식통이 전했다.

이란國營라디오방송을 통해 보도된 이란軍사령부 코뮈니케는 이란軍이 19일 새벽 5백명의 이라크병사를 사살했으며 이라크軍의 반격을 격퇴하고 이라크영내에서 적군을 섬멸하기위해 최종공세를 준비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라크영내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란軍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이라크軍이 陸·空軍합동작전으로『일련의 반격』을 감행하여 5백km에 걸친 남부전선을 완전장악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國營 INA통신은 한 이라크軍지휘관말을인용、이라크軍이 또한 북부전선에서도 이란軍의 진격을 저지시켰다면서 지난주말의 전투에서 모두 3천4백49명의 이란軍이 이라크軍에 의해 사살됐다고 말했다.

이라크軍은 또 이라크제트전투기들이 바스라港북부의 하나킨市에 대한 이란군의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호라마바드와 일람市에 있는『경제목표물』들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풀려난 未成年 PLO게릴라 이스라엘의 미성년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게릴라 포로석방조처로 풀려난 한 게릴라(우측)가 적십자 트럭편에 팔레스타인 난민촌으로 돌아온후 마중나온 소년의볼에 입맞추고 있다. 【티레(남부레바논)19日AP電送=聯合】

한국인 對策은 萬全
아직 撤收令안내려
外務部 밝혀

外務部는 이란과 이라크간의 전투로인해 바스라지역의 한국인근로자들에대해 20일 현재 현지보고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따라서 撤收令이나 待避令을 내리지않고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이날 바스라지역에 있는 외국건설業體의 動靜에 관련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의 待避策을 마련、언제라도 대피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근로자들의 교민대피를위해 차량 4백여대、油類및 非常식량등을 확보하고있다』면서 1시간이내에 인근국가나 이라크의 다른지역으로 피신할 준비가 돼있으며 이라크정부로부터는 이미 出國비자를 받아놓았고 인근국가와도 교민들의 대피를위한 외교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야드·알·아자위駐韓이라크총영사는 20일 상오 在이라크僑民 안전대책위원장인 李昌洙 제2차관보를 외무부로 방문、바스라지역에서 일하고있는 2천여명의 우리나라건설근로자들의 안전대책에 관해 30분간 협의했다.

社會漫評

地平線

몇해전인가 영국의 윌슨수상이 재임중에 고령을 이유로 수상직을 그만둔 직후 회고록을 출판했었다. 나이많은 수상이 뭣때문에 회고록을 곧 출판했을까하고 억측이 분분했는데 나중 알려진 얘기로는 너무 쪼들렸기때문이지 정치와는 아무런관계가 없었다는데서 세상사람들은 새삼 놀랐었다.▼영국에선 대신을 오래하면 빚투성이가 되는것이 상식처럼 돼있다. 이상하다싶어 외국사람들이 영국국민에게 정말이냐고 물어보면 대신자리에 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오히려 갸우뚱 한다는것이다. 십몇년전 맥로드 재무대신이 현직으로 죽었을때 그유산이 우리돈으로 3천6백만원 밖에 안되는데다 유서에서아들에게 돈60만원과 자기가차던 팔목시계를 준다고 쓰여있었다는 신문기사를보고 감탄한일이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정치인은 청빈한 이미지를 풍기고있다.▼의원들의 생활도 간소하기 짝이없다. 운전기사를 고용한 의원은 손꼽을정도이고 중류의 샐러리맨의 생활수준밖에 안된다. 타임즈의 의회담당기자들이 전하는 바로는 같은학력、나이의 딴직업인과 비교하면 의원들의 생활은 아주 가난한 편이라한다. 빚때문에 목이 안돌아가는사람이 많고 정치는 뭣때문에하는지 옆에서 이해가 안갈정도로 딱한 형편이다. 의원들 스스로의 세비문제는 7~10년동안에 겨우 한번 논의될 정도이며 의원세비문제가 상정될땐 머리를 못드는 의원들이 대부분인모양이다.▼최근의 소식은 자세하지않으나 72년에 세비가 40% 오른적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오른세비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만원 안팎。여기에비서수당、조사비등으로 매달24만원가량 보태질뿐이라고들었다. 영국에서 월급1백만원이면대학을나와 큰기업체에 들어가 15년쯤된 과장급급여수준이라고 하니 돈에관한한 의원들의대접이 대단치않음을 알수있다. 겸직이 허용되는데다 세비인상이 연례행사처럼있고 과장급 봉급의 몇배나받는 우리선량의 씀새가 달라서 그런지 돈에 쩔쩔매며 연금 얘기까지 나오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그무슨 법률이 있어서 정치도의가 엄한 것은 아니다. 업계와 정치인이 손잡는것은 상상할수도없고 선거법위반이나 의원들의 오직사건도 거의없다。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변하고 봉사하는것이 영국의 국회의원들이라는것이다. 옛날엔 돈에 매수된 의원이 간혹있고 선거때 투표지한장에 증권시세처럼 그값이 보도된적도 있었지만 2백년전의 얘기라며 런던시민들은 껄껄웃는다고한다. 부러운 현상이라 하지않을수없다.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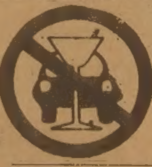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N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시
215 Yonge St.
368 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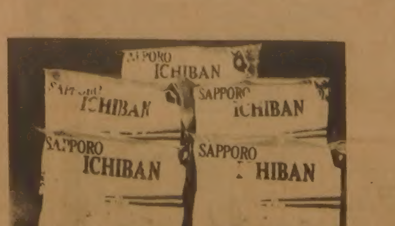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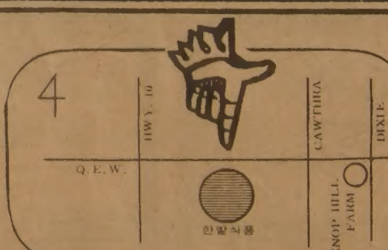
여름 SPECIAL SALE

※ 한발식품 CASH 레지스터 영수증을 모아오세요.

$200. —마다 사뽀로라면 1BOX 무료
$300. —마다 가도야참기름 1 병(60온스) 무료
$400. —마다 D.Y.가주미 (50파운드) 무료

그동안본 식품점을 애용해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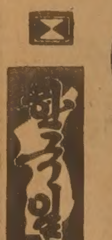




	Spec.	Reg.
♧ 장미쌀 50LB	$14.95	~~$16.95~~
♧ 햇김(김밥용) 100장	$10.95	~~$14.95~~
♧ 낚지 2LB(1Bag)	$ 7.95	~~$ 9.95~~
♧ 물오징어 1LB	$ 1.29	~~$ 1.79~~
♧ 멍게 1LB Bag	$ 4.99	~~$ 5.99~~
♧ 물해삼 1LB	$ 5.99	~~$ 6.99~~
♧ 회조개	$ 7.99	~~$10.99~~
♧ 조개 33LB (1BOX)	$49.95	~~$59.95~~
♧ 청수냉면(강서·함흥·평양식) 대량입하		

○ 기간 : 6월25일～12월25일까지

한발식품 466 SOUTH SERVICE RD. ☎ 274—5401



日、5년간 防衛力증강

소규모侵略에는 獨自대처 계획

24만自衛隊 장비구입에 12兆6천億원 支出키로

【東京19日AP합동=聯合】 일본은 앞으로 5년에걸쳐 방위능력을 증강, 자국영토에대한 소규모의 한정적 침략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대처할 계획을 세우고있다고 정부소식통들이 19일 밝혔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일본방위청은 내년4월부터 시작될 5개년계획기간중 24만여명의 자위대용 주요군사장비 매입비로 무려 약 4조6천억엔 (12조6천7백70억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소식통들은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 이또·소오이찌로 (伊藤宗一郎) 방위청장관이 오는23일 일본정부의 최고방위정책결정기구인 방위위원회회의에서 이같은 방위력증강계획공식승인을 앞두고 방위위원장이기도한 스즈끼·젠꼬(鈴木善幸) 수상에게 이 계획의 개요를 19일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소식통들은 앞으로 5년간 방위청의 연간예산요청작업의 지침으로 사용될 이 5개년계획이 3년후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힌데이어 이또장관은 이기간중의 방위지출비용총액이 인건비포함, 16조엔(44조9백억원)에 달할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란軍 敵地거점 强化 이라크영내로 진격한 이란군이 그들의 거점을 강화하고있다。이사진은 이란의 IRNA통신이 공개한것이다. 【아와즈18日UPI電送=聯合】

日、美製미사일性能·값조사 國産「피닉스」實用化 검토

【東京20日=聯合】 일본정부는 陸·空자위대 합동조사단을 곧 미국에 파견, 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地對空미사일 나이키J및 호크의 다음 기종으로 꼽고 있는 美製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의 성능및 가격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독자개발에 의한 나이키·피닉스의 실용화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올해말까지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도입에 관한 조사를 모두 끝낸후 내년에는 최종적인 보유미사일기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패트리어트미사일을 日本자위대의 차기보유미사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日정부는 對美직수입이 아닌 美國의 기술도입을 통한 국내면허(라이선스) 생산을 시키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60억弗강요 이라크副首相, "팔避難處댓가" 비난

【바그다드19日AP합동=聯合】 이라크는 19일 시리아가 베이루트에 포위돼있는 팔레스타인게릴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댓가로 60억달러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하·야신·라마단이라크부수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귀국한후 이날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전사들의 입국을거부해왔던 시리아가 최근 그들을 받아들이는대신 60억달러를 요구하고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시리아의 부당한처사를 비난했다。

美、특수作戰부대 再建

비정규전 신속대처·敵후방침투

NYT紙보도

【워싱턴20日=李文熙특파원】 미군은 게릴라작전 사보타지 비밀침투등 재래식 특수작전을 수행하기위한 능력을은밀히 재건하기시작했다고 뉴욕·타임즈紙가19일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의지시로 존·베시合參의장이 총괄하고있는 이특수작전 능력강화계획은 비정규전에 신속히 대처할수있도록 특수전투부대를 재건, 증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로 재건되고있는 특수부대는 그린베레로 알려져있는 육군특수부대, 공군특전비행단, 해군「물개특전단」과 해병대공수특전단을 망라하고있으며 이들은 유사시 적후방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게될 것이라고 同紙는 보도했다.

특수부대는 소련의 페르시아만 침공시 이지역에 1차적으로 파견되어 美지상군주력병력이 도착할때까지 소련의 진격을 막게될 것이며, 美·蘇戰 발생시에는 바르샤바조약기구국가들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게될것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미군의 특수작전능력은 월남전이래 예산삭감으로 인해 매우 저하됐었는데 레이건행정부는 최근 특수부대재건을 위해 새로운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同紙는보도했다。

臺灣등 同胞참여를 中共、새憲法초안에

【北京19日AFP=聯合】 중공당기관지 人民日報는 19일 해외교민들은 물론 대만 홍콩 마카오의 모든『동포』들에게 멀지않아 채택될것으로 보이는 중공의 새헌법초안을 검토·토의하라고 촉구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난16일 新華社통신이 발표한 黨정치국원 彭眞의 성명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美서 中共産業스파이도

유령貿易會社·교환學生이용 軍현대화 必要따라

【워싱턴19日AP=聯合】 중공은군사력증강에필요한 美國의 기술을 획득하기위해, 유령무역회사와교환학생들을 불법적인 방법들을 이용하고있다고 美국방정보국이 19일밝혔다。

국방정보국장 제임즈·A·윌리엄즈중장은 이날議會청문회에서 지난 한햇동안 방의 컴퓨터기술과 마이크로전자장비를 획득하려는 중공의 불법적 노력이 급증한것으로 보고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즈중장은 중공이 군사현대화계획에 필요한 기술획득과 관련, 합법적무역이외에 이를 보충하기위해▲유령무역회사를설립하거나▲우호국들을 제3자로 이용하고▲기술의 최종용도를 고의로 기만하며▲원하는 품목획득을위해 대표단 또는 교환학생을 이용하는방법등을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달 29일의회상·하원합동경제위원회국제무역소위의 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중공은 기술도입을 위해 불법적방법을 사용하는것을 공식적정책으로 삼은것같지는 않으나 미국의수출통제 때문에 부득이 그같은 불법적방법에 의존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中東通信

"어둠짙을수록 黎明가까와" 아라파트戰線 시찰로 분주

士氣앙양 絶對역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공격기간중 몇차례 죽을고비를 간신히 넘긴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은 요즘 병원을돌며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戰士들을 격려하는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명도 가까와진다』—。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게릴라기지를 돌면서 전사들을 독려할때 쓰는 말이다.

그의 지칠줄 모르는 정력은 한달이상을 이스라엘군과의 대치상태에서 시달려온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사기를 돋우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통 아침마다 몇시간씩걸리는 정치회의가 끝나면 아라파트는 전선초소를 시찰하고 부상자를 위문하며 모래주머니도 채우고 때때로 어린이들을 안아주는일도 잊지 않는다.

몇몇 보좌관들은 그가 전투가 발발할때 제일먼저보이는 본능적 반응은 전사들에 달려가는 일이라면서 『그가 안전한곳에 피한는것이 중요한일』이라고 지적했다。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침입이 시작된이래 죽을고비를 여러번 넘겼다.

최근에는 소련대사관에서 한을 전달하기위해 차를몰고 가던중 공중에서 쏟아지기시작한포탄에 차가대파되었다.

이란·이라크戰 暴暑로주춤 대낮 섭씨49도…地獄 방불

병사·차량給水곤욕

○…이란—이라크戰은 사막의 대낮 불볕 더위 때문에 할수없이 중단상태에 빠졌다고 19일 美정보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스라市 동쪽과 북쪽 平原의 한낮 온도는 섭씨 43~49도까지 치솟아 오르는 바람에 양국군 각기10만병력이 폭염에타죽을지경이라는것.

이같은 炎暑에 지난주말의 이란軍 공세이후 전투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란軍은 병사와 차량에 필요한 급수에 애를 먹고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여름 라마단고통

○…이란·이라크戰은 이슬람의 전통적 단식및 금욕기간인 라마단行事기간중에 진행되고있어 이란쪽에서는 이번전투를「라마단작전」이라고부른다.

회교력으로 9월 초생달이 보이는날부터 한달동안 계속되는 라마단기간중에는 전세계 8억회교도들은 해가 뜰때부터 질때까지 약15시간동안 물한모금 먹어서는 안되며 술·담배·섹스를 멀리하고 알라神에 대한 기도와 명상을 해야한다.

특히 올해에는 라마단행사가 한여름철인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섭씨 45도가 넘는 불볕더위속에서 회교도들은 더욱고통을 겪어야 했다.

노약자와 환자, 임산부등을 제외하고는 회교도는 물론 외국인들도 이기간중음식물을 먹거나 술담배를입에대면 엄중한 처벌을받게된다.

후세인의 赦免布石

○…사담·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19일 이란과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 反정부 쿠르드族과 공산주의자들을 사면하는등 국내政情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후세인 대통령은 反정부게릴라활동을 벌이고있는 쿠르드族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한데 이어 국내에 억류돼있거나 해외로 탈출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사면조치를 단행했다.

◇심야의 샹젤리제를 행진하여 콩코르드의 사열대에 경례하는 에콜·폴리테크니크생도대。【프랑스·스와르紙】

엔사이드

프랑스革命日에 펼친 深夜「軍事쇼」

샹젤리제 照明속 2萬軍 演技하듯 詩人的 상상력 動員한 미테랑作品

7월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밤에 파리는 전례없던 새로운 모양의 행사를 벌였다. 프랑스 최대의 국경일을 누비는 군사퍼레이드가 밤 9시44분에 시작되어 11시 15분까지 계속된 것이다. 냉철한 표정의 미테랑대통령이 강대국 프랑스군의 위용을 사열하는 자리였지만 전체분위기와 색조는 한밤중의 공연 그것이었다. 에투왈 개선문으로부터 콩코르드광장 오벨리스크 방첨탑(方尖塔)에 이르는 샹젤리제대로의 조명속을 2만 프랑스군 정예부대는 연기인처럼 감각적으로 부드럽게 행진했다.

『7월14일 심야의 광휘속 샹젤리제에서의 퍼레이드, 그것은 프랑스군에대한 예외적인 경의였다』『힘과 아름다움을 나타낸 프랑스군 초상』 15일조간 피가로지와 프랑스·스와르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프랑스인들은 전통적으로 밤중의 의식행사를 즐긴다. 밤의 조명이 색감과 신비감을 더해주기때문이다.

그러나 보무당당, 위풍당당함을 과시해야하는 군사행진만은 나폴레옹이래 예외를 두지않았다. 그런데 집권 1년2개월이된 혁신대통령 미테랑이 상식을 뒤집듯 군사행진을 조명과 조화의 행사라는 카테고리속에 집어넣어버린것이다. 파리의 9시44분은 황혼무렵이다. 이날의 예술적 열병은 미테랑 대통령의 승용차가 개선문에 도착하면서시작되었다. 파리구관구사령관 페리에중장을 대동한 미테랑 대통령의 사열차가 샹제리제가도 왼편에 도열한 각군부대 앞을 서서히 진행할때 저녁노을이 무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사열부대 맞은편 연변에 운집한 관중은 개선문상공의 구름과 샹젤리제를 조명하는 노을속을 지나가는 미테랑을 응시했다.

10시15분, 사열차가 합참의장 라카즈대장의 영접을받으며 콩코르드광장에 도착하자 이어 에콜·폴리테크니크사관생도가 고수(鼓手)부대와 더불어 선도하는 분열이 개시됐다.

땅거미도 지고 샹젤리제의 휘황한 불빛이 인조의 조명을 이루는가운데 3군 도보부대, 헌병단, 여군공수특전간호대등 2만병력은 개선문으로부터 콩코르드의 사열대를 향해 줄지어 행군해왔다. 1분에 1박20보씩 행진하는 일반도보부대와는 달리 1분에80보씩 완보(緩步)한는 외인부대의 특색있는 행진에 뒤이어 엘리제궁소속 기마부대「가르드·르퓌브리껭」이 나폴레옹군복을 입고5백필의 말을 소란하게휘몰아왔다. 전투헬리콥터부대가 조명을 밝히며 비행한후 장갑부대로는 전술핵플뤼톤미사일부대와 전략핵군승무원부대가 행진했고 파리소방대의 사다리차는 대열의 후미를 빨간색으로 장식했다. 1시간30분에 걸친 군사퍼레이드는 이렇게 막을내렸다.

『한밤중의 열병식은 세상에서 처음 본다. 샹젤리제는 그대로 무대가 됐고 프랑스군대는 연기를했다. 그건 리도쇼였다』 사열대에 섰던 한 무관의 평. 이날 프랑스군의 연기를보러 샹젤리제에 운집한 관중도 4백만은 되리라고 추산(피가로지) 되어 공전의 대기록을 세웠다.

미테랑 대통령은 이 상퍼레이드에 앞서 상오에 도 희귀한 해상열병식에 참석했다. 9시15분 지중해의 군항 툴롱앞바다에 36척의 지중해함대가 도열한 가운데 헬리콥터로 대통령이 프리기트함 조르쥬·레그호에 내리면서 바다위의 퍼레이드는 거행됐다. 그것은 프랑스가 소유한 2척의 항모 포슈호및 크레망소호를 비롯해서 핵공격잠수함 뒤비호, 란스—미사일프리기트함 쉬프렌호 그리고 70대의 함재기가 동원된 대규모행사로 프랑스역사상 1백년만에 7번째로 보는해상열병이란것이다.

자코뱅당이 급진적 민주주의를 선포하고 시민이 바스티유를 탈취하여 부르봉왕조에 종언을고한 혁명기념일에 이른바「자주관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미테랑 대통령은 전보수정권보다 더욱 화려한 정치적 군사퍼레이드를거행했다. 그때문에 지스카르파인 프랑스연합(UDF)을 중심으로 한 야당우파세력은 국경일 행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일제히 참석을거부했다. 툴롱시장 모리스·아렉스와 지역출신 하원의원 프랑스와·레오타르만이 지스카르파이면서 예외로 툴롱행사에참석했을뿐이다.

미테랑 대통령은 그가지니고있는 시인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프랑스적인 국경일 쇼를 벌였다. 【파리=安炳璨특파원】

海外토픽

엘女王 침실侵入件은 無罪

한달전 버킹검宮서 포도주훔친혐의起訴 警護책임자 "수년간 同性연애" 告白사임

엘리자베드영국여왕의 침실침입자 마이클·페이건(31)은 침실침입사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않아 기소되지않을것이라고 검찰당국이 발표했다.

페이건은 19일 침실침입사건한달전 버킹검궁에 들어가 싯가3파운드(3천5백원)짜리 포도주반병을 훔친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이사건을 담당한 스테펜·울러검사는 페이건이 지난9일 여왕침실에 침입한 사건은 널리 알려지긴했으나 단순한 침입만으로는 형사범죄성립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못한다고 밝혔다.

페이건은 이날 삼엄한 경비속에 법정으로 호송됐는데 그의 부인과 부모가 그와 동행했다.

울러검사는 페이건이 지난6월 버킹검궁에 들어가 포도주를 훔친사건은 그의결혼생활이 악화된것과관련된 일련의 분별없는 행동가운데하나였다고 말했다.

페이건은 자신을 균형잃은 정신이라고 표현한 지명변호사인 모리스·니드햄씨로부터 아무런 변호도 원치않는다고 말했다.

니드햄변호사는『페이건이 포도주를 훔친것과 침실침입사건은 관련이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석에 앉아있던 페이건은『여왕의 침실에 대해서는 말하지말라고 했잖느냐. 나는 여왕의 이름이 이자리에 올려지기를 원치않는다. 그럼바에는 차라리 유죄가 되는편이 낫다』고 고함을 쳤다.

開廷직후 페이건은『재판이 시작되기 앞서 한마디 할수있느냐』고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이는 재판부에 의해 거부됐다. 페이건의 아버지는 아들에대한 보석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거절당한뒤 『아들을 대신해 2분만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페이건은『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루돌프·헤스(나치戰犯)다』고 소리쳤다.

그에대한 보석신청은 그자신의 보호를위해 구금상태로 있어야하며 풀려난다면 더큰 범죄를 저지를수있다는 이유에서 거부됐다. 『그의 현재 정신상태는 행동이 전혀 예측불허인 상태다. 그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와 자살경향을 갖고있다. 그는 두번이나 손목에 상처를냈고 흉터가 아직 역력하다』고 런던경시청의 트레버·로이드·휴스총경은 말했다.

니드햄변호사는『나도 그가 심각한 가정문제가 있음을 알고있다』고 거들자 뒤쪽에 앉아있던 페이건의 부모들은『지금은그렇지않다』고 소리쳤다.

한편 버킹검궁의 경호책임자인 마이클·트레스트레일씨가 19일 수년동안 동성연애를 해왔다고 고백한뒤 사임했다고 화이트홀 영국內相이 이날 의회에서 밝혔다.

트레스트레일씨의 사임은 이번사건의 와중에서 터져나와 영국민들에게 큰충격을던지고있다. 【런던AP聯合=聯】

메아리

장마전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일기예보만 번번했을뿐, 기다리는 비는 좀체 오려 들지않고 푹푹 찌는 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도심지 빽빽한 고층건물군의 숲속에 갇히어 그아니라도 답답한데 소음과 매연까지 한몫 거드는지라 생각 나느니 일진청풍이지만는 지금의 서울에선는 언감생심이다.

그래도 사무실 안에서는 한더위때만은 냉방장치가 가동되어 견딜만 하다가도 막상 옥외로 나서면 한꺼번에 열풍이 몰아 닥쳐 금새 땀은 비 오듯 하고 사지의 힘은 단숨에 빠져서 행보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한증막같은 거리의 한더위속을 헤매다가 냉방된 옥내로들어서면 금새 땀은 걷히고 선선하기가 가을과 같은것 까지는 좋으나 이렇듯 하루를 두고도 몇번 복더위와 가을날 사이를 내왕하는데서 저녁무렵에는 몸살을 앓고난 연후처럼 찌뿌드드해지기 일쑤다.

역시 사람이란 그저 한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고 또한 추위 속에서는 오들오들 떨면서 자연의 운행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의 방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를 불볕 속에서 땀흘려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우물물에 목말을 하고 생모시나 삼베고의적삼으로 시원스레 갈아입은채 대청에 앉아 부채로 서늘한 바람을 불러 들이던 지난날의 소하 방법이 부러워진다.

대청에도 그냥 나앉는 것이 아니라 뜰에 물을 끼얹고, 세렴을 드리워 좋은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시원스런 수박이나 오미자화채를 들이킬수있다면 더바랄것이 없을듯하다.

더우기 소하의 도구 가운데 으뜸인 부채는 태극무늬를 놓은태극선도 좋고 아니면 단선, 오엽선, 칠선, 사선등 어느것이든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가히 취할만 할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합죽선이요 그 합죽선 가운데서 부채살이 50살인「광변」을 으뜸으로 친다.

광변합죽선에 청아한 시귀를적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저녁상이 들어올때 까지의 한동안 더위와 시름을 함께 저버려 보는것도 이맘때 복중의 옛韻事로서 새삼 그리워진다.

복중韻事

外信안테나

◆蘇·波·東獨합동훈련시작

폴란드·동독및 소련군의합동기동훈련이 19일 중부동독에서 시작됐다고 ADN통신이 보도했다.

ADN통신은 이번 합동훈련에는 陸·空軍부대들이 참가하며 바르샤바조약군 상호간의 협력을 증대시키는 목적아래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東베를린=聯合】

◆볼리비아 大統領에 빌도소

볼리비아3軍사령의회는 19일 사임한 셀소·토렐리오·비야 볼리비아 대통령의 후임으로 육군참모총장 구이도·빌도소·칼데론대장을 임명했다. 【라파스=UPI】

◆泰接境 캄領內에 마지노線

베트남은 타이국경에서 10km떨어진 캄보디아영내에 전장2백km의 캄보디아版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타이국경비대 소식통이 1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베트남軍귀순자들과 기타 정보를 인용, 베트남이 지난6월부터 공사를 시작, 타이의 국경요충인 아라냐프라테트마을북방으로부터 타이남부의 트라트省건너편까지 이르는 전장2백km에 콘크리트·철조망구축물을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副外務相 產業시찰위해 來韓

【방콕=聯】

스리랑카外務省의 티론·페르난도副長官이 盧載源외무차관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공식訪韓한다.

페르난도副長官은 방한중 金相浹국무총리서리와 李範錫외무장관을 예방하며 산업시설도 둘아볼 예정이다.

스리랑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지해준 주요非同盟국가로서 이번 페르난도副長官의 방한은 우리의 비동맹외교및 양국간 실질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內外動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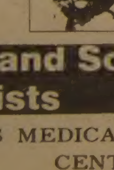
▲全斗煥대통령은 20일 콜롬비아共和國 제172회 독립기념일을 맞아 투르바이대통령에게 축전을보냈다。

▲王相殷民正黨中央委의장은 英國버킹검宮에서 열린 엘리자베드여왕의 生辰축하파티에 참석한뒤 20일낮 귀국했다。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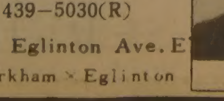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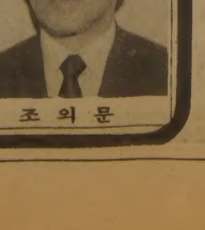
Auto Mechanic License,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E
Markham × Egli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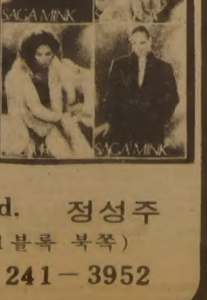
조 의 문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241－3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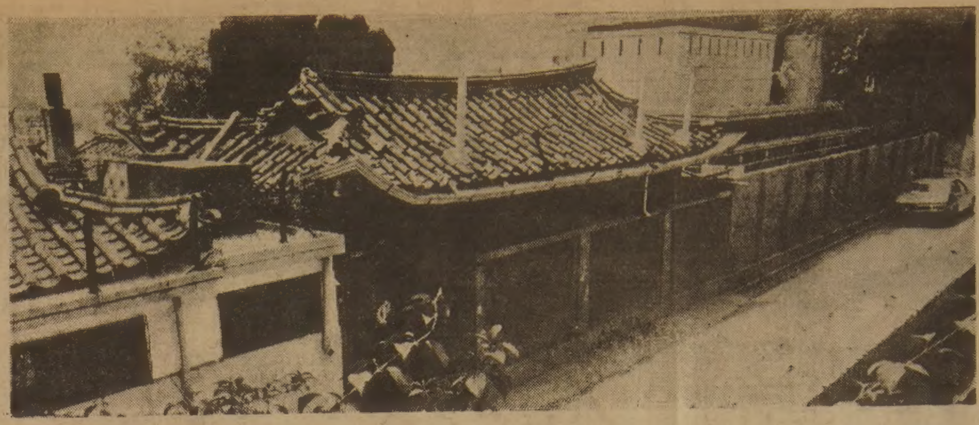
文學史探訪

「中毒者」의 朴榮濬

金容誠 <작 가>

天賦의 良心과 倫理意識의 모럴리스트

○……1934년 24세의 나이로 단편<模範耕作生>이 朝鮮日報 신춘문예에, 장편<一年>이 新東亞에 거의 동시에 당선되어 화려하게 문단에 등장했던 晩牛 朴榮濬은 일련의 농민소설을 발표하더니 45년 해방이후에는 도시서민의 애환과 남녀애정의 갈등을 밀도 짙게 묘파했고 말년에는 그의 독특한『비세속적사생관』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그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작품소재의 변모 과정에서도 인간의 동물성에 대하여 혐오 또는 타매하려는 주제의 일관성을 지켰다。그는 인간적 양심과 강한 윤리의식을 천성으로 부여받은 모럴리스트였으며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그 윤리성을 옹호하는데에 온 심혈을 기울인 작가였다。그의 윤리의식 못지않게 또 하나 변하지 않은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54년부터 76년 세상을떠날 때까지 살았던 서울서대문의 북아현동(1번지1백53호) 집이다。그 집은 경기대학을 지나 북아현동 마루터 너머 기독교 대학감리회가 세운「인우학사」(교직자 자제 기숙사)와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본곳에 자리잡고 있다。더러 옛집을 헐고 양식 이층을 올린 집들도 눈에 띄었으나 재래로 한옥집들이 들어서있는 동네는 30년전 그대로이다。대지28평 건평 18평의 그집 건넌방에서 朴榮濬은 수많은 장편과 단편들을써내었다。지금은 대학생들에게 세를주고 서울독동에서 살고 있는 장남 朴勝烈은 말한다。『이집은 선친이 아세아자유문학상을받았던 그해 상금 30만환에 2만환을 보태어 산집이다。실향민으로서 처음으로 집다운 집을 가지게된것이다』……○



◇朴榮濬이 제1회 亞細亞自由文學賞 수상금으로 마련했던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1의153 한옥。실향민으로서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던 그는 세상을 떠날때까지 대지28평 건평18평의 작은 이집에서 살았다。【李基龍기자찍음】

人間의 動物性혐오로 一貫된 主題
初期작품은 愛·憎의 농촌을 무대로

平南강서郡서出生

朴榮濬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일본서 나라를 빼앗긴 이듬해인 1911년 3월2일 평남 강서군 咸從面鉢山里6백88번지에서였다。그의 부친 朴錫薰은 원래 강서군 新井面 新里 사람으로 평양에 있던 南山峴교회의 패기만만했던 젊은 목사였다。朴錫薰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등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열렬한 독립운동가였다。그러나 그는 일경에 끌려가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다음해 고문에서 얻은 병으로 32세라는 젊은 나이로 억울하게도 옥사했다。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가세였던 朴榮濬의 집안 형편은 부친의 타계로 더욱 어려워졌다。그의 형은 농사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 듯 고생하는 모친을 신체적으로 돕지 않은 것 같다。장작패기, 빨래하기 등 가사를 도우며 한종공립보통학교 4학년을 마친 군은 독자적으로 공부할 결심을 품고 1924년 14세때 생가에서 1백여리 떨어진 평양으로 나갔다。

그가 평양으로 가게된 동기는 부친을 알고있던 선교회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그 가능성은 이루어졌다。그는 중학입학자격을 얻어 崇實중학교에입학할 수 있었고 선교회에서 기식하며 유리창을 닦고 비질을하면서 학비를 대었던 것이다。그는 숭실중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光成고보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中略) 홀로 있기를 좋아했으며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시나 소설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아마 이때부터 문학에 취미를 갖게 된 것 같다。(中略)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서 마저 어버이의 따뜻한 정에 굶주리 고독한 한청년으로서 그는 자연 하이네나 바이런의 시를 탐독하게 되었다。문학에 뜻을 두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가장 절친했던 친우의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인생과 죽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부터였다。

처음으로<M에게>라는 시를 써서 교우지에 실리게 됨으로써 이후 문학활동을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문학에 전념하게 되었다』(정현기<작가 박영준의 전기적고찰>원고 중에서)。朴榮濬은 광성고보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29년 延禧專門 文科에 입학했고 34년에 졸업했다。그는 선교회에서 보조금을 받기는 했으나 넉넉지 못하여 미국인 선교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한국인의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비를 대었다。

延禧전문을 졸업하기까지 그의청년시절은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이었음에도 부지런히 책을 읽고 꾸준히 소설 습작에 열정을기울여 졸업하던 해에 단편<模範耕作生>이 朝鮮日報 신춘문예에, 장편<一年>과 콩트<새우젓>이 新東亞에 당선되는 영광을안았다。그러니까 한해에 장편·단편·콩트를 망라한 한 사람의 굳건한 소설가가 탄생했던것이다。

『나는 農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農村의 雰圍氣를 조금 알았고 農夫의 性格도 약간 짐작했었다。그 農村이란 海邊에서 三十里쯤 떨어진 조그마한 僻村이었으며 가난과 無知로 얼크러진 極히 좁다란 世界였다。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그世界에서 離脫하려했고 그離脫의 努力속에서 살아왔다。

한때 船夫의 꿈도

中學을 卒業할때 나는 船夫가 되려는 浪漫을 꿈꾸었으나 當時 弱質이었던 내 體格이 그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한 浪漫도 結局에는 내 좁은 世界에서의 永離를 꾀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이 깨지자 進學을 하여 文科를 選擇한 것은「文」이라는 것이 어쩐지 내 꿈을 이루어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中略)

憎惡는 愛情과 通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는 나의 境遇를 두고 말한 것 같다。나의 浪漫과 나의 鄕愁는 역시 農村에 있는 듯 했고 그 農村을 미워하고 또 아끼는 二重的인心境도 結局은 鄕愁를 벗치는 하나의 共通된길인 듯했다』(수상<나의文學生活自叙>에서·白民48년5월호)。

그가 문단에 나오고부터 40년대초까지 그의 문학의 제1기에 속하는 시기에 발표한 작품들의 주류는 그가 밝힌 바 농촌을 배경으로 한 농민소설들이었다。

첫단편집<木花씨 뿌릴때>에 실린「관권과 결탁하여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주인공을 통해 농촌사회를 사실주의적인 수법으로 묘사한 <模範耕作生>이나 농사는 거들떠 보지 않고 노름에 미쳐 유일한 재산인 송아지마저 팔아 노름빚을 갚아 버린 아들에게 현실적 자각을 일깨워 주는 <어머니>나 농지를 가진 자의 비리를 그린<木花씨 뿌릴 때>와 같은 작품들은 그의 초기 문학세계를 잘 나타낸 대표적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그 작품들에 나오는 배경과 인간들은 선친의 고향이고 고향 사람들이며 가정의 이야기도 된다』(朴勝烈증언)。

그러나 그는 그 무렵 농민소설을 쓰면서 동시에 도시적인 인간들의 일그러진 모습과 핍박받는 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작품들을 발표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蔡萬植의<레디 메이드 人生>을 연상시키는 인텔리 무직자의 룸펜생활을 유머러스하나 비애스럽게 그린<젯티>는 전자에 속하는것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中毒者>가 있다。좀 긴단편인<中毒者>는 그의 문학에 있어서 근원적이면서도 특이한 면을 지닌 작품이다。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은<中毒者>가『젊은이의 感傷이 없진않으나 (中略) 타인에게 부채(신세)를 지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은 주인공의 內閉性格과 더불어 작자의 도덕적 潔白性向을 뚜렷이 하고 있다』(李善榮<朴榮濬의 文學>·月刊文學71년8월호)란 초기 정신이 후기에까지 일관하고 있음에서이고 특이하다는 것은 보통 단문의 사실적 문체가 이 작품에서는 심리적이고도 긴 호흡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에서이다。

『한끼에 삼십전씩 하는 밥을 하루 두끼씩 먹으며 화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찾기위하여 살려는지도 모르는 미래의 생명을 위하여 기억 안되는 외국어의 단자를 삼십 넘은 내가 외노라고 얼굴살을 찌푸릴 때 나의 옷을 쪽 벗기어 버린 내 아내는 지금 어떤 남자에게서 또한 나에게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그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내든지 사내를 긁어 먹을 권리가 있을는지도 모른다。사람이 참(眞)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그는 미운 것과 괴로움을 동시에 맛보지 않으면 안될 의무가 있다면 나의 아내는 그러한 사내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으며, 또 그 사내에게 마름다움과 기쁨을 뺏어 갈 권리가 있을는지 모르나, 그 권리가 명희(내 아내이었던 여자의 이름)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살아 있는 동안 나와 같은 사내가 가없어 보일 뿐이다』(69년 三省出版社刊·韓國短篇文學大系 朴榮濬편)。

6·25때 납북도

주인공「나」는 아내에 전재산을 넘겨주고 호구지책으로 코닥사진기 하나를 메고 국경을 넘어 만주로 방랑생활을 떠나며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다。「나」는 굶주리며 떠도는 가운데 두번째 여자인 매춘부를 만나 하루밤을 기식하지만『이나벼룩같은 기억을 길러내어 그놈에게 고생을 당하여 나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싶지 않아서』여자를 손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음날 아침 도망치듯 여관을 빠져 나온다。다시 주인공은 해륜(海倫)이란 도시로 가 거기서 어떤 사진관에 취직이 되고 하숙을 얻어 사는데 만나게되는 제3의 여자는 러시아계 혼혈인 하숙집 하인이다。「나」는 부채를 지기 싫여 매일이다시피 매를 맞는 18세의 그소녀를 못 본척 하려 하지만 어느날 그녀에 대한 연민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범하는 데까지 발전한다。

그러나「나」는 그녀의 순정을 떨쳐버리고 그녀로부터 떠난다。그러나 마음마저 떠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나」는 그 윤리적인 부채를 지고 아편 중독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를 떠나 이 먼 오지(奧地)에 와 있는 것 같이 나는 내 마음에게서도 멀리 떠나 있다。그래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려는 이 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다시 아편 영매소에 가야겠다。나는 일금 이십전을 주고 이 중독 속에 빠짐으로 안식을 구하건만, 너는 값도 치를 수 없는 관념에 중독이 되어 얼마나 괴로와하겠니? 나를 비웃지 말아라!』

이것이<中毒者>의 마지막 부분의 독백이다。이러한 朴榮濬의 도덕적 양심은 고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부친의 독립운동 관계로) 일가를 거느리고 간도땅으로 넘어갔다가 해방후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는 1950년 서울 성북동 산꼭대기 무허가촌에 살면서 고려문화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6·25동란을 만났으나 미처 피난을 하지 못했다。

『그때 서울에 남아있던 문인들은 어떤 단체에건 가입을 하지않으면 목숨을 부지할수 없는 형편이었다。하는수 없이 우리는 종로의 한청빌딩에 자리잡고 있던 문학가동맹에 드문 드문 나갔었다。보름쯤 지나자 우리를 선무반으로 내보낸다고 하더니 하루는 일신국민학교에 집합시켜 괴뢰군의 감시아래 미아리 고개를 넘어 이북으로 끌고가는 것이었다。朴榮濬·朴啓周·金容浩등과 유명무명의 문인들이 끌려갔다。우리는 평양을 거쳐 价川훈련소까지 가서 목총으로 훈련을 받았다。朴榮濬씨는 그때 이미 나이가 40세였고 더우기 각기병까지 겹쳐 무척 고생을 했다。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자 그들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한 무리는 강계쪽으로, 한 무리는 평양을 사수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나는 그때 남포에 배치되어 朴榮濬씨와는 헤어지게 되었다』(柳呈회고담)。

아마도 朴榮濬은 강계까지 갔다가 돌아온것같다。그해늦가을 가지고있던 회중시계를 어느농군의 옷과 바꾸어 입고 서울집에 나타났을 때에는 거렁뱅이같아 가족들은 얼른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한다。

후일 제1회 亞細亞 自由文學賞을 타게되는 그의 제3단편집<그늘진 꽃밭>에는<빨치산><曾異山近處>등 전쟁 또는 반공소설 10편이 실려있는데 이것들은 납북과 종군작가단에 있으면서 얻은 경험의 산물들이다。

그러나<그늘진 꽃밭>의 작품들은 그의 문학의 본령은 아닌것 같다。그가 전쟁발발 1년전에『한평의 땅과 한칸의 집도 없는 나로서 가장 保守的인 더구나 생소한 農村을 찾아간다는것은 不可能의 일』이었으며『結局은 小市民의 生活을 土臺로 새世代에 부합되는 새로운 모델을 作品化해 보는수밖에 없다』고 토로한것대로 그는 전후의 새로운 윤리의식을 형상화하는데 정력을 기울였다。

76년7월에 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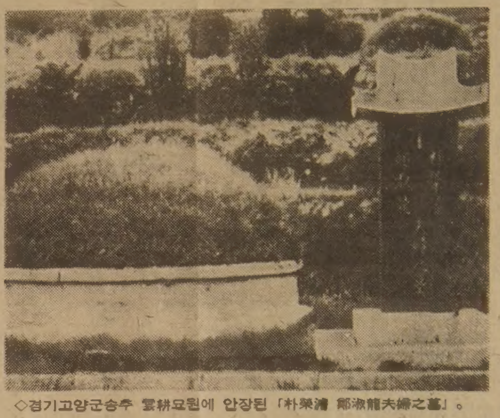
56년 서울신문에 연재했던<颱風地帶>나 60년 東亞日報에 연재했던<오늘의 對話>와 같은 장편들이 모두 서구문명과 더불어 무너져 가는 성윤리에 대한 반작용의 논리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朴榮濬은 몇몇 대학에 강의를 나가다가 62년 延世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얻었으나 그때부터 발병한 당뇨병으로 조심스럽게 건강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분은 서울소공동 중국인 골목의 가화다방을 좋아해서 늘 거기에 나갔다。「황제」복사판이 두어번씩 되풀이 돌아가도록 별로 말이 없으신 분이어서 어떤 학생들은「불독선생」이라고 부르기도했으나 가까이 대하고 보면 아버지처럼 자상했다。가령 후기의 작품인<파찻집 아내>와 같은 작품을 보라。거기서 우리는 가슴 뭉클한 인간애를 느낄수 있다。그는 누구못지 않게 감정이 풍부한 휴머니스트였다』(朴起東회고담)。

그는 건강에 유의하여 거의 매주 서울근교의 산을 올랐다。그러나 75년 초겨울부터 한쪽 팔을 쓰지못해 옆에서 거들어야 옷을 입곤했다。

1976년6월말 마지막강의를 마치고 7월3일 당뇨병으로 시작된 합병증의 결과 폐결핵이란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으나 14일하오5시25분 그의 생을 닫으니 향년 66세였다。『이제부터 쓰는것이 진짜 내 文學이 될수 있다』고 죽기 6년전에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닷새뒤면 그가 타계한지 어느덧 6주기가 된다。



◇경기고양군송추 雲耕묘원에 안장된「朴榮濬 鄭淑龍夫婦之墓」。

◇50년대 중반의 文人演劇의 출연진들。앞줄 왼쪽부터 具常, 한사람건너 崔貞熙, 오른쪽끝이 朴榮濬,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鄭飛石등제씨。

◇만년(1975년)의 朴榮濬。그는 인간적 양심과 강한 윤리의식을 부여받은 모럴리스트였으며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그 윤리성을 옹호하는데에 온 심혈을 기울인 작가였다。

◇제3창작집<그늘진 꽃밭>의 표지。이 창작집에 그의 전쟁문학의 대표작인<빨치산><曾異山近處>등 10편이 수록되어있다。

◇르포의 證人
- 朴勝烈(47·장남·東亞日報문화센터기획부장)
- 柳 呈(61·시인)
- 정현기(43·제자·前연세대교수·문학평론가)
- 朴起東(39·제자·소설가)

평생을 北阿峴洞마루턱 28坪집에서… 22년간 살다 生涯마쳐

年 譜

▲1911년 3월2일 평남江西郡咸從面鉢山里688번지에서 부 密陽朴氏 錫薰과 모 河錫愛와의 사이에 4남중 차남으로 출생。호는 晩牛。부친은 평양 南山峴교회의 목사였음。

▲1919년 3·1운동 일어남。3·1운동에 가담했던 부친 피체。서당에서 漢學 수학。

▲1920년 한종공립보통학교입학。부친 朴錫薰 32세의 젊은나이로 평양형무소에서 옥사。

▲1924년 한종공립보통학교 4년 재학중 평양으로가 중학입학자격을 얻어 숭실중학교에 입학。

▲1926년 평양 光成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

▲1927년 교우지에 <M에게>라는 시를 발표。

▲1928년 광성고등보통학교졸업。

▲1929년 延禧專門 文科에입학。원고향인 江西郡新井面新里19번지 본가로 이사。

▲1931년 건강이 나빠 휴학。新井面 四達학교에서 1년간 교편생활。

▲1934년 延禧專門 文科 졸업。단편<模範耕作生>이 朝鮮日報 신춘문예에 당선。장편<一年>과 콩트<새우젓>이 각각 朴榮濬이란본명과 朴山雲이란 가명으로 新東亞 2월호에 당선 발표됨。장편<一年>은 검열에 3분의1 가량 삭제되어 新東亞 12월호까지 연재。

4월에 경북 榮州郡풍기면 성내동의 성내교회장로인 鄭鎬의 장녀이자 進明여고보를 거쳐 京城醫專연수과정을 이수한 鄭淑龍과결혼。간도 龍井의 東興중학교에서 1년간 근무。

▲1935년 귀향,「독서회」사건으로 일경에 피체, 5개월간 구류。단편<어머니>(朝鮮文壇5월호) 등 발표。

▲1936년<아버지의 꿈>(四海公論1월호)<木花씨 뿌릴 때>(四海公論8월호)<한性格>(朝鮮文學11월호) 등 발표。11월 장남 勝烈 경북 榮州에서 출생。

▲1937년 단편<쥐구멍>(風林3월호)<국수집>(朝鮮文學3월호) 등 발표。

▲1938년 만주 吉林省 盤石縣으로 이주。장편<雙影>(滿鮮日報) 연재。단편<中毒者> 등 발표。

▲1939년 단편<義手>(文章7월호) 수필<榜靑>(朝光11월호) 등 발표。

▲1942년 차남 勝彦출생。

▲1945년 8·15광복으로귀국, 新世代사에 입사。

▲1946년 단편집<木花씨 뿌릴때>(서울타임스사 출판국) 간행。

▲1947년 1월 모친별세。6월 장녀 景林 출생。단편<故鄕없는 사람>(白民3월호)<아내돌아오다>(新世代) 등 발표。

▲1948년 京鄕新聞 문화부에 근무。단편<生活의 破片>(白民1월호), 수상<나의 文學生活 自叙>(白民5월호) 등 발표。서울 성북동155번지 2호에 살다。

▲1949년 高麗文化社편집국장 근무。단편<濾過>(白民1월호)<十年後>(새한민보12월하순호) 등발표。

▲1950년 단편<感情線>(文學6월호) 등 발표。6·25발발, 남북, 평남价川에서 탈주, 가을 서울로 돌아옴。대구로피난。

▲1951년 육군본부 종군작가단사무국장。단편집<風雪>간행。

▲1953년 단편집<그늘진 꽃밭>(新韓文化社) 간행。

▲1954년 3월<그늘진 꽃밭>으로 제1회 亞細亞自由文學賞 수상。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1번지 153호로 이사。장편<愛情의溪谷>간행。

▲1955년 延禧대학교 문과대학강사。首都여자사범대학 강사。화랑무공은성훈장받다。장편<熱風>간행。

▲1956년 장편<荊冠>(東亞日報) 중편<颱風地帶>(서울신문) 등 연재。

▲1958년 중편<女人三代>(思想界) 등 발표。예술원 회원。

▲1959년 漢陽대학교 부교수。

▲1960년 장편<오늘의神話>(東亞日報)등 발표。단편집<傍觀者>간행。

▲1961년 단편<小鹿島>(現代文學) 등 발표。

▲1962년 延世대학교 문과대학교수。단편<背理의 꽃>(思想界) 등 발표。

▲1964년 장편<結婚學校>(朝鮮日報) 연재。장편<오늘의 神話>단편집<古盞>간행。

▲1965년 7월 제14회 예술원상수상。단편 <波動>(文學春秋) 등발표。

▲1967년 서울시文化賞 수상。

▲1968년 장편<家族>(月刊文學) 연재。단편집<秋情>간행。

▲1969년 장편<高速道路>(東亞日報) 연재。

▲1970년 <二元的肯定>(現代文學) 등 발표。

▲1971년 4월 회갑기념으로<슬픈 幸福>간행。

▲1973년 단편 <죽음의 場所>(現代文學) 등 발표。

▲1974년 단편<겨울插話>(月刊文學) 등 발표。

▲1975년 延世대학교문과대학장。

▲1976년 7월14일 하오5시25분 세브란스 병원에서 타계。병명은 폐결핵。고양군 송추 운경묘원에 묻히。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앵콜쇼

기간 : 7월 2일 부터

매주 금, 토, 일 저녁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 기적소리만
망향·향수 · 무정한 여인 등 20여곡

거 구 장

매혹적인 저음의 노래로 지난봄"거구장" 고객 여러분을 흐뭇한 정서에 젖게 해드린 인기가수 배성이 여러분앞에 다시등장! 앵콜쇼로 모시오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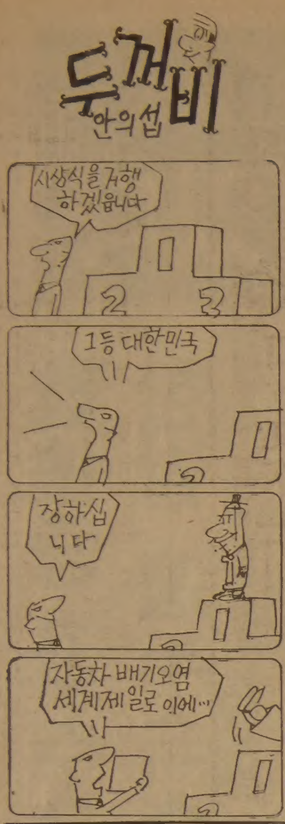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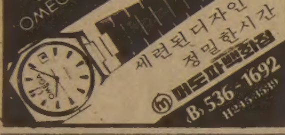
월~목 : 오후 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 2시~새벽2시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5 BETHRIDGE RD.

742—1618





暗달러市場 통해 巨額 해외도피

換錢 TC중 千萬弗이상 潛跡

이민수속 代行·외환관리對策세워야

34만달러 밀반출 기도사건 수사로 우리나라 암달러시장이 도피성자금통원의 중요루트임이 확인됐다.

이번사건에서 밀수자금으로 사용된 8만7천달러의 TC를 추적한결과 밀수자금의 3배가 넘는 27만여달러가 해외도피용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밝혀진것.

이같은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암달러상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도피를 기도했던 李在完씨(36·상업·서울中區茶洞122의1)등 2명의 경우 S여행사와 짜고 S사의 뉴욕지사원으로 임명받은뒤 암달러상을 통해 TC를 구입, 뉴욕지사로 송금하는 방법을 썼다.

따라서 환전 브로커 金奎徹등이 TC발급을 비교적활발하게한 지난 80년11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16개월동안 3개은행에서 1천3백여만달러를환전했는데 이번사건에서 드러난 자금사용비율로 환산한다면 金이 환전한 TC가운데서만도 1천만달러가량이 해외도피용으로 숨어버렸다고 추정된다는것이다.

게다가 金은 환전브로커의 2대조직인 明洞파와 光化門파중 光化門파의일원이므로 해외도피자금의 액수는 더많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수사로 金이속한 光化門파조직이 깨져 암달러시장의 기능이 일부마비된것으로 알려지고있어 최근 달러값폭등도 이와 무관하지않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이사건으로 또 TC(여행자수표)발급제도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검찰은 그원인이 대리환전이 가능한 제도상의 허점과 은행원의 「굿된근무자세」, 또 이민수속 대행업자의 비위에있다고 분석하고있다.

이때문에 金奎徹등이 무더기로 대리환전할수 있었던것이지만 또 환전시 여권에 「환전필」도장을 찍고 「ROK」란 글자를 천공기로 표시해야하는데 담당창구은행원들이 관례적으로 천공을하지않아 인주로 써여진 환전필 도장만지우면 TC발급을한 여권의 재사용이 가능했다는 점도 새로 밝혀졌다.

이밖에 TC의 2개 서명란가운데1개 (나머지1개는 외국에서 사용시 해야하며 2개의 서명이 같지않으면 사용불가)에 서명해야 발급받을수있는데 이를하지않아도 발급해줬기때문에 암달러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했다는것이다.

또 해외이주법상 재단법인만이 이민수속대행업을 할수있어 현재남미이주공사등 4개회사만이 가능한데 대행업소가 너무적어 수속을 부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이용, 한미오피스등 번역업소에서 여권수속을 알선하는브로커노릇을 용이하게 해왔다는 사실도밝혀져 재단법인만이 이민수속 대행업을 할수있는규정을고치든가기존4개

34萬弗관련

회사의 지사를 전국에 널리 둘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밖에 나지막관문이랄수 있는 세관의 검색체제의 허술함도 밝혀졌다.

아울러 암달러상 1백20여명을 조사함으로써 암달러시장의 공백까지 몰고온 이사건의 수사는 비록 주범등의 체포가 불가능한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암달러시장과 TC발급체제에관한 귀중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됐다.

34萬弗주인은 50代華僑

사건발생이틀후 臺灣으로 出國

銀行대리·暗달러商등 6명 추가拘束

미화34만달러밀반출기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南部지청은 20일 일본인 하야마(羽山武智雄)씨등을 통해 국내에 금괴를 반입해온 국제밀수조직의 한국 공급책은 하야마씨의 현지처 鄭銀淑씨(50·구속)의 친오빠인 鄭龍熙씨(60·홍콩거주)이며 미화34만달러가담긴가방의주인은 화교 李恕昇씨(50·서울麻浦區 西橋洞396의51)인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또 이사건과 관련 朝興은행半島지점외환계대리 金圭澈씨(33·서울江南區驛三洞 동신아파트 나동604호)와 암달러상 車玉仙씨(50·여·中區筆洞3街69의11)등 6명을 추가구속했다.

이로써 이사건관련자는 28명중 14명이 구속됐고 3명이 불구속입건됐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鄭龍熙씨는 12년전 홍콩으로이주, 福星상회라는 보석상을 경영하며 자주 서울을 왕래했는데 최근에는 지난5월말에입국, 지난6월1일 출국했다는것.

가방주인 李씨는 또 10여년전부터 아들「李宗勳」의 이름으로 서울中區明洞2街105에 僑聯土産공사라는 표고버섯및 밀크담요 가게를 차려놓고 밀수금괴를 팔아왔는데 사건발생2일후인 지난달12일 하오6시10분발 CPA편으로 대만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李씨를 하야마씨 또는 鄭龍熙의 하수인으로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李씨와 鄭龍熙씨의 신병을 확보하지못해서 더이상의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흥은행대리 金씨는 지난80년11월부터 지난달10일까지 환전브로커 金奎徹씨등에게 1백38차례에걸쳐 1천3백45명분 4백8만7천달러어치의 TC를 발급해주면서 23만원짜리 캐논카메라 1대등 3백여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혐의다.

◇화교 李恕昇씨

◇구속된金圭澈

李·張어음사기사건 오늘 5회公判

李哲熙·張玲子 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제5회 공판이 21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許正勳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사건 관련피고인 32명전원을 출정시킨 가운데 추가기소된 사채업자 金永哲(35)、徐香蓮(55·여) 黃赫老피고인(49)등 3명에대한 사실심리와 피고인전원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마친후 검찰、변호인및 재판부의 보충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있게될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검찰및변호인측이 20여명의 증인을신청할 예정이며、증인신문은 6회공판 (7월24일예정) 때부터 있게된다.

장마前線 계속弱化

24일께 한차례 비

장마전선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가운데 우리나라는 비구름만 오락가락할뿐 비는 내리지않고 무더위만 기승을부리고있다.

중앙기상대는 20일 장마영향권에있는 남부해안 濟州지방에만 가끔 빗방울이비치고 있을뿐 그밖의지방은 구름이 다소끼고 21일 大邱지방은 35도까지 올라가는등 올들어 가장무더운 날씨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약화된 장마전선이 계속 남해해상으로 밀려내려갔다 24일께 다시 북상, 전국적으로 한차례 비가오겠다고 내다봤다.

「국제保險書狀」제도 시행된다

우표·보석등 便紙와 함께보내

8월1일부터

지폐·동전·우표·복권·귀금속·보석·고급장신구등을 편지와함께 넣어 외국에 보낼수있는 국제보험서장(保險書狀)제도가 오는8월부터 처음시행된다.

20일 체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홍콩 영국등 세계1백개국과 국제보험서장교환협정을 체결, 8월1일부터 수발을 시작키로했는데 국제보험서장제도는 운송과 배달과정에서 내용물이 분실또는 손상될경우 정부가 전액을배상해주도록 돼있다.

보험서장의 내용물의 무게는 2kg을、보험가액(保險價額)은 2백71만원을 초과하지못한다.

보험서장을 보내거나 받으려면 서울국제 부산국제 仁川 大田 群山 裡里공단 光州 濟州 大邱 馬山 우체국등 세관원이 주재하고있는 10개 우체국에서 우체국직원과 세관원이 입회한 가운데 개봉또는 봉함해야한다.

이용요금은 보험가액 5만4천2백원마다 3백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며 우편요금은 별도로낸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5行뉴스

◆차타려다떠밀린老人절명 【金海】경남 金海경찰서는 20일 버스를타려던 노인을떼밀어 넘어뜨려 숨지게한 경남1바5306호 택시운전사 박영기씨(26)와 동신버스소속 경남5아1609호 버스운전사 김영부씨(32)를 중과실치사및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다.【聯】

天井不知… 한시택시값

웃돈 최고 2천만원까지 去來

私債업자까지 가담 부채질

서울 2/3이상 不法으로 去來

교통부、車主미움살까봐 對策못세워

◇불황속에 호황…한시택시가 최고 1천7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물이 나오자마자 팔려 개인택시만 남아있다 【20일하오 장안평 중고자동차시장에서】

한시택시값이 턱없이오르고 있는데도 교통부는 이를 바라보고만 있다. 한시택시는 지난79년 교통부가 우리나라 택시운수업계의 고질인 지입제의 각종폐단을 없애기위해 실시한것으로 당시 4~5백만원의 웃돈에 거래되던것이 최근에는 1천7백만원에 거래되고있으며 光州에서는 최고2천만원을 홋가하고있다.

이처럼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은것은▲최고 89년까지 영업할수있고▲10부제운영으로 한달에 27일동안 영업할수있으며▲법인세등 과세특례로 다른차에비해 수익성이 높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일부 사채업자나 돈많은 사람들까지 한시택시에 투자하고있어 변칙적인 인기에 부채질까지 하는형편.

게다가 법적으로 거래가제한돼있는 차량까지도 불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있다는등 택시운수업계에 돌풍을일으키고있어 교통부는 89년까지 없어지게 돼있는 한시택시를 앞당겨 없앨계획도 구상중에 있지만 차주들의 강한 반발로 뚜렷한 대책을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통부는 당초 한시택시의 연한을 82년까지로 잡았다가 정부의 서민보호정책과 차주들의 반발에 부딪쳐 「남은차령＋5년」의 시한으로연장, 결국최고 89년까지 영업이가능하게됐다.

현재 전국에는 1만3천여대의 한시택시가 있는데 브로커들의 농간까지 겹쳐 프리미엄이 치솟고있으며 매물이 없자 개인택시、회사택시까지 덩달아 오르는 기현상을 낳고있다.

한시택시를 사고팔수 있는 것은 1회에 한하고 예외로는 해외이주·취업및 사망한 경우에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것은 합법적으로 매매가 인정되는 소위백색한시택시로 보통 1천5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시한이 4년남은 포니2의경우 차값 5백50만원에 프리미엄이 1천1백50만원이 붙어、1천7백만원에 이르고있다.

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소위 청색택시도 불법거래되고있는데 값은 백색에 비해 1백~2백만원싸다.

요즘 서울장안평중고자동차시장에서는 백색한시택시가 하루평균 10여대、청색도 비슷한 숫자로 거래되고있는데 매물이 나오기무섭게 팔리고만다.

한 중개상에 따르면 매매상을 거치지않고 당사자끼리 매매각서를 교환하고 거래되는 청색택시가 훨씬많다는것.

현재 한시택시는 서울에6천2백대가 몰려있는데 이중 3분2이상이 불법거래의 내력을갖고있다고 중개업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시택시는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에비해 무려7일이나 더영업이 가능해 월수입금이 24만여원이 많고、타인운전이 얼마든지가능하다.

이때문에 한시택시를 사면 1년반만 지나면 택시값을 전지고 그후부터는 매월90만원을 앉아서 벌수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운수업계에선 어느새 『한시택시 3대면 골프를 친다』는 유행어가 나돌정도다.

이같은 높은 수익성이외에도 브로커들이 『설마 그많은 한시택시를 시한이 끝났다고 없애겠느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로 면허를 바꾸어줄것이라』며 구매자를 유혹하는것도 한시택시값이 오르는 이유가 되고있다.

회사택시가 고가로 불법거래되고 있는것도 한시택시와 같다.

회사택시는 택시회사가 새차를 배정받기위해 자금사정이 어려울때 거래되고 있는데 형식상구매자를 주주로남기는 편법을 쓰고있으나 사실상은 직영화이전의 지입제와 같은 조건을 달고 있다.

이경우 회사택시값은 1천2백만원에 거래되고 중고차는 1천만원에 거래된다.

개인택시도 백색·청색으로 나뉘어 합법적으로 거래가가능한 면허발급후 5년이지났거나 소유주의나이가 55세가 넘은 개인택시는 백색으로1천3백~1천4백만원에 거래되며、불법거래밖에 할수없는 청색택시는 백색보다1백만~2백만원 싼편이다.

잇단 列車 추락사

京釜線승객 승강구서 더우식히다

【金泉】냉방장치가 안된 경부선 보통열차를타고가던 승객들이 더위를식히려고 승강구에 나와있다가 떨어져 숨지는사고가 자주 발생하고있다.

지난 19일하오10시52분께 경북金陵郡牙浦面大新洞 경부상행선(서울깃점2백64㎞)에서 부산발 서울행422보통열차를 타고가던 김성현씨(20·서울東大門區祭基1洞628)가 승강구에서 바람을 쐬다가 실족、그자리에서 숨졌다.

지난2일새벽 2시30분께 경북金陵郡鳳山面 新岩1洞 경부하행선 (서울깃점2백43㎞)에서 서울발부산행 제422보통열차를 타고가던 이임씨(21·경기도富川市鵲谷洞105)가 승강구에서 떨어져숨진것을비롯、지난달25일하오10시4분께 경북金陵郡牙浦面大新洞 경부상행선 (서울깃점2백64㎞)에서부산발서울행422보통열차를 타고가던23세가량의 신원미상의남자도 승강구에서떨어져숨졌다.【聯】

콘트롤·데이타社

「都産」말썽끝에 폐업

회사내의 도산세력과대립、집단시위사태까지 빚었던 서울九老공단안의 콘트롤·데이타사가 20일상오 폐업하기로 결정、노동부에 정식통보했다.

美본사에서 내한한 브라운 해외담당부사장과韓相旭한국지사장은 이날상오 노동부로 韓秉翊노사지도관을 방문、이카 폐업한다고 밝혀 즉각 철수한다는것은 아니며 永登浦區加里峰洞 九老공단의 공장대지와 건물및시설에대한 처리는 곧 결정해서 추후통보하겠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투자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콘트롤데이타미본사의 이같은 통보에 따라 공장폐업 절차를비롯해서 근로자 퇴직금과해고수당등 금품청산문제、근로자전직문제등을 브라운부사장과 계속협의중이다.

公訴사실 모두시인

韓英洙의원 첫公判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된 민한당소속 국회의원 韓英洙피고인(47)과 朴仁淑피고인(35)에 대한 첫공판이 20일 상오9시30분 서울형사지법 魯元旭판사심리로 열려 朴피고인에 대한 검찰직접신문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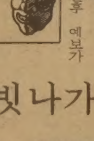
이날 공판에는 韓피고인도 출정했으나 전날 변호인이 재판연기신청을 냈으며 韓피고인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韓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는 다음공판 (7월27일 예정)으로 연기됐다.

이날 朴피고인은 간여검사인 朴鍾喆 서울지검형사1부장의 직접신문에서 지난해2월부터 지난6월28일사이에 모두20차례에 걸쳐 서울江南區論峴洞 남서울호텔、삼정장여관등에서 韓피고인과 정을통해온 사실을모두시인했다.

「타는 가슴」

중앙기상대豫報局長 金光植씨

"짧은장마" 豫報빗나가길 바랐는데…



중앙기상대 金光植예보국장(57·사진)은 날씨에따라 기분이 갰다 흐렸다한다.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덜컥 내려앉고 비가적게오면 저기압이된다. 요즘처럼 가뭄이 계속되기라도하면 목구멍에서 단내가 난다. 그의 말처럼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둔 어머니와 다를바가없다.

그의 직책은 매일아침 8시30분과 하오4시30분 두차례 관계자들과 함께 기상자료를 분석、그날의 일기예보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예보가 적중하지못할때가 자주있다는데 있다.

날마다 일기예보를 한후 예보가 맞기를 기원하는것은 기상대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 묘하게도 금년에는 『장마기간이 짧고 강수량이 많지 않겠다』는 예보가 빗나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으나 심술궂게도 정확한것으로 굳어가고있다. 맞혀놓고도 그의 마음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는것이다.

그가 기상업무와 씨름을 시작한것은 해방 다음해인 46년. 6·25동란기에 한때 학교교사와 서울농대에서 강의를 하다 54년 다시 기상대에 들어와 30년을 하루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가뭄、집중호우、태풍、해일등 기상재해。정확히 예보、피해를 줄이기 위해 3백65일 내내 밤낮없이 기상자료속에 파묻혀 살지만 격려보다는 비난이 많은 생활이다.

『언제쯤 비가 오느냐』 『비좀 오게 할수 없느냐』는등 쏟아지는 질문과 항의에 자신이 잘못해 기상재해가 일어난것처럼 늘 송구스럽기만하다.

『의사가 오진을 할때도 있을 수 있듯이 기상예보를 1백% 정확히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변화무쌍한 기상을 점치는데는 선진국에서도 틀리게마련이라며 이해를 당부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지만 낡은 시설등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 강하게 풍긴다.

『매년 기상재해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나지만 그 피해액의 일부만투자해도 정확한 예보에 한걸음 다가설수 있읍니다』 예사로만 들리지만은 않는 말이다. 허기사 수천년을 같은 형태의 가뭄과 홍수를 다람쥐 체바퀴 돌듯 겪여 왔지만 이렇다할 방책을 만들어 놓지 못한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盧基昌기자】

여름철 특별세일

7월10일(토)~8월7일(토)까지 (1달간)

45% Off!

Noritake

교민에게 파격적인 봉사

40% Off

고급 보헤미아 크리스탈
고급 불란서 크리스탈

※이외에도 각종 대나무제품및 그림을 취급합니다.

STORE OPEN 시간 월·화·수·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금 : 오전10시~오후9시

The Sol Fine Gift Store
1032 St. Clair Ave. W. (Oakwood에서 1block 서쪽)
☎ : 656-4315 Mrs. 최

亞·大洋洲 洋弓
한국男女단체 계속先頭
개인선 日·中共추격받아

◇金珍浩씨

◇嚴善基씨

【오비히로(日本)=李鍾南특파원】한국남녀양궁대표팀은 20일 日本北海道 오비히로(帶廣)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대양주 양궁선수권대회 2일째 싱글라운드에서 단체전및 개인종합 모두 수위를 차지했다.

이틀동안 거행된 4개종목(남자는 90·70·50·30m, 여자는 70·60·50·30m)에서 한국팀은 한국신기록 3개, 한국타이 1개를 수립하면서 단체·개인전을 석권했다.

특히 日本의 압승이 예상되던 남자단체전에서 한국은 예상을 뒤엎고 金永雲 李龍浩 嚴善基 3명이 호조를보여 수위를 차지했고 여자는 金珍浩 朴英淑 金美英등이 예상대로 수위에 올랐다.

특히 金珍浩는 더블라운드를 마치면 70 60 30m와 개인종합에서 4개의 세계신기록이 예상된다.

◇제2일전적

▲남자싱글라운드단체=①한국 3,804(한국신·종전 3,692) ②일본 3,670 ③중공 3,665
▲동 개인종합=①金永雲 1,284 ②李龍浩 1,273 ③야마모또(일본) 1,248 ④嚴善基 1,247 ⑨朴益洙 1,222
▲동 30m 싱글=①金永雲 355(한국신·종전354) ②李龍浩 349 ③朴益洙 348 ④嚴善基 345
▲여자싱글라운드단체=①한국 3,812(한국신·종전 3,735) ②중공 3,730 ③호주 3,640
▲동개인종합=①金珍浩 1,291 ②朴英淑 1,269 ③郭梅珍(중공) 1,267 ④金美英 1,252 ⑤梁景順 1,206
▲동 30m싱글=①金珍浩 351(한국타이) ②郭梅珍(중공) 346 ③朴英淑 343 ④梁景順 333 ⑦金美英 332
▲동50m싱글=코엔·마이클(호주) 325 ②金永雲 324 ③마쓰시다 322 ④李龍浩 320 ⑧朴益洙 314 ⑩嚴善基 312
▲동 50m싱글=①孟凡愛(중공) 312 ②郭梅珍(중공) 310 ③梁景順 308 ⑤朴英淑 307 ⑥金美英 307 ⑨金珍浩 302

朴益洙·梁景順부진

◆…오는11월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양궁은 남자단체및 개인, 여자단체및 개인에 4개의 金메달이 걸려있다.

출전선수는 남녀 각각3명이 엔트리로 지금 열리고있는 아시아선수권대회보다는 1명이 적다. 따라서 현대표중 1명이 탈락해야하는데 이번 대회에서 朴益洙와 梁景順이 부진, 탈락위기를 맞고있다.

홈런王 행크·아론 내달 26일에 訪韓
10월에는 브레이브스팀도

프로야구팀 三星라이온즈는 美國의 홈런王 행크·아론을 초청, 오는8월 26일부터 9월2일까지 특별 배팅지도를 받는다.

행크·아론(48)은 지난54년 밀워키·브루어즈에서 선수생활을 시작, 65년 어틀랜터·브레이브스로 이적, 74년 베이브·루즈의 7백14개 홈런최다기록을 깨뜨리고 생애통산 7백15호홈런을 기록했다.

아론은 76년 통산7백55호홈런을 남기고 은퇴, 현재 브레이브스 부사장으로 일하고있다.

한편 三星은 행크·아론이 소속된 브레이브스팀도 초청, 후기시즌이 끝난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三星을 비롯한 국내프로팀들과 5차례의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국내프로야구팀들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三星은 아오다등 日本人코치들을 수시로 초청, 타격지도를 받고있으며 OB·베어스도 시즌중 감독·코치들을 차례로 日本에 파견, 기술습득을 꾀하고있다.

체육인福祉基金 설치
매년 13명選定 최고6백만원까지 지급

국가대표선수와 체육유공자들의 생활을 돕기위한 체육인복지기금이 설치됐다.

체육부는 20일 국민체육진흥재단과 협의, 20억원의 기금을마련, 가정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에게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상해보험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훈련과 경기력향상에 전념토록 하기위해 지원하는 특별보조금은 가정생활이 어려운 국가대표급의 현역선수및 체육유공자로 매년 13명한도 내로선정, 1인당 최고6백만원까지 지급한다. 수혜자는 대한체육회장 각 경기단체회장 도지부장및 국민체육진흥 재단이사장등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사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혜자가 훈련에태만하거나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할경우, 보조금지급은 하지않는다. 한편 경기나 연습도중 부상한 선수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하던 보험금은 앞으로 최고5천만원까지 대폭늘리고 일상생활에서 입은 부상이나 사고에도 이보험제도를 적용키로했다.

大學축구選拔팀 어제結團
來25일 멕시코世界선수권 참가

82년도 세계대학생축구선수권대회(7월25~8월6일·멕시코)에 출전할 대학선발팀은 20일상오 축구협회에서 결단식을 가졌다.

이날 崔淳永회장은 金致河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고 『76년 제5회 우루과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과거의 전통을 살려 이번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선수단은 金단장 인솔로 21일하오 KAL편으로 장도에 오른다.

◇선수단명단

▲단장=金致河 ▲감독=柳判順 ▲코치=裵基俊 ▲트레이너=李次滿 ▲선수=吳連敎(한양대) 蘇泰鎭(영남대)(이상GK) 朴福濬(연대) 安柄泰(한양대) 金聖基(한양대) 金榮宇(단국대) 趙允煥(명지대) 金平錫(광운대)(이상FB) 李興實(한양대) 朴良夏(고대) 李吉龍(고대) 白南秀(한양대)(이상LK) 成銳起(고대) 白致守(한양대) 金錫垣(고대) 蘇光鎬(한양대) 李敬男(경희대) 孟秀(동아대)(이상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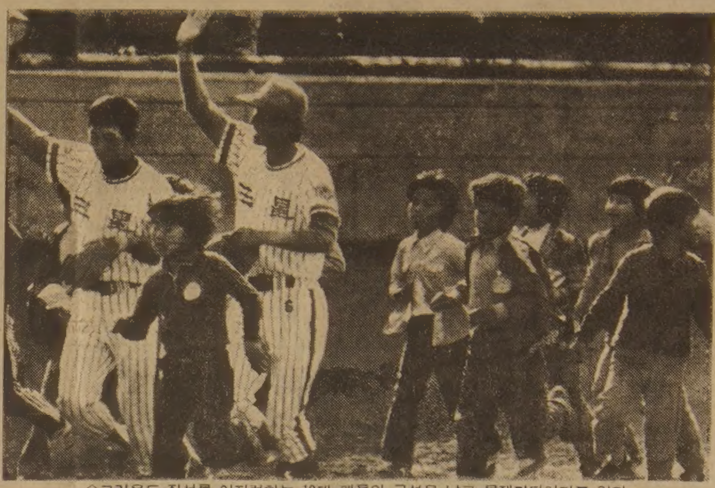
陸上 전지訓鍊團 12명 오늘美向發

오는 11월의 아시안 게임메달유망주로 구성된 육상전지훈련단(코치1·선수11)이 21일 美國으로 떠난다.

◇훈련단

▲코치=韓承哲 ▲선수=徐末九·張在根·金福柱·金鍾鎰·梁股寧·洪淳模·金相文·崔鏞準(이상남자) 牟明姬·金順花·田京美(이상 여자)

그라운드亂入·지나친 사인要求
10代팬「過熱」문제있다
競技중 공 주우러 뛰어들고 한밤 選手숙소 침입하기도


◇그라운드 질서를 어지럽히는 10대 팬들의 극성은 날로 문제가되어가고 있다.

10대 스포츠팬들의 극성이 그라운드질서를 지나치게 어지럽히고있어 이들에대한 올바른 지도가 시급하다.

지난 16·17일 이틀간 잠실야구장 개장 기념대회도중 내야스탠드에 앉았던 국·중교생 어린이들이 그라운드에 뛰어들어 파울된볼을 주워가거나 잔디에서 장난을쳐 몇차례나 경기가 중단되었다. 또한 타자들의 시야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둔 센터스크린에서 어린이들이 미끄럼을 타 타자들을 곤혹케했다.

그러나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할 어른관람자들은 수수방관만 했다.

그라운드에 뛰어든 어린이들은때로는 강하게 날아오는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할 위험도있다. 따라서 주위의 성인관람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뜻있는 인사들은 강조한다.

경기장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는 어린이들에게만있는것이 아니다. 종종 술에취한 일부 성인관중들이 그라운드에 뛰어드는 추태가 수없이 되풀이 되어왔다. 이때문에 어린이들도 이들의 본을보고 운동장에 뛰어드는경우가 많다는것。 야구관계자들은 이같은 어린이들의 그라운드 난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성인난입자들을 철저히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들의 무질서는 경기도중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기위해서로 밀고 당기며 때로는 출발하는 버스에 매달리는 광경도 자주 목격된다. 심지어는 야구공이나 글러브·배트등을달라고 아우성치거나 선수단숙소를 한밤에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프로구단 관계자들이 밝혔다.

최근에는 야구뿐만 아니라 크게 인기가오른 남자배구에도 10대여학생팬들의 극성이 번지고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文化체육관에서 열린 국제친선 남자배구대회때는 여중고생 팬들이몰려 경기가 끝난뒤에는 물론 경기시작전에도 사인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또 경기가 한창진행중일때 플로어에나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등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5월 日本NHK컵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한국대표팀이 전승으로 우승하자 남자배구의 인기가 갑작스럽게 부상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것.

인기있는 플레이어에게 사인과 사진찍기를 요구하는 10대팬들을 나무랄수만은없다.

그러나 경기전에 불필요하게 신경을써서 선수들이 자칫 흐트러진 정신상태를 유발토록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배구인들의 주장이다.

大鵬旗 고교야구
公州高 9회 逆轉
普成에 6-3 뒤지다 4點뽑아

【大邱】公州高는 20일 속행된 제4회대붕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2일째 普成高와의 대전서 9회말4번金莊馨의 굿바이히트를날려 7-6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또 東山高는 이날原州高에 11-2, 7회 콜드게임승을 거두고 2회전에 진출했다.

◇제2일전적

▲1회전

보성고	100	030	200	6
공주고	000	001	204	7

동산고	230	042	×	11
원주고	100	100	0	2

(7회콜드게임)

◇제1일전적

동래고	140	212	4	14
선린상	010	402	0	7

(7회콜드게임)

대구상	121	031	4	12
중앙고	000	400	0	4

(7회콜드게임)

전통무술「活氣道」美에 示範나들이
로스앤젤레스·하와이서 세미나도
상대방攻擊 아닌 護身과 건강보호 武道
디스크·高血壓예방…骨折치료에도 효험

한국 전통 무술 가운데 하나인 活氣道가 19일 美國으로 나들이를 갔다.

한국활기도협회 宋基澤회장, 權勇이사등 4명은 로스앤젤레스 유니언대학의 초청을받아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에서 활기도 시범과 세미나를갖게된다.

무술은 대별해서 殺氣法과 活氣法으로 나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무술인 태권도 합기도 가라데 유도 쿵후등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로서 殺氣法에 속한다고 할수있다. 活氣法은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 아니라 신경자율운동을 통해 자기자신과 건강을보호하는 기술이다. 活氣道는 중국식 무술에다 한국전통의 무술을 가미한것으로 血脈을 풀어서 몸을 보호하고 질병을 막는 무도.

활기도에는 자율운동과 타율운동이 있다. 자율운동은 각자가 스스로하는운동이고 타율운동은 활기도 사범들이 터득한 고도의무술을 가르쳐주는것。요즈음은 자율운동 기초운동법이 커다란 호응을 얻고있다.

현재 활기도 국내회원은 1백50개 지부에 3만여명。해외에도 美國 日本등 6개지부가 설치되어있다.

이번 美國유니언대학의 초청을받아 활기도협회는 美國에서 활기도의 우수성을 과시할예정.

활기도의 특징은 운동을 통해 목디스크、허리디스크、고혈압등 미리 예방한다는것。특히 골절 환자들은 쉽게 치료할수 있다.

농구선수 林正明(三星電子)이 활기도로 무릎과 발목 부상을 치료했고、지난 서울국제 초청남자농구대회서 朴守敎의 오른쪽 발목부상을 현장에서 즉석치료해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다。현재는 國民銀行의 朴鉉恩선수가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고 있다。활기도 협회는 앞으로 농구선수들 뿐만 아니라 각종목선수들의 치료및 예방운동을 확대해나갈예정이다.

또한 무술로서의 자기보호운동을 보급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閔炳宅기자】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스페인 월드컵 赤字
組織委·業所"망했다"
豫想10分의1 15萬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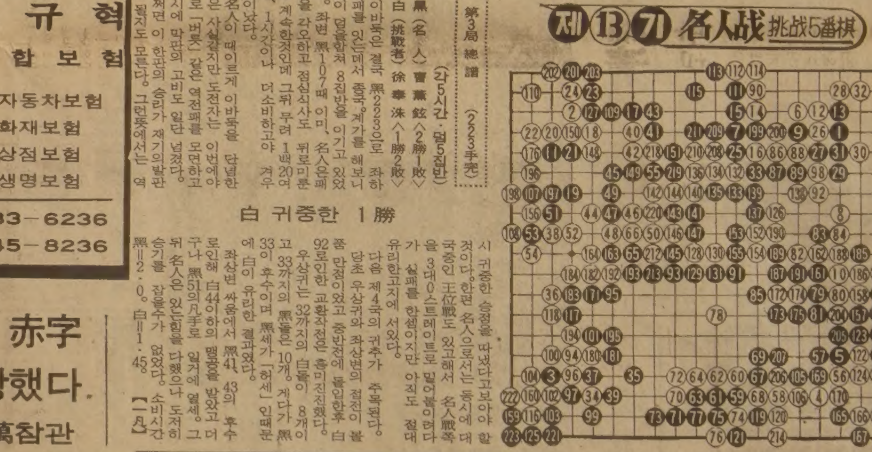
【마드리드16日AP=聯合】제12회 스페인월드컵대회는 흥행면에서는 완전 실패, 대회조직관계자들과 관광업계에 엄청난 적자를 안겨주었다.

스페인대회분석가들은 이번대회의 흥행은 홈팀 스페인이 실망스런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대회조직위원회의 호주머니를 완전 바다나게했다고 말했다.

스페인월드컵대회를 참관한 외국관광객은 당초 스페인당국이 추산한 1백25만명의 10분의1밖에안되는 15만여명에불과해, 입장료수입뿐만아니라 호텔·레스토랑·바등 스페인관광업계를 완전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월드컵경기를 노린 상점과 무역업자들은 대회4주간 판매실적이 평소에 비해 반으로 뚝 떨어졌고 기념선물을 만들어내놓은 80여개의 제조업체들도 생산량의 10분의1밖에 팔지못해 2천만달러상당의 재고품이 창고에 쌓여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總譜 (223手完) (각5시간·덤5집반)
黑(名人)曺薰鉉〈2勝1敗〉
白(挑戰者)徐奉洙〈1勝2敗〉

白 귀중한 1勝

이바둑은 결국 黑223으로 좌하귀패를 잇는데서 종국。계가를 해보니 白이 덤을합쳐 8집반을 이기고 있었다。좌변 黑107때 이미、名人은 패전을 각오하고 점심식사도 뒤로미룬채 계속한것인데 그뒤 무려 1백20여수、1시간이나 더소비하고야 겨우 끝이났다.

名人이 때이르게 이바둑을 단념한 것은 사실같지만 도전자는 이번에야말로 「버릇」같은 역전패를 모면하고 동시에 막판의 고비도 일단 넘겼다.

어쩌면 이 한판의 승리가 재기의발판이 될지도 모른다。그런뜻에서는 역시 귀중한 승점을 따냈다고보아야 할것이다。한편 名人으로서는 동시에 대국중인 王位戰도 있고해서 名人戰쪽을 3대0스트레이트로 밀어붙이려다가 실패를 한셈이지만 아직도 절대유리한고지에 서있다.

다음 제4국의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우상귀와 좌상변의 접전이 불꽃 만점이었고 중반전에 돌입한후 白92로인한 교환작전은 흥미진진했다.

우상귀는 32까지의 白돌이 8개이고 33까지의 黑돌은 10개。게다가 黑33이 후수이며 黑세가 「허세」인때문에 白이 유리한 결과였다。

좌상변 싸움에서 黑41、43의 후수로인해 白44이하의 맹공을 받았고 더구나 黑51의凡手로 일거에 열세。그뒤 名人은 있는힘을 다했으나 도저히 승기를 잡을수가 없었다。소비시간 黑=2·0。白=1·45。【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68〉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양달③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기욱에게 듣기좋은 말로 아부까지하고 있었다.

기욱의 인간성에 대한 호기심이 처음부터 없었던만큼 기욱의 집안에 대한 호기심이 수지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그녀 역시 남 부러울게 없이 중요하게 자랐지만 고향땅에 고기근이나 술말이나 선심쓴다면 모를까, 회관을 지어서 기증하는 한 단계 높은 부자에 대해선 솔깃해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없이 사는 사람을 덮어놓고 업신여기기 잘 하는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그녀 역시 자기네보다 단수 높은 부자에 대해선 덮어놓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다.

『맞았어. 이번회관기증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어떤 희망의 표현 같아 보이더군』

『어떤 희망이라뇨?』

『뻔하잖아? 당신이 못이룬 희망이지뭐. 국회의원돼보고싶어 뒤로 공도 많이 드리고 돈도 꽤 없애셨을걸 아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번도 공천도 못받아보셨지만 말야』

『그럼 어느당에 소속이라도?』

『그렇구말구. 만년여당원이시지』

『인자한 노신사인줄만 알았는데 그런면도 있으셨군요』

『지금 현재는 인자한 노신사일뿐이야. 개관테이프 끊고 기증식 하고 고향유지들 술대접 하고 하는데 당신은 뒷전으로만 도시고 자식들을 내세우려고 애쓰시더군. 우리야 실상 언제적에 고향 사람들 알고 지냈나 뭐』

『그럼 아버님이 기욱씨를 지목하신단 말인가요?』

『아냐. 김치국 마시지말아. 형님이지. 형님과 형수님이 뭐나 그런 장단에 춤을 잘추거든. 장남답게 야심도 있고…. 아마 오늘 우리 아버님이 흡족하셨을거야. 형님이나 형수님이나 어쩌면 그렇게 촌사람들한테 잘하는지 감탄감탄이야. 나같은건 백번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짓이더군』

『기욱씬 야심이 없군요』

『난공돌이야. 형님하곤 받은 교육부터가 딴판인걸. 오늘같은날 이렇게 도중에서 도망을쳐서 애인만나러 온것만봐도 내인간성 모르겠어? 왜 섭섭해? 내가 정치적야심 없는게』

『아네요. 안심이 돼요』

『그럼 나 역시 안심。자 아우리 약혼반지나 마추러 가자구』

그들은 다정하게 손목을 잡고 번화가의 인파에 섞였다.

기욱이 정치적인 야심과는 거리가 먼것 같다는게 마음 놓이기도하고, 한편 서운한 것 같기도 했다.

기욱은 큰 백화점을 몇개나 그냥 지나쳤고, 이름있는 보석상이 모여있는 거리도 기웃대지도 않고 지나쳤다.

그의 자신있는 걸음걸이로 봐서 미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충무로에 있는 어떤 빌딩으로 들어섰다. 보석상 같이 화려한게 있을것 같지 않은 우중충한 건물이었다.

『어딜 가고있는거예요?』

『반지하러. 형수님이 믿을만한데를 소개해주셔서 그리로 가는 거야. 형수님의 친구이자 오랜 단골이래』

한푼이라도 싸게 하려고그러는구나。고향에다 회관까지 기증하는 부자라 씀씀이가 호탕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짜게구는구나싶어 수지는 금새 기분이 언짢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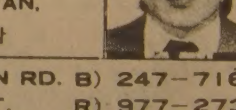
새침해진 수지를 살피며 기욱이 능글맞게 웃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801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차트行政」 없어진다

全대통령 指示따라 打字된 油印物로 대체

行政府의 차트브리핑制가 사라진다. 정부는 「번잡한차트를 통한보고를 일체하지말고 간소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라」는 全斗煥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0年代이래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차트를 사용한 브리핑을 없애는 대신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한 油印物로 설명이나 보고를 하기로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행정보고와 업무현황에관한 차트 브리핑制를 없애기로한것은 60年代이래 실시해온 이제도가 內實보다 展示行政내지 形式으로 치우칠뿐더러 지나친 要點보고를 강조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까지 糊塗, 눈가림식이되는 불합리한점을 시정하고 차트작성에 따른 예산과 人力및 시간의 낭비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특히 정책판단이나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위해 차트化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것도 또하나의 목적으로 지적되고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全대통령의 지시가 있은후 모든 보고에 차트의 사용을 일체 하지않고 있는데 지난14일 金東輝상공부장관과 15일의 金正禮보사장관의 보고때부터 차트를 사용하지않고있다.

정부는 19일 차트行政을 없애는것을 획기적인 행정간소화의 한계기로 삼아 행정에 적합한 타이프라이터의 개발을 서두르기로하고 총리행정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내무, 체신부, 총무, 과기처등 관계부처가연구작업에들어갔다.

정부가 行政用 標準타이프라이터를 개발키로 한것은 차트대신 사용할 油印物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형 타이프로 만들경우 글자크기가 작아 視力이 나쁜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잘못 이해되면 정책판단에 차질이 올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래 漢字를 사용할수있고 크기도 좀더 큰 「공타체」(孔打體)크기의 활자를 가진 타이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정부는 새로운 행정용 타이프라이터의 개발과함께 타이프라이터 기능과 複寫 기억장치를 함께 지닌 행정용 컴퓨터의 개발 사용도 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전시·要點위주… 형식 치우쳐

日經協案 23일께 通告

韓日實務회담 빠르면 내달上旬에

한국측、提示案 양보못해

日代案 납득못할경우 經協 또 難航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9월상순 사쿠라우찌外相이 한국을 방문, 韓日外相회담을 통해 1년간끌어오던 經協문제를 타결한다는 외교일정을재확인하고 오는23일 李範錫외무장관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에 대한 일본측안을 통고할 방침이다.

오구라(小倉)외무성 東北亞과장은 23~24일께 한국을방문, 外務、大藏、通産省과 경제기획청등 관계부처 국장들이 협의한 對韓經協案을 한국에 제시 의견을 타진할 계획이며 순조로우면 8월상순 서울에서 제3차 실무자회의를 열어 韓日經協案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9월外相회담에서 일괄타결할것으로보인다.

일본정부는 정부개발차관(ODA) 23억달러, 상품차관 17억달러등 40억달러의 한국측案에 대해 정부개발차관과 輸銀차관등의 구별없이 정부공공차관 40억달러(연평균이율6%)로하고 그중에서 10억달러를 상품차관으로 공여하는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바지에 접어든 韓日간의 經濟協力교섭은 오는23일께 외무부에 통보될 예정인 일본측의 最終代案 내용에따라 成敗가 판가름날것같다.

일본측의 代案이 납득할만한 내용일경우 외무부는 지난번 韓日外相회담의 합의에 따라 곧바로 실무접촉을 벌일계획이지만 그렇지못할경우 經協교섭은 결렬 또는 膠着, 장기화될공산이 큰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19일『일본측 통보내용이 李範錫장관의 새로운 構想(ODA23억달러, 輸銀융자의 상품차관17억달러)에 접근할경우 韓日生絲회담에 참석차東京에 가는崔東鎭외무부亞洲국장과 일본의 실무자들사이에 早期타결을위한 구체적인 접촉에 들어갈것』이라고 전망했다.

崔국장은 빠르면 이달26·27일 늦어도 8월초에는 東京에서 열리는 韓日生絲회담에 한국측수석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 외교소식통은 이어『韓日양국이 經協문제를 빠른시일안에 매듭짓기를 희망하고있기때문에 일본측 回答案이 긍정적일경우 8월중순 이전에 실무접촉을 끝내고 9월중에 사쿠라우찌(櫻內)외상의 訪韓으로 정식타결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李장관의 새로운 구상은 名分과實利面에서 크게 양보한것이라는 국내여론때문에 한국측이「ODA23억달러 상품차관17억달러」조건에서 더이상 후퇴하는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름 임시國會 열릴 展望없어

오는9월 정기국회 이전에 한차례 소집될것으로 예상되던 임시국회는 현단계에서 다룰 案件이 별로없고 그동안수시로 常委가열려 현안문제를다룬데다 그동안 국회운영을 맡아온 李鍾贊 民正黨원내총무까지 出國함으로써 열릴공산은 거의없는것같다.

바스라 血戰계속

"2개旅團 섬멸·8百여명 生捕"이란

"貯油시설공습·3千5百명사살"이라크

【니코시아·런던18日AP UPI=聯】이란軍과 이라크軍은 17일과 18일 이라크제2의도시 바스라근처에서 새로운 지상전을 벌이는 한편 상대방의 국경마을과 경제시설에 대해 공습을 가해 서로 막대한 피해를 본것으로 전해졌다.

이란軍과 이라크軍 코뮈니케는 바스라근처에 남북으로 이루어진 전선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돼 전투가 더욱 가열되고있음을 시사하고 자국군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국방소식통들은 이란-이라크戰이 양국군코뮈니케의 주장에도불구, 지난 14일 새벽(한국시간) 이란軍이 이라크領土를 침공한이래 어느 면 결정적인 형세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는것같다고 분석했다.

테헤란방송과 IRNA통신등으로 보도된 이란軍코뮈니케는 서부이란의 카스르·시린市근처에서 격렬한 포격전이 벌어져 이란軍이 대승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이란軍 코뮈니케는 지난14일「라마단(禁食月)作戰」이 개시된이래 지금까지 5일동안 이란軍이 이라크2개여단과 1개대대를 섬멸, 8백50명을 사살하고 8백명이상을 생포했으며 탱크1백16대를 노획했다고 밝혔다.

이란軍코뮈니케는 또 이란 전투기들이 이라크영내의 여러목표를 공격,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확실한 장소를 밝히지않은채 국경근처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이라크軍 코뮈니케는 이라크軍이 17일밤과 18일아침 이란軍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적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채 이를 격퇴했다』면서 이전투중 이라크軍은 이란軍 탱크26대를 파괴하고 20대를 노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軍 코뮈니케는 이라크軍무장헬리콥터가 바스라지역의 이란軍진지에『효과적인 공습』을 가해 많은 군사장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지난48시간의 바스라지역 전투에서 이란軍 3천4백79명이 사살됐다고 밝혔다.

코뮈니케는 이라크 전투기들이 하르그島에있는 이란의 원유시설에 직접 공격을가했다고 밝혔다.

이라크軍 領土밖敗走 격퇴주장

【런던19日AP=聯】이라크군은 바스라지역에서 격전을벌여 이란군을 격퇴, 모든 이란군을 이라크영토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한것으로 영국의 BBC방송이 19일 보도했다.

私債 신고하면 영업許容

金부총리 金利는 어음割引부터 自律化

金俊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제도금융으로 흡수되지 않는 私債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정부에 신고를하고 정해진세금을 내면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18일 大韓商議가 江陵에서 주최한 제7회 경영자 대학강좌에 참석,「한국경제의 좌표와 진로」라는 제목의 연설을통해「현재의 여건상 더이상의 사채규모확대나 금융시장내에서의 무분별한 기능을 방치할수없다」고 밝히고「물론 제도금융의 발전이 私金融을 흡수하는것이 正道」이겠으나「흡수되지 않는 사채」는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예금금리는 2%정도의 실질금리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밝히고「앞으로 물가의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金利의 자율화를 촉진」시키겠으며「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은행자율화와 더불어 당좌대월및 진성상업어음할인금리부터 자율화 할수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換率은「급속히 인상한다든가하는 종래의 운용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단기적으로는 국제통화의 변동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유동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물가차이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또「현재 과잉투자되고있는 중화학분야는 큰 부담이 되고있으나 국내외수요의 점진적 증가, 부품공업등 補完産業발전으로 3~4년후면 정상가동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고 말하고「그러나 경쟁력확보가 어려워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투자는 과감히 조정되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 내달 캐나다訪問때 太平洋頂上회담 擧論"

加外務省고위관리

【오타와18日=聯】캐나다의 외무성의 한고위관리는 17일 캐나다가 全斗煥대통령이 제시한 태평양정상회담 개최제의에 관심을 갖고있다고 시사하면서 내달로예정된 韓-加 정상회담에서 이문제가 논의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날 聯合通信과의 회견에서「우리는 항상 태평양공동체개념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全대통령의 제의는 매우 특별하고 관심을 끄는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의 이같은 발언은 全대통령이 지난5월 서울에서 가진 맬컴·프레이저濠洲수상과의 회담에서 제창한 太平洋정상회담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첫 공식논평이다.

이 관리는 이제안이 내달 全대통령과 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간의 회담때 논의될것이라고 말하고 만일 정상회담에서 이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면 양국고위관리들에 의해 다루어지게 될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北傀、拉北보도 송환문제 언급안해

【서울=聯】北傀는 지난 13일 낮12시5분께 慶北울릉도 동북방 1백70마일 公海上에서 漁撈중인 東草수협소속 제5馬山號(선장洪준원·36·1백14·48톤)와 선원35명을 北傀무장경비정에의해 강제拉北해간지 6일만인18일정오 북괴平壤방송을 통해『정체불명의 선박1척을 단속』, 이에대한 조사를 진행중에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제5馬山號의 拉北사실을 확인했다.

北傀의 이방송은 이 선박이 13일 12시40분께「東海경제수역(2백해리)」을 불법침입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함께 이같은 拉北사실을 밝혔는데 船員과 船體의 송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았다.

北傀 將星 12명肅清

美誌보도 金正日世襲 반대에

【뉴욕18日UPI=聯】北傀 金日成은「近12명」의 軍장성들이 그의아들 金正日의 권력세습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숙청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誌가 18일 보도했다.

뉴스·위크지는 北京에있는 소식통들을 인용, 金日成이 아들에의 권력세습을위한 길을 닦기위해 지난 4월과 5월에 이같은 군부숙청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共産圈의 최장기 집권자인 70세의 金日成은 金正日에게 자신의 권좌를 계승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北傀지도층의 일부 세력들은 이에 저항해오고있다.

뉴스·위크誌는『北韓군사지도자들은 金日成의 족벌주의적계획에 특히 당황하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으나 그들의 불만의 소리는 金日成의 비위를 건드릴만큼 너무나 컸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주간지는『근 12명의 장성들이 가택연금상태에 있거나 하위직으로 강등됐다』고 밝히고「고위층의 반란가능성에 대한 대비로 平壤의 외국공관주위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있다」고 전했다.

金正日의 권력세습계획에 거부하는 첫번째 뚜렷한징후는 지난4월 金日成의 70회생일축하행사에서 金正日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3개副主席직에 임명되지 못한것으로써 나타났다.

北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또다른 암시는 北傀가 정기적으로 北韓을 방문해온 일본의원들의 방문을 취소해버린데서 나타났다.

安全확인·조속送還 국제赤十字에 요청

金滲植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일 알렉산더·헤어 적십자국제위원회 총재에게 납북된 제5마산호 어부35명의 신변안전에 대한 확인과 조속한 송환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金총재는 이와함께 지난16일 孫成弼 北韓적십자회위원장에게 납북된 어부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사실을 헤어위원장에게 정식으로 통고했다.

◇塹壕속의 이란兵士 對이라크戰을 벌이고 있는 이란군이 남부전선의 한 참호속에 포진하고 있다。이 사진은 이란의 IRNA통신이 제공한 것이다。【아바즈18日AP電送=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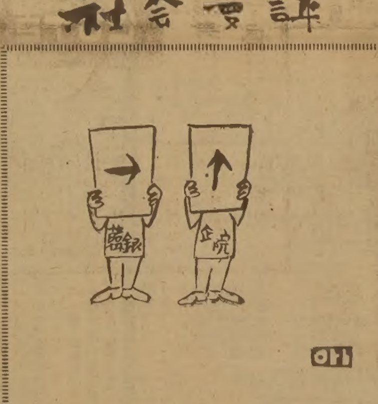
拉北어부 送還촉구 北傀만행 규탄大會

江原道民 궐기

【東草】납북어부의 송환촉구와 북괴만행을 규탄하는 「강원도민 궐기대회」가 19일상오10시 東草시공설운동장에서 동해안 6개시군 어민대표, 각종사회단체및 납북어부가족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북괴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분노의 함성이 북녘하늘로 메아리쳤다.

이날 대회에서 강원도민들은 전국 80만어민을 대표하여『우리는 제5마산호와 어부35명이 송환될때까지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데 앞장설것』을 다짐하는 5개항의 결의문과「북괴의 金日成에게 보내는 경고문」도 채택했다.

社會漫評



엇갈리는「景氣指標」

地平線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부두의 새악시 아롱져진 옷자락/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설움』—「목포의 눈물」을 생각하고, 이난영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난영의 간드러진 노래가 전국을 휩쓸던 30년대만해도 목포는 곡창호남에서 쏟아져나오는쌀의 수출항으로 투기꾼과 졸부들이 들끓는 노다지판이었다。▼「목포의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목포의 유달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된다。그 유달산밑에 1만여평의 터를잡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조각공원」이 생긴다고한다(日刊스포츠 19일자 12면보도)。이지역은 원래 무허가건물이 몰려있는 슬럼이었으나 수년걸려 헐어내고, 유달산 순환도로가 뚫렸었다。이곳에 1백여점의 조각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이다。▼오는 10월초에 문을 열 조각공원은 잔디광장과 숲·길·공원경계 담장등을 포함한 종합공원으로 설계돼있다한다。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각공원은 사실상 조각전시장이다。10년계약으로 입장료수입의 절반을 조각가들에게 주고, 작품이 팔리는 경우 70%를 조각가들에게 돌린다는 것이다。이공원은 목포시가 마련, 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한다。▼조각공원이라면 아무래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있는 조각공원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다。일본만해도 전국에 여섯군데나 된다고 한다。箱根시의 조각공원은 3만여평이나 되고, 東京에도 두군데나 된다고한다。70년대에 길을 뚫어 아스팔트를 깔고, 시멘트로 큰 건물을 짓는데 바빴던 우리가 눈뜨지 못했던「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조각공원이다。▼20세기 도시를 만든 인간들은 두개의 꿈을 갖고있었다고 미국의 로버트·피시먼교수는 말하고있다。하나는 에벤저·하워드가 주장한「전원도시」의 꿈이다。그린벨트가 둘러쳐진 인구3만쯤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오순도순 살수있는 유토피어다。이에대해 코르뷰제는 우아하고 수학적으로 균형잡힌 거대한 유리빌딩들이 우뚝솟아있는「미래의 도시」를 구상했다。▼뉴욕대학교의 어빙·크리스톨교수는 이두가지 이상이 모두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하고있다。인간이 사는 현실은 그만큼 복잡하기때문이다。우리도 조각공원에 눈뜨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자체와 시건물자체에 눈떠야할 것이다。조각공원이라는 특별한 공간도 좋지만, 도시자체가 하나의 조각이자 인간이 숨쉴수 있는 자연스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8.15경축 제2회 전 캐나다 교민 체육대회

우리 모두 참여하여 교민단결 과시하자 !

명예대회장 : 이규현
대 회 장 : 이병권
부 대 회장 : 원장호 · 박인순
고 문 : 강공선 · 강찬영 · 강신봉 · 구상회 · 김명규 · 김현모 · 김문고 · 김태진 · 김문량 · 김종욱 · 김순창 · 김병진 · 문인식 · 박병원 · 박영철 · 성용창 · 안병환 · 안수용 · 이상훈 · 이창복 · 이한영 · 이대환 · 이준식 · 이교상 · 원영신 · 원영수 · 유영린 · 윤여화 · 윤택순 · 장순채 · 장영대 · 전경수 · 정길수 · 정철기 · 차선겸 · 최동주 · 최동영 · 최성택 · 최승나 · 함의현 · 황대연
본부임원장 : 심재환(88올림픽준비위원장)
본부부임원장 : 강준남 · 배용문 · 이기훈
본 부 임원 : 고광남 · 고성호 · 김만구 · 김용기 · 김용섭 · 김종호 · 박경태 · 박주삼 · 박종철 · 박종수 · 배경락 · 석종윤 · 송종남 · 신우원 · 심태섭 · 서정길 · 손명수 · 이경태 · 이종원 · 이인용 · 이영구 · 이호석 · 이상철 · 이영만 · 이영빈 · 원종필 · 원종성 · 이인식 · 이건영 · 이영현 · 장추신 · 정용필 · 정영모 · 조기연 · 차자윤 · 천용기 · 최이락 · 하영화 · 표봉길

대회총감독 : 황재필
대회총경기 : 박원모 · 서인현
대회총기록 : 서만수
대회총심판위원장 : 정세용
대회총 시설 : 장기철 · 이장성
섭 외 : 변의섭
대회총진행위원장 : 유용근
대회총진행 : 김상옥 · 김명환
대회총홍보 : 김종환
대회총총무 : 조충원
MC : 김청훈 · 김홍량 · 이광민
〈이상 가나다순〉

※ 주장회의를 8월7일(금) 오후3시 체육회사무실에서 갖겠읍니다.
※ 일반 단체 축구 결승전은 OB팀으로 구성하며, 년령은 30세이상임. 5 개 단체 신청이 있을시에 예선전을 8월7일 하겠음.

주최 : 재캐나다 대한 체육회
일시 : 82년8월14일(토) 8 : 30 AM
장소 : CENTENNIAL PARK MAIN STADIUM

끝없는 戰爭…中東에치솟은 세 불기둥

석유의 寶庫 사우디를 한가운데 두고 오늘날中東에는 3곳에서 동시에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있다. 美해병대 파병결정까지 불고온 레바논전쟁, 페르시아灣일대에 과격한 이슬람혁명의 熱氣를 밀어붙이려는 이란·이라크전쟁 말고도 紅海 바로 건너편 아프리카동북단 소말리아에서 또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 세전쟁이 지닌 공통점은 싸움을 결정적으로 뜯어말릴수 있는 배후세력이 없다는점이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않는 답답한 中東의 현실을 조감해본다.

美、이란·蘇 접근우려 "中立"

답답한 石油寶庫…뜯어말리는 사람도 없고…

레바논平和仲裁 지지부진

이란·이라크戰

美정부는 해병대를 레바논에 상륙시키겠다고 다짐한바 있으나 戰禍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레바논을일으키려는 필립·하비브 美중동특사의 지원노력은 성공적인결실을 보지못하고 있다.

또한 페르시아灣 국가들은 이란·이라크戰이 아랍王國들의 西方석유원천들로 번지는 것을 예방키 위해 집단안보체제를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측제의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미국은 레바논 해안바다에 해군과 1천8백명의해병전력을 대기시켜놓았으나 아직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인도양함대에 소속돼있는 35척규모의 소규모함대를 페르시아灣밖에 머물게 하고있다.

미국은 다만 사태가 진전되어 가는것을 지켜볼뿐 속수무책인것같다.

이란·이라크戰에서 미국은 여러 원칙상의 이유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정치적 지렛대도 갖고있지못하다.

미국은 이란·이라크戰에서 공식적으로는 中立的자세를 견지하고있지만 이라크측이 이전쟁의 승자가 되기를 바라고있음이 분명하다.

이라크의 승리는 호메이니식의 회교혁명이 전파되는것을 걱정해온 아랍과 서방국들의 불안을 해소시킬뿐만 아니라 아랍圈의 분열을 치유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라크로 기울어진 미국의편견은 미국관리들의 私談에서 잘나타나고 있다.

이 관리들은 이란·이라크전의 전전상황에 관한 비밀정보들을 기꺼이 누설하려드는 경향을 보이는것도 이라크로 기울어진 미국의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의 자세는 포클랜드전쟁때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포클랜드戰때에는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는것이 이쑤시개로 단단한조개를 열려고 덤벼드는것이나 다름없을정도로 무모했다.

미국은 명예를 걸고라도 영국측전술이 자국관리들에의해 사전에 공개되는것을 예방해야한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미국관리들은 이란군의 전투계획에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추호도 느끼지 않고있다. 한 중동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페르시아灣국가들로부터 이라크편을 들라는 집요한 압력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이란의 對蘇접근을 우려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라크를 지원하고 나서지는않을 것이라고관측했다.

이라크는 종전과는 달리 지리가 익숙한 자국내에서 싸우게된 관계로 전보다나은 기동성을 갖추게된데비해 이란軍은 수도 테헤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선에서 병참·통신상의 불리를 안고 싸워야한다.

레바논의경우 PLO철수협상의 지연에 초조해하는 이스라엘이 더이상의 인내를 포기하고 西베이루트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공격을 개시, 미국을 깜짝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워싱턴=UPI】

이·PLO戰爭

레바논 평화협상이 西베이루트에 갇혀있는 PLO게릴라들의 행선지를 놓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정부 관리들은 18일 협상이 아무런 진전도 보지못했으며 협상타결을 위해 앞으로 30일을 더 기다려 달라는 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의 요구는비현실적인것이라고말했다.

이 관리들은 이날 메나헴·베긴수상 주재하에 열린 閣議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해준 브리핑에서 협상이 지연됨에따라 이스라엘이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PLO게릴라들은 세계의 동정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관리는 『30일은 너무 길며 우리가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릴것으로 기대하는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정부는 협상의 시한이나 일정을 설정하고 있지는않다고밝혔다.

한편 하비브특사는 이에앞서 17일 레바논정부지도자들과 회담을갖고 PLO측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에 관해 토의했다.

이날토의된새PLO측제안은 PLO게릴라들이 베이루트에서 철수한후 가게될 최종國外행선지가 결정될때까지 게릴라들이 일단 레바논內의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것을 허용해달라는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PLO측의 이같은 새제안이 제시된것과 때를같이하여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은 PLO게릴라들의 평화적인 철수를위해 하비브특사와 직접협상을 갖자고 촉구했다.

아라파트의장은 이날 西베이루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휘하 게릴라들을데리고 베이루트를 떠날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게릴라들의 철수방법·시기및 행선지에 관해 중재자를 배제한가운데 하비브특사와직접협상을 갖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방송은 18일 自國정부가 현재 진행되고있는레바논평화협상에 사실상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않은 것으로 보고있으며 하비브특사가 레바논을 떠나는것만이 팔레스타인게릴라들로하여금 사태의중대성을 인식하게끔 해줄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있다고 보도했다. 【베이루트·예루살렘=AP·AFP】

◇3살짜리 피난민

3살짜리 피난민—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된 레바논 근교의 도시 시돈…겨우 3살밖에 안된 어린 팔레스타인 피난민 네사림·핫산양이 물컵을 움켜쥐고 앞서간 엄마를 울면서 따라가고 있다. 【시돈=AP】

소말리아 銃聲

이디오피아와 國境분쟁再燃

또하나의 美·蘇대결場 될듯

이달초부터 간간이 들려오기시작한 소말리아의 총성은 13일 시아드·바레 소말리아 대통령이 아프리카단결기구(OAU)에 대해 이디오피아군의 소말리아침공을 저지시켜줄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전쟁이 이디오피아동부 오가덴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두나라사이의 해묵은 국경분쟁의 재연임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이디오피아는 소말리아 정부가 자국내 반정부게릴라단체인소말리아민주해방전선(SSDF)의 무장봉기를 이디오피아군의 침공에따른 분규로 위장시킴으로써 세계여론을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시치미를 뗐다.

소말리아의 內戰이든 이디오피아와의영유권분쟁이든지간에 전쟁발발 지역이 소말리아 中西部 오가덴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점이주목된다.

지난 77~78년사이에 두나라는 오가덴에서 접전을 벌였었다. 당시 두나라는 모두 親蘇정권이었다. 그러나 이 전쟁의막바지에서 소련이이디오피아의편을들었기때문에소말리아인종이 밀집해서 살고있는 오가덴을 자국영토로 삼으려던소말리아정부의 꿈은 좌절됐다.

이에대한 분풀이로 소말리아는 77년11월 자국내에 주둔해온 수천명의 소련군사고문단을 추방했고 외교관계도 끊었다. 소말리아는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여 지난 80년8월 카터행정부때 미국과 군사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소말리아북부 紅海입구의 전략요충인 베르베라항구및 공군기지사용허가를 얻어냈다. 전에 소련의 전략기지였던 베르베라를 차지하는댓가로 미국은 4천5백만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약속은 아직껏 지켜지지 않고있다. 지난 3월 바레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미국은 「두고 본다」는 입장.

미국으로서는 80년 이전까지만도 소련의친구로 간주돼온 바레대통령을 선뜻 신뢰할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섣불리 무기를대주었다가소말리아남쪽의親美케냐정권에 총부리를 겨눈다든지 이디오피아와 전면전을 벌이게될경우 미국으로서 得이될것이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4년 現멩기스투 대통령이 쿠데타로 셀라시에황제를 몰아내고 좌경정권을 세우기전까지만도 이디오피아는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다. 미국은 인구 4백만의 소말리아가 인구3천만에 25만명이라는 아프리카최강의 군대를 유지하고있는 이디오피아와 전쟁으로 승부를 겨루기보다는 이디오피아가 언젠가 소련에 몸을 돌릴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련등 동구권과 리비아, 쿠바의 지원까지 받고있는 이디오피아가 소말리아의 바레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소말리아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또하나의 美·蘇대결장으로 화할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바레 대통령은 이디오피아의 소말리아침공이 미국세력의 팽창을 막고 東北아프리카 입구에 전략적발판을 구축하기위한 소련의 음모라면서 미국의 무력지원을 호소하고있다.

소말리아전쟁의 다른 하나의 變數는 이디오피아의 에리트리아분리주의자들의 게릴라활동이다. 【林鍾乾기자】

볼리비아政情 위기

現대통령 辭意표명

【라파스18日外信=聯】軍部의 권력투쟁때문에 정치불안에 깊숙이 휘말린 볼리비아는 셀소·토렐리오 대통령의 辭意표명으로 사실상 국가최고통치자가 없는 혼란상태에 18일 빠져있다.

볼리비아軍 최고사령부는 17일 성명을 발표, 파우스티노·리코·토로 대령의 대통령직 인수요구를 거부했으나 셀소·토렐리오 現 대통령이 구두로 사임을 표했다는 보도들을 확인했다.

군최고사령부는 18일 회의를갖고 토렐리오대통령의 사임수락여부와 사의가 수락될경우 후계자선정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파스의 일간 프레센시아지는 이날 토렐리오대통령이 지난14일 군지도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 全내각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메아리

鏡峰 큰스님

경남 양산군에 자리잡은 국내 3보사찰의 하나인 通度寺에서 17일하오 鏡峰큰스님이 입적했다. 우리나라 禪宗의 산줄기라고할 普照, 太古, 西山, 曉惺, 鏡虛의 맥을잇는 크나큰 봉우리라 할수있는 스님은 경남밀양태생으로 16세때 통도사로 입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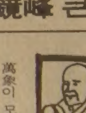
스님이된 다음에는 금강산 석왕사에서 정진했고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었다. 열반때까지 통도사 호국선원 조실로있으면서 경봉스님은 늘『마음이 부처님이니 마음을 잘 닦는것이 곧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란』고 일러왔다.

깊은 선리를 담은 그의 시와 글씨와 그림은 스님들 가운데서 따를분이 드물었다. 신도들은 그를두고 산부처님이라 추앙하며 전국에서 친근하기위한 발길이끊이지 않았으나 스님은 언제나 세속적인 명리에 초연하여 미소로 지냈다.

스님의 법어집인 「속·법해」에 따르면 어느해 어린 시자를 데리고 마을을 지나는데 어린이들이 떼를 지어 논는것과 마주치자 스님은 느닷없이 그어린이 무리에 어울려 줄다리기를 시작했었다.

키가 큰 노스님과 마을 개구장이들이 서로 줄을 당기며 한참 웃음꽃이 피는데 지나가던 장꾼들이 하도 기이한 풍경에 둘러서서 구경판이 벌어졌었다. 이윽고 시자가 민망하여 스님에게 『빨리 가시자』 하니 경봉은 『그대가 어찌 이 재미를 알겠느냐』며 허허대고 웃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도의 깨우침이란 경봉스님의 이 만년과 같이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감을 이름인지, 그 깊음을 속인의 소견으로는 감히 넘겨볼수가 없다.



그런데 경봉스님은 이책의 서문에서『비가 와도 물은 피어 있지 않고 구름이 일어도 자취를 찾을수없고 바람이 불고 새가 노래하더라도 그자취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萬象이 모두 이러한데 무엇을 두려고 할것이 있겠는가. 두려고 하여도 둘것이없고 감추려 해도 감출곳이 없다. 萬物이 다 이러하니 두려고 한다는것도 망상이요, 영원히 전하려 하는것도 망상이다. 산은 높고 물은 흘러가고 새는 지저귀고…』 하면서 이러한 속에서 다만 웃고 또 웃을뿐이라 했다.

이제 그 큰스님은 마치 한점의 구름이 일듯 이승으로 와서 한점 구름이 사라지듯 열반에 들었으니 법랍은 74세요, 세수는 90세였다.

美、核기술 輸出

레이건 承認 아르헨·스위스에

【워싱턴19日AP=聯】레이건 대통령의 미행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핵확산금지정책을 완화, 아르헨티나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핵기술수출을 인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19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제임즈·에드워즈에너지장관이 지난해 관계부처간의 검토를 거쳐 비밀리에 핵기술수출을 인가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모든 핵개발계획을 국제적인 안전관리하에 두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드워즈 에너지장관은 핵폭탄에 사용될 핵물질생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중수핵발전소의 컴퓨터통제장치를 스위스의 한 회사에 팔겠다는 매사추세츠州의 폭스보로회사의 수출인가신청을 승인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지난78년 제정된 핵확산금지법에 따르면 미국은 핵개발사찰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 두지않는 나라와는 협력할수 없게 돼 있으나 미국은 컴퓨터통제장치를 아르헨티나의 핵발전소건설 계약을 일괄수주한 스위스의 한 회사에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의 핵개발에 협력하는셈이 된다고 이신문은 분석했다.

英 스파이스캔들 擴大

議會、대처에 眞相요구

【런던18日AP=聯】英國언론은 17일 런던 西北方 1백44km지점에 위치한 첼트넘소재 「정부통신본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제프리·프라임이라는 인물이 체포된것을 기화로 새로운 중요 스파이스캔들이 터질지도 모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의회의원들은 마거리트·대처수상에게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기밀보호에관한 긴급토의를 갖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신문·라디오·TV방송은 이날 정부각료들및 의원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토대로한 보도를 통해 「정부의 극비정보취급시설인 「정부통신본부」에 주요한 안보상의 허점이 노출되어왔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정부각료들이 이번사건이 영국의 전직고위비밀요원으로 모스크바로 도피한후 소련첩자임이 밝혀졌던 『킴·필비사건』이래 최대의 스캔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0萬武裝가능 軍事장비적발

이軍、레바논서

【런던18日UPI=聯】10만병력을 충분히 무장시킬수 있는 군사장비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적발되어 소련이 中東에 군사개입할경우 이 비축무기를 사용하려했다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고 18일 엎저버誌가 보도했다.

엎저버는 안드레이·그로미코외상을 비롯한 소련관리들이 3년전 야세르·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에게 필요할경우 PLO를 지원키위해 쿠바軍을 파병할것임을 약속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폭로했다.

엎저버는 런던을 방문한 기예온·패트이스라엘商工觀光相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패트장관은 이스라엘軍이 레바논침공을통해 노획했다는 문서의 번역사본을 제시했다고 엎저버는 전했다.

이신문은 패트장관이 노획문서에 의거, PLO에 대한 쿠바軍지원안은 79년11월 13일 한蘇聯사절단에 의해 제시된것이며 이스라엘이 지난달 레바논을 침공할 당시 레바논영내에는 1만4천7백명의 PLO병력이 있었다고 밝힌것으로 전했다.

패트장관은 시리아영내의 소련제탱크 1천2백대와 리비아내의 1천2백대와 함께 PLO의 이같은무기는 소련이 일단 유사시 地中海에서 해상출동하는 헬리콥터로 병력을 투입, 中東사태에 직접 군사개입할때를 대비하여 비상저장해 두었던것으로 시사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外信안테나

후세인 暗殺모면

사담·후세인이라크 대통령은 이란軍이 지난13일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에 그를 암살하려는 정체불명의 괴한들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나 무사했다고 美시사잡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후세인 대통령 암살기도가 언제 어디서 감행되었는지 밝히지않은채 괴한들이 자동소총으로 후세인 대통령과 그의 경호원들에 총격을 가했으나 대통령은무사, 이 괴한들을 사살했다고 전했다.

잡지는 또 경호원들과 괴한들간의 총격전으로 수명의 경호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지배적 회교宗派인 시아派소속 회교도들이 이 암살미수사건을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레바논에 유엔軍을

非同盟會議 촉구

【뉴욕=AP】97개국으로 구성된 비동맹운동의 긴급각료회의는 17일저녁 니코시아에서 사흘간의 토의를 끝내면서 침공 이스라엘군의 무조건 레바논철수를 미국에 촉구하는 동시에 유엔관리하의 유엔和유지군을 즉각 창설, 레바논에배치할것을 유엔安保理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각료회의는 야세르·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니코시아=共同】

올 全세계軍備지출

6천5백억弗상회

82년도 전세계의 군사비지출규모는 50개最貧國群의 15억주민의 총소득보다 많은 6천5백억달러를 상회할것으로 추산됐다고 사설단체인 安保軍縮委員會가 밝혔다.

올로프·팔메 전 스웨덴수상을 위원장으로하는 이 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한 보서에서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군비지출로 인한 경제적결과는 파멸적이라고 지적했다. 【뉴델리=PTI】

트뤼도人氣 떨어져

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의 인기가 집권 14년중 최하수준으로 떨어졌음이 한여론조사결과 17일 밝혀졌다.

지난 6월 캐나다인 1천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갤럽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트뤼도수상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28%, 반대율은 61%로 나타났다. 【토론토=UPI】

토론토시

쓰레기 수거일 변경

◆심코데이(씨빅 홀리데이)
◆1982년 8월 2일(월)

1982년 8월 2일(월)에는 쓰레기 수거가 없읍니다. 정기 월요일(8월 2일)대신 화요일(8월 4일)에 수거됩니다.

8월 4일(수요일)에는 신문지나 부피있는 물건들은 수거치 않습니다.

8월11일(수요일)에 신문지나 부피있는 물건이 수거됩니다.

★주의사항:

토론토에는 18군데의 병과 쇠붙이를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읍니다. 5월동안 214톤의 신문지와 47톤의 유리조각 그리고 5톤의 깡통이 수집됐었읍니다. 더이상의 안내는 전화 367-7742로 전화 하십시오.

R.M. Bremner, P. Eng. F.I.C. E.
Commissioner of Public Works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것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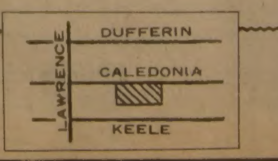
July 19 - July 31, 1982

		SPECIAL
Lola 250ml.	24x33¢	$ 4.45
Life Saver Lollipops	120x10	7.75
Hershey Reg. Chocolate Bar (Reeses Pieces, Peanut Butter Cup, Crunch Peanut Butter Cup, Hershey milk, Hershey Almond, Hershey Special Crisp)	36x40	7.99
Kisko Kids	100x.5	3.05
Sun Pac Juice (Fruit Punch, Orange, Grape, Pineapple, Tomato Plus)		7.99
Sun Pac Nectar (Rich Pear, Apricot)		8.35
Sun Pac Grapefruit		8.25
Pocket Kleenex	12x12's	16.89
Tiffany Peg Top Candy	12x1.29	9.29

약간명의 세일즈맨을 모집합니다.

7월10일~8월14일 : 이 기간동안은 토요일에 문닫음.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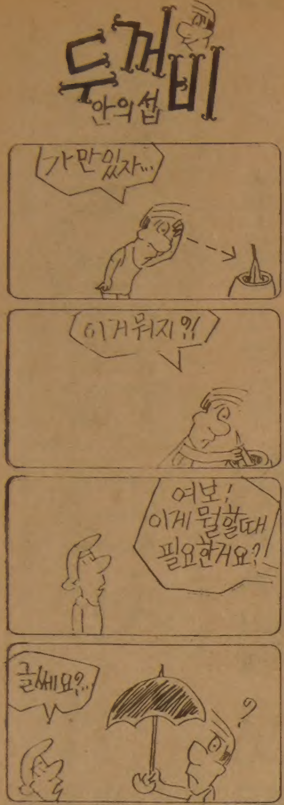
658½ BLOOR ST. W.
☎ : 537-0432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무더위連休… 피서人波 2百여만

海雲臺·雪嶽山에 몰려 승객 徹夜수송도

본격적인 무더위와함께 황금연휴였던 지난17·18일 이틀동안 부산海雲臺등 해수욕장에 1백여만명, 雪嶽山등 피서지에 60여만명, 서울근교 유원지에 60여만명등 전국에서 올들어 최고인파인 2백20만여명이 몰려 더위를식혔다.

특히 20여만명의 인파가몰린 雪嶽山일대에는 관광버스 4백38대와 자가용 승용차 7백95대가 한꺼번에 몰려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가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16일밤부터 17일 새벽5시사이 서울-東草간을 운행하는 고속및 직행버스 56대가 예약승객 1천7백여명을 밤새워 수송하는 야간수송작전까지벌였다. 淸州에도 올들어 최고로많은 1만여명이 몰려 도내 7백여대의 택시와 50여대의전세버스가 총동원되기도했다. 한편 연휴동안 전국에서 모두 22명이 익사했다.

「弱勢장마」北進…종종 소나기

중앙기상대는 19일 주간예보를 통해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해상에 자리잡고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주일동안 전국적으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릴것같다고 예보했다.

중앙기상대는 장마전선은 세력이 약화된채 북진을하면서 발해만부근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합쳐지면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어 20일에는 호남·제주지방에 한때 비가오고 그밖의 지역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으며 21~24일까지는 비가 올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주 예상강우량은 서울·경기·충청지방이 37~85㎜, 전남·북지방이 29~39㎜, 경남·북지방이 31~42㎜안팎.

아내殺害 암매장

【釜山】부산남부경찰서는 19일 다른여자와 교제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金萬福씨의 자백에따라 경남 密陽郡 山內面南明里 속칭 얼음골뒷산에서 암매장된 金씨의처 徐원자씨(23)의 시체를 찾아냈다.

金씨는 지난15일 동거여인과의 생활비를 마련키위해 은행앞에서 3백여만원을 날치기해 달아나다 붙들려 절도혐의로 구속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봄날인 지난5월25일 『蔚山에 계시는할머니의 신경통약을 함께 사러가자』며 부인 徐여인을 경남密陽郡山內面南明里 얼음골 뒷산까지유인, 산중턱에서 갑자기 아내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뒤 40m떨어진 숲속으로 안고가 다시 徐여인의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 소나무밑에 암장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金씨는 지난해 12월 결혼한 아내와 성격이 맞지않아 부부싸움이 잦았고 지난2월 사귄 朴모양(22·K수산경리사원)과 교제하는데 방해가되자 평소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말했다.【鄕】

한국일보 533-2361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황금 연휴를 맞아 부산海雲臺해수욕장에는 올들어 최고기록인 40여만명의 인파가 몰려 무더위를 식혔다.【釜山=鄕】

중국집불 3명燒死

【釜山】19일 상오 6시35분께 釜山鎭區釜田1洞166의2 영빈관 중국집(주인 조정래·45)에서 불이나 2층에서 잠자던 종업원 김려여인(54) 김종덕군(19)과 이모군(19세가량)등 3명이 질식해 죽고 종업원 김영주군(20)이 중화상을 입었다. 불은 3평규모의 목조1층 홀과 2층방 4개등 9평을 모두 태우고 1시간만에 꺼졌다.

불을 처음 목격한 김군에 따르면 18일 밤 10시30분께 영업을 마치고 2층방 한곳에선 유여인이 잠자고 다른방에 죽은 김군등 남자 3명이 자고 있었는데 연기가나 일어나 보니 1층 주방쪽에서 불이 치솟기 시작해 「불이야!」고함치며 뛰어나왔다는 설명.【釜】

청소년 脫線고비는 16~17세

"좋은친구갖도록 關心을"

嚴格보다 放任이 犯法 많아

뒤진英·數 방학活用 바람직

서울少年감별수 4,077명 대상조사

10대청소년들의 탈선고비는 16~17세가 제일민감하며 평소 부모들이 좋은 친구를 사귈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유도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또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학교를 혐오하기때문」인데 이들의 대부분이 英語와 數學과목의 기초가 잘돼있지않은것으로 밝혀져 부모는 물론 중학교사들도 참고해야 할듯하다. 이같은 사실은 많은청소년들이 여름 바캉스에서 친구를 사귈기회가 많은반면 모자라는 기초실력도 방학을 이용, 늘릴수있는 기회여서 새삼 관심을 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서울소년감별소(소장 金喜泰)가 지난81년 한해동안 감별소를 거쳐간 비행청소년 4천77명을 상대로 각종 개별검사와 면접을 통해 밝혀낸것.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감별소년 4천77명중 16~17세가 1천8백76명으로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고, 18~19세가 29%로 전체의 75%가 16~19세사이의청소년이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14~15세가27·3%, 16~17세가 45·9%로 비행연령이 남자보다 2살가량 빠른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유형은 절도등은 늘어났으나 폭력등은 약간 줄었으며 대신 강력범의 경우 지난해보다 1% 가량 늘어났는데 강도상해의 경우 지난해 2·3%에서 2·9%로 늘어났고 강간등도 4·3%에서 5·6%로 늘어났다.

비행동기를 보면 남녀똑같이 교우불량이 35%로 가장 많고 유흥, 우발, 유혹, 사행심등의 순서였는데 이가운데 각성제로 인한 범죄도 1·5%나 됐다.

또 비행 청소년 가운데는 재범률이 14·4%나 돼 4천77명중 5백86명이 소년원에 갔던 경험이 있거나 감별소, 교도소등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별 분석에의하면 가족이 많은 가정출신의 비행청소년이 많아 6인이상가족출신이 46·3%, 4~5인이 39·5%로 86%가량이 4인이상 가족출신이어서 탈선의 원인이 가족수가 많아 가정에서의 갈등과 관심이적은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비행소년가운데 42·2%가 결손가정출신인데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가 어머니가 없는 경우보다 비행빈도가 2배이상이나 됐다.

가정별로는결손가정이 22·9%, 극빈이 23·6%, 소외가 4·5%, 부모말등이 3·5%로 가정이 어렵거나 본인이 소외된경우 비행소년이될 소지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 훈육태도를 조사한결과는 전체의 54·3%가 「방임」상태에서 비행을 저질렀고 「엄격」한 경우는 3·1%로 부모들의 과잉보호보다는 방임에서 훨씬 높은 비행률을 보여 과잉이더라도 부모들의 관심이 비행을 막는데절실한것으로드러났다.

비행소년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전체1천3백37명중 62·2%가 「공부가 싫어서」라고 대답했고 가정이 어려워서라고 대답한 청소년도 25·4%나 됐으며 교사에대한 혐오감도 3·4%였다.

교사에대한 혐오이유는 英·數 과목이 어려워 58·6%, 때린다가 6·9%, 숙제가 많다가 2·7%였다.

비행소년가운데는 한달용돈을 1만원이상쓰는 경우가 62·2%였고 1만원미만이 37·8%로나타나 용돈을많이 쓰는 청소년의 비행률이 높은것으로 드러났다.

비행청소년 가운데 성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남자의 경우 25·2%가 성경험이 있었고 여자의 경우도 35·9%나 돼 성경험과 비행과의 상관관계도 높은것으로 드러났다.【朴珍烈기자】

◇청소년들은 16~17세 사이에 가장많이 탈선한다. 이를막기 위해서는 부모들은좋은 친구를 사귈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유도해야 한다.

프로拳法協 선수僞裝 8명渡日하려다 들통

치안본부는 19일 대한프로권법협회사무국장 李喜烈씨(38·서울銅雀區黑石洞17의129)등 3명을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元宇프로덕션 安建洙씨(40) 등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李씨는연예인 해외공연등을 알선하고있는元宇프로덕션영업부차장金英培씨(33·구속)와짜고 지난1월부터 모집책인 魯佳子씨(47·여·불구속·江西區新月洞52 우정연립101)등을통해8명의 여자를모집, 1인당 10~2백만원씩받고 대한프로권법협회 이사 심판선수등으로 위장, 일본에 출국시키려했다는것.

이들은 일본東京에있는 전일본프로권법협회에 부탁, 한일프로권법시합과 아세아여원연수에 참가하는것처럼 초청장을 보내도록해 이를이용해 문화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鑛山붕괴 2명숨져

【春川】18일 하루동안 강원도내에서는 2건의 광산사고가 발생, 광부2명이 숨졌다.

이날 하오3시30분께 寧越郡北面磨磋里 영월광업소 갱구로부터 4백50m지점 갱도에서 갱내 보수작업을하던 광부 이상도씨(41·磨磋2里)가 천장에서 무너져내린 탄더미에 묻혀 질식 사했다.

또 이날 하오6시께 三陟郡道溪邑上德里 상덕광업소에서 갱내 지주설치 작업을하던 광부 김원섭씨(25·上德里24반)가 탄더미가 무너져내린는바람에 깔려 숨졌다.【鄕】

淸州師大「雲湖학원」변태經理드러나 문교부, 관련자 懲戒

문교부는 19일 淸州사대등의 재단법인인 雲湖학원이변태경리등 부실한운영으로 8억8천만원의 부채를 지고있음을 밝혀내고 관련자 6명을 징계조치한다는 한편 부채를 조속히 변제토록 재단측에 계고했다.

문교부는 雲湖학원(이사장 康文用)및 淸州사대등 7개학교에 대한 감사를실시, 비위와관련된 淸州사대 사무처장 우돈영씨를 파면토록하고 사대부고교장 朴熙석씨, 雲湖고교장 李진함씨등 5명을 견책하도록 재단에 통고했다.

폐품 수집장서 녹슨爆彈 발견

18일상오10시50분께 서울東大門區 新設洞111의30 高大煥씨(69)집 폐품수집 마당에서 화단을만들기 위해 땅을파던 高씨가 지하1m에서 녹슨포탄 1백여개를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군폭발물 제거반의 협조로 모두파헤쳐 미제1백5㎜·3·5인치, 90㎜, 75㎜등 각종포탄 1백47개를 파냈는데 6·25때 묻힌것으로 보이는 이들포탄은 일부는뇌관이 제거된데다 심하게부식돼 폭발위험은 없었다.

"文富軾 만났으나 放火이야기 안해" 美문화원사건 公判…金鉉獎진술

【釜山】부산 미문화원 방화및 불온유인물 살포사건 6회공판이 19일 상·하오에걸쳐 부산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 심리로 崔基植신부등 피고인 16명전원이 출정한가운데 열렸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계속된 이날 공판에서 金鉉獎피고인은 고교재학때 연탄소매상을, 조선대병설 전문학교 재학때는 숭의학사와 공사장인부를, 대학때는 호남광업소 광부등으로 일했으며 지난 73년도에 강도·상해죄로 불려 5년간 집행유예판결을 받은바있다고 자기의 어린시절을 설명하면서 『81년 12월28일과 지난 3월17일등 2회에걸쳐 부산에서 文富軾을 만난것은 사실이나 부산미문화원 방화및 불온전단에 대한 이야기는 한바없다』고 진술했다.

이에앞서 金英愛피고인(25·原州치악산서점경영)은 金피고인이 光州사태 관련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81년7월부터 82년1월13일 사이에 6회에 걸쳐 30만원을 준것은 도피자금이아니라 용돈으로 주었다』고말했다.

이날 공판정에는 천주교원州교구 池學淳주교를 비롯, 서울한강성당 咸世雄신부등 성직자와 피고인가족등 1백여명이 방청했다.

다음공판은 26일 열릴예정이다.【鄕】

關東대지진 학살韓人 위령제거행 市民운동 日서 준비위結成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關東대지진때 무고하게 학살된 한국인의 유해를 발굴하고 위령제를 지내자는 시민운동이 일본에서 일고있다.

이 立教大교수 야마다(山田昭次)씨와 東京區立 이요국민학교 교사인 기누다(絹田幸恵)씨 등80명은 8일 江東區 복지회관에서 관동대지진때 희생된 한국인의 유골발굴준비회를 결성하고 韓日관계의 진정한 역사를 찾아내가고 다짐했다.

1921년9월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한국인이 우물에 독약을넣고 불을 지른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군·경·民이한국인을 붙는대로 이유없이 총검과 죽창으로 찌르고 쏘아 6천여명을 학살했다. 東京동쪽의 아라카와區 스미다가와 방과제에도 수백명의 한국인이 끌려와 죄없이 학살됐다.

이요국민학교 교사인 기누다씨는 5년전 국민학교 4학년 역사를 가르치기위해그 지역의 향토사를 공부하던중 관동대지진때 한국인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무고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한인의 유골발굴과 위령제를 거행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기누다씨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죄과를 뉘우침으로써 시작될수있다는 생각에서 이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鏡峰대선사 入寂

한국禪宗의 최고봉 圓光鏡峰大禪師〈사진〉가 17일하오4시25분 慶南梁山 通度寺 극락호국선원에서 入寂했다. 世壽90세.

鏡峰 大禪師는 慶南密陽에서 출생, 1908년 通度寺에 입산했으며 性慧스님을은사로 得道했다.

그뒤 通度寺주지를 2차례 역임했으며 中央參究院이사장을 거쳐 최근엔 通度寺극락호국선원 祖室로 종단의禪風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불교도들에게 「살아있는부처」로 불렸으며 뛰어난 禪匠으로도 유명한 스님은 최근 입적을 예견, 「서로만나서 수희심으로 살아가는 … 라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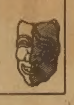
한국콘트롤 데이터 都產배척 농성벌여

19일 상오7시께 서울九老區 한국수출산업공단에있는 한국컴퓨터부품 제조업체인 한국콘트롤 데이터 남녀종업원 1백여명이 「도시산업선교회는 우리회사에서 물러가라」는등의 구호를외치며 30여분동안 농성을 벌였다.

「愛國」따라 3千里 갯벌속「先烈얼」찾는 權五鉄씨

"파묻힌 記錄이 더 값진것임을 實感…"

경기도甕津郡 용유중학교 權五鉄교감(45·사진)은 갯벌속에 파묻힌 선열의 혼을 되살리기위해 전국을 헤맸다. 섬에서 독립운동을하다 소리없이 사라져간 애국지사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면 거리를 따지지 않고 찾아나선다. 한입한입 실날같이 이어지는 「애국의 증인」을 만나려 3천리 방방곡곡을 떠도는 것이다.



權교감은 지난5년동안 德積島에서 3·1운동을 주도한 故林容雨·車敬昌씨와 李載寬씨(86)의 독립운동기록을 정리, 「顚末調査」라는 38페이지의 史料集을 내놓기도 했다.

林容雨씨는 독립선언서를 버선속에 숨겨 德積島에 날랐고 車씨와 李씨는 만세를 주도했다. 세사람의 행적은 서울大 도서관에 있는 日帝재판기록에도 나와있다.

權교감은 갯벌속에 파묻힌 「선열의 글」을 찾아 뛰어다니기 시작한것은 지난77년3월부터다. 지난61년 慶北師大 사회학과를 나와 大邱협성상고에서 근무하다 德積중학교로 자리를 옮긴 때부터다. 林容雨선생의 초라한 비석이 담장밑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낙도학생들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자랑스러운 선조의 자취를 더듬어 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록이 없는데다 증인도 많지않았다. 기선열들의 조그마한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듯 수많은 사람의 입을 거쳐야했다. 완전히 증인찾아 3천리였다.

현재 華城郡에 생존해 있는 李載寬옹을 만나고 올때는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다. 카메라와 녹음기에 수록된 사실이 확인될때까지 한동안 고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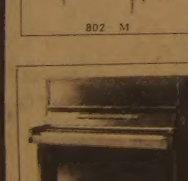
이같은 고생도 『내가 국가의 보상이나 받자고 한일이 아니니 표창을 상신하겠다는 자네의 뜻은 옳지않네』라고 나무라던 李載寬옹을 떠올리면 순식간에 사라졌다. 더우기 「섬마을선생」은 스스로택한 길이라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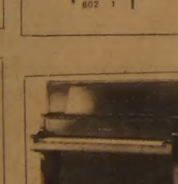
權교감은 요즘도 趙明元씨등11명의 행적을찾아 섬마을을 샅샅이뒤지고 3천리를 떠돈다. 『드러난 애국보다 다묻혀있는 애국을 발굴해 내는것이 보다뜻있는 산교육이라 생각해요. 내세우는 애국보다 말없이 애국하는것이 더 값진 거겠지요』【崔成基기자】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여름철특별대매출

그랜드 피아노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BONTEMPI이태리안 올갠

$99.00

$39.95

$799.00

$399.00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한국洋弓, 단체·개인 휩쓸어

亞·大洋洲선수권 첫날 男女팀 모두 中共 따돌려

金珍浩, 世界신기록 가능성

【오비히로(日本)=李鍾南특파원】 한국 남녀양궁대표팀은 10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19일 이곳에서 개막된 제1회 아시아·대양주 양궁선수권대회 첫날 개인및단체전 중간기록에서 모두 1위를 마크, 쾌조의스타트를 끊었다.

오비히로(帶廣) 그린필드서 열린 이날 남자 단체전(90·70m)에서 한국은 中共보다 무려 78점 많은 1천7백99점으로 1위에 나섰으며 여자단체전(70·60m)서도 中共을 57점차로 따돌리고 역시 수위를마크했다.

한국은 당초 남자 개인및단체전서 세계상위권이며 아시아 최강인 日本에 뒤질것으로 예상했으나 金永雲·李龍浩·嚴善基등이 서로 선두그룹을 형성하며 각 종목에서 1위를 휩쓸었다.

여자부의 金珍浩는 이날 70m 싱글서 3백10점을기록, 21일 마지막70m서 2백93점이상만 쏘게되면 세계기록(602점)을 깨게돼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세계양궁연맹(FITA)은 동전까지 세계선수권을 제외하고 역대회의 더블라운드 기록은 공인하지 않았으나 지난1월 총회에서 지역대회 기록도 공인키로 결정, 金이 70m더블서 세계신기록을 세울경우 첫 지역대회 공인기록자가 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대회가 개막되기 전 호우및 호우주의보가 내려 힘이 센 中共선수들이 유리할것으로 여겨졌으나 대회 당일은 날씨가 쾌청, 오히려 한국에 다소 유리했다.

◇제1일 전적

▲남자단체중간종합(90·70m)=①한국1799점 ②中共1721 ③日本1719 ▲동개인=①金永雲(한국)605 ②李龍浩(한국)600 ④嚴善基(한국)590 ▲동90m싱글=①嚴善基283 ②金永雲283(골드수차) ③李龍浩282 ▲동70m=①李龍浩322 ②金永雲322(골드수차) ③야마모도·히로시(日本)317 ④嚴善基307 ⑩朴益洙300

▲여자단체중간종합(70·60m)=①한국1870 ②中共1813 ③호주1783 ▲동개인종합=①金珍浩(한국)638 ②朴英淑(한국)619 ③F·레클리(뉴질랜드)613 ④金美英(한국)613 ▲동70m싱글=①金珍浩310 ②쎌루리(호주)304 ③朴英淑303 ④金美英300 ▲동60m=①金珍浩328 ②郭梅珍(中共)318 ③F·레클리(뉴질랜드)318 ④朴英淑316 ⑤金美英3 12

海外演藝

美영화 '로키Ⅲ' 돈방석에

開封4일만에 1천6백만弗 入場수입

○…미국에서 요즈음 인기를 끌고있는 영화는 스티븐·스필버그의「꼬마요정」과「스타트렉Ⅱ」「그리스Ⅱ」등이있는데「로키Ⅲ」가 이에 대한 만만치않은 실력을 과시하고있다. 지난달말 미국 9백39개극장에서 개봉된「로키Ⅲ」는 개봉4일만에 1천6백만달러(1백12억원)를 거둬들였는데 이는 한극장당 평균 1만7천56달러의 입장수익으로「슈퍼맨Ⅱ」에 이은 두번째의 흥행기록이다.

「로키」시리즈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있는 이유는 권투계에서 신데렐라의 꿈을 이룬 무명복서의 이야기가「미국인의 신화」와 맞아떨어지기 때문. Ⅲ편은 두개의 전편을누르고 새로운 흥행기록을 세울것이라는게 현지의 전망이다.

Ⅲ편에서는 챔피언자리에 오른 로키가 흑인선수 클라비·탐의 도전을 받는 처로 시작된다. 저명인사가된 로키는 나태해져 패배하고 매니저도 잃게되지만 왕년의 적수였던 크리스가 그의 재기를 도와 영광의 자리를 재탈환한다는 얘기. 다분히「로키다운」내용설정이다.

Ⅰ·Ⅱ편에 이어 역시 실베스터·스탤론이 각본·감독·주연의 1인3역을 맡았다.

高校生사랑그린「그리스」續篇도人氣

○「그리스」속편에서 맥스웰·콜필드와 미셸·파이퍼가 열연하고있다.

○…「디스코의 왕자」존·트래볼터와 올리비어·뉴튼·존이 공연, 화제를 모았던 영화「그리스」의 성공에 힘입어「그리스」속편이 미국에서 공개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그리스」는 국내에서도 공개돼「바로 내가 원하던 사람」등의 주제곡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그리스」속편은 고교생들의 사랑을 그렸다는 점에서는 전편과 흡사하지만 조금가볍게 처리됐다고. 남녀 주인공도 모두 바뀌었다. 남주인공은 맥스웰·콜필드가, 여주인공은 미셸·파이퍼가 맡았다.

여주인공역의 파이퍼는 올리비어·뉴튼·존의 감미로운 노래를 따르지는 못하지만 청순한 미모와 연기력에서는 뉴튼·존을 능가한다는 평을 듣고있다. 이영화는 브로드웨이 쇼의 안무가였던 여감독 퍼트리셔·비치의 데뷔작품이기도 하다.

젊은 관객들을 겨냥, 오토바이의 질주와 빠른 로큰롤음악이 전편을 흐른다. 비치의 전직을 말해주듯 의상이 매우 화려하고 뮤지컬 무대의 맛을 듬뿍 느낄 수 있다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성년자들은 부모와함께 입장해야 한다는 PG등급을 받았다.

윌콕스「기동순찰대」탈락·離婚겹쳐

○…TV영화「기동순찰대」의 스타 래리·윌콕스에게는 올해가 최고의 불운의해가될 것같다. 윌콕스는「기동순찰대」와 결혼생활을 동시에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

최근 시청률이 저조해서 고민해오던「기동순찰대」의 제작자는 윌콕스를 제외시키는 대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브루스·제너를 기용할계획.

윌콕스는「기동순찰대」의 동료스타 에리크·에스트래더와의 사이가 갈라졌는데 촬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집에가서도 화를 내게되어 결국 파경에 이르게된 것.

윌콕스는 이혼후 1살짜리 아기를 공동양육할 생각인데 그는 이 아기외에 첫번째 결혼에서 얻은 12살, 7살짜리 자녀가 있다.

영화主人公에 自社상품사용 새廣告戰略'유행

…요즘 미국에서는 영화의 주인공이 자사상품을 사용하게하여 광고효과를 노리는 광고전략이 대유행. 영화「실종」에서 재크·레먼이 코카콜라를 마시거나「로키Ⅲ」에서 실베스터·스탤론이 아침식사로 위티스시리얼을 먹는 것등이 바로 그것.

이러한 광고방법은 매우 효과가 높아 업자들은 자사의 상품광고를 위해 영화제작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는가 하면, 광고를 위해 영화장면을 바꾸게 압력을 넣기도 한다. 그중 가장 막강한 스폰서는 코카콜라. 몇년동안 모든 영화 제작자들에게 매달 두상자씩의 콜라를 무료로 배달, 영화제작자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영화사는 몇천달러씩 주고 사야하는 물건들을 공짜로 사용하고도 융숭한 대접을 받을수 있어 좋고, 업자들은 수십만명의 대중앞에 자신의 상품이 자연스레 노출되어 큰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 로스앤젤레스에는 영화화한 상품선전만을 담당하는 AFP회사까지 생겨 큰 수익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영화속에 광고가 너무 범람하고있다는 자성론도 일고있다.

○…지난 66년 27세의 젊은나이로「남과 여」를 감독, 국내팬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영화감독 클로드·를루시가 이번에는 3시간짜리 영화「볼레로」를 내놓았다.

이 영화는 戰時에 맺어진 러시아·프랑스·독일·미국 부부의 30년생활을 추적한 뮤지컬. 르루시감독은 이영화에서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열망을 그려 보았다고.

【外誌綜】

民俗음악등으로 大盛況

「작은별가족」日公演마치고 귀국

7남매(6남1녀)로 구성된 만능탤런트그룹「작은별 가족」이 50여일동안의 일본 순회자선공연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했다.

韓日문화협회가 창립2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작은별가족」의 자선공연은 5월26일 TBS·TV출연을 시작으로 東京, 豊島공회당, 나고야 시민회관, 오오사까 시민회관, 시모노세끼, 후꾸오까, 히로시마, 도바다등지에서 열렸었다.

이들은 당초 예정된 공연일정을 연장, 日전역을 돌며 소년원, 양로원에서 위문공연을 갖고 수익금의 일부를 中部소년원에 기탁했다고.

7명 모두가 각기3~4종의 악기를 다룰줄 알며 가창력이 뛰어난데다 형제들이어서 연주 호흡이 맞는것이「작은별 가족」의 장점. 이번순회공연에선 우리나라의 민속음악과 흘러간 노래, 팝송, 로큰, 재즈, 그리고 일본의 가요와 그룹의 취입곡을 불렀는데 간곳마다 대성황을 이뤘다고.

시나리오작가이며 영화감독인 姜文秀씨와 서울음대성악과출신인 朱榮淑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仁鎬(27)仁煥(26)仁嬪(24)仁昊(23)仁炫(19)애리사(18), 그리고 아역탤런트출신仁燁(16)등7명이「작은별 가족」멤버. 귀국기념으로「하소연」「잊지못해」(仁炫작곡)「인생의일기」「기적」(仁燁작곡)등이 담긴 신보를 준비중이다.

작은 별가족—7남매와 부모.

구독신청은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66>

지난줄거리 수철이, 수지, 수인이 삼남매는 6·25동란때 아버지를 잃고 1·4후퇴때 어머니와 함께 수원근교의 외가로 피난을 간다. 외아들 수철이는 중학생이었지만 수지는 일곱살, 수인은 다섯살이 되던때였다.

그 근처에선 행세하는 부농인 외가엔 많은 친척들이 피난내려와 붐비고 그들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반쯤 정신이 나가 아이들을 돌보지않는다.■

외할머니가 그들을 특별히 거둬 먹이느라고 먹이건만 애정의 결핍때문인지 수지와 수인은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지는 병적인 굶주림에 시달린다. 특히 수인이(그때까지 수인이는 수인이란 본명으로 보다는 오목조목하게 생겼대서 붙인 애칭인 오목이로 통한다. 이하 오목이)은종일 먹는것에만 정신이나서 수지의 먹을것까지 빼앗아 먹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산다. 수지는 겉으론 어린동생을 남의 미움으로부터 감싸 칭찬을 받지만 속으론 오목이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앙큼한 미움을 키운다.

외가가 있는 부락까지 후퇴령이 내려 모든사람이 거리로 나온 북새통에 수지는 오목이를 장거리까지 데리고 나갔다가 슬그머니 손목을 놓치고 혼자서 집으로돌아온다. 그때 수지는 오목이가 아무리 갖고싶어해도안주던 표주박모양의 작은노리개를 오목이 손에 쥐어준다.

이렇게 고의로 동생을 잃어버렸다는걸 알 까닭이 없는 식구들은 울며 동생을 찾는 수지를 되레 위로하며 마지막 피난의 대열에 낀다. 국도에서 기총소사를 만나 어머니마저 참사를 당하는걸 본 수지는 속으로「천벌이다」라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죄책감에 떤다.

동란전부터 알부자로 소문난 아버지의 유산을 소년시절부터 이재에 밝은 수철이가 잘 관리해 수지는 남부러울 게 없는 소녀시절을 보내고 오목이는「오누이의 집」이란 고아원에서 자란다.

수지는 틈만나면 전국의 고아원을 순례하는 게 취미다.「오누이의 집」에서 오목이(吳木伊)란 고아를 만나 동생일지도 모른단 생각을 하지만 긴가민가할뿐 증거는 없다. 오누이의 집이 없어진후 오목이의행방도 묘연해지고 수지의 자선취미도 인재란는 대학동창과의 연애로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인재의 군복무기간과 맞추느라 수지는 대학원까지 진학해 인재와 같이 졸업하는날, 수지는 올케의 중매에 의해 기욱이란 집안좋고 전도유망한 청년과 맞선을 본다. 기욱과 함께 저울질할수록 인재가 기울어 인재와의 사랑을 끝장낼까싶을 무렵 인재와 오목이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본다. 한순에 오목이가 인재를 좋아하고있음을 알수있었고, 또 오목이가 동생 수인이란 결정적인 증거로 20년전의 은노리개로만든 목걸이를 놓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그자리에서 인재가 모르고있는, 오목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폭로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다. 상처받은 오목이는 같은 고아원출신 일환이에게로 간다.

양달 ①

기욱은 약속시간보다 삼십분이나 늦게 나타났다. 생각에 잠겨있었기망정이지 삼십분지각을 의식했으면 기다리고있을 수가 아니었다.

『미안해, 어쩔수가 없었어. 아직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와』

기욱이 허둥지둥 사과와변명을 한는것을 듣고서야 수지는 그가 매우 늦었다는걸 알았고 그를 기다리면서도그를 전혀 생각하고있지 않았다는걸 깨달았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67>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양달 ②

『화났어?』

대답 없이 멍한 수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욱이 물었다.

『화 날게 뭐 있어요. 우린 아직 약혼도 하기 전인 걸요』

그제서야 수지는 표정을 뾰루통하게 꾸미면서 말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가 지금이라도 마음 먹기 따라선 얼마든지 변할수있는 사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

『피곤하게굴지마. 우리는 서로 피곤하게 구는게 기분 좋을 만큼 기운이 넘치는 나이가 아니잖아?』

내가 올드 미스란 소리군요? 이렇게 따지려다말고 수지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야말로 피곤한 관계는 질색이었다. 그녀는 기욱과 처음맞선 봤을때 부터 자신이 기욱을 선택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 그만큼은 알고있으련만 마냥 기욱의 애를 태운건 인재에 대한 의리때문이 었을까? 아니라고 그녀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기욱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피곤때문이었다. 기욱에겐 그녀의 생기(生氣)를 조금씩 말리는 독기같은게있었다. 그런데 그역시 나때문에 피곤하다면 나에게도 그런 독기가 있음인가.

『오늘 우리집안에 좀 중요한 일이 있었어. 지금 이시간에 대온것도 형수님이 뒤로 빼돌려줬기 망정이지 아버님만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거야』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이 고향에다 노인과 아이들을위한 회관을하나 건립해서 기증하셨는데 오늘 그개관테이프를 끊는 날이었거던』

『저런, 그럼 오늘로 약속을 하지말 일이지』

『일편단심 바라던 여자에게서 마침내 결혼승낙이떨어지고 당장약혼반지 사려가지고 조르는데 그걸미룰수있는 핑계가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

기욱의 요설(饒舌)이 도지고있었다. 그의 요설도 매끄러웠지만 사람을 만날때도 결코 감미롭지않았고 정열이나 정감을 동반하지않은 요설 그 자체였다. 그가 사람을 쉬 피곤하게 만드는 까닭은 그런데도 있었다.

『아버님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자식된 도리로 협조해 드리는건 당연해요. 저 조금도 탓할마음 없어요』

『아무리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들 하지만 벌써부터 아버님 편만 들면 나 화낼 거야. 난 우리집안에서 유일한 반항아거던』

『반항을 위한 반항을 할 나이도 아니면서…』

수지는 곱게 눈을흘겼다. 기욱의 아버지가 고향땅에회관을 지어서 기증할 정도의 부자라는게 그녀의 아직도내키지않던 기분에 윤활유가되었다.

『모종의 포석(布石)일 거야』

기욱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뭐가요?』

『아버님은 정치에 야심이 있으셨거던』

『정치요?』

『왜 그렇게 놀래?』

『설마 국회의원 같은 거 하고싶어하신단 뜻은 아니겠죠?』

『왜 아냐?』

『말리세요』

『패가망신할까봐 겁 나나보지?』

『좋은 분 같았는데』

『마치 국회의원은 나쁜사람들이나 한다는 소리 같잖아』

『그런 게 아니라 권모술수 같은 것과는 인연이 먼 분 같았어요. 나라 사람보다는 자식사랑이 더 어울리는 분이라고 해도좋고』

펄시스터즈 裵仁淑 앨범 창부타령出盤

◇裵仁淑

미국 체류로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펄·시스터즈의 동생가수 裵仁淑양이 우리 민요에 로크 음악을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앨범「창부타령」을 발표했다. 1년여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뉴욕의 스카이라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이 디스크에는「창부타령」외에 우리 민요를 로크비트와 조화시킨「닐타령」, 발라드풍의「우리 둘이서」등 10곡이 실려 있는데 수록곡들은 모두 미국인이 편곡을 맡아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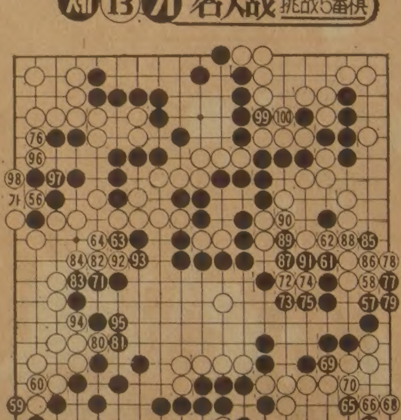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3局 第11譜 156~200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2敗〉

黑(名人) 曺薰鉉〈2勝〉



白勝은 결정적

점심식사도 안하고 끝내버리겠다는 바둑인데 실제론 100수이상이나 계속 더두고있다. 名人은 던질자리를 찾는다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승부차를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 그런대로 끝내기싸움은 볼품만점이다.

白56은 이 싯점에서 최대의곳. 아울러 黑「가」하는 패맛도 해소하고있다.

黑57이하 63까지 빈틈없는 수법이다. 그리고 우하귀의 黑65는 공연한 손찌검같지만 실은 선수끝내기의 묘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黑71은 87쪽을 먼저두어야 했다는 국후 의견들이다. 白이 72에 붙이는 수가 성립된 때문. 그것도 72에는 黑73이 불가피하여 이곳 黑집이 일단 위축되었다.

名人은 여전히 무아지경. 그렇게자주 피우던 담배도 이무렵에는 손에대지않고 엽차만 연신 마시고 있다.

이윽고 우변을 黑85로 치중하는데서 얄궂은 변화가 생겼다. 다음 黑87로 단수칠때 白이 88쪽을 잇는바람에 黑91까지로서 白2점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전자의 실수는 아니다. 원래 白88은 91쪽을 잇고 黑87때 91로 늘춰야 본보에 비하여 2집유리하지만 대신 후수가되어 좌변 96의 곳을 黑에게 앗긴다. 그白96을 두어 72·74의 손실을 커버하게 되어서 피장파장. 白승은 부동이고 뒤는 그저두어 보는데 불과했다.

【一凡】

“금년에는 광견병을 예방하자”

광견병이 번져 온타리오 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가축이나 야생짐승을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어린이들은 야생짐승 뿐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애완동물들을 피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병들어 보이거나 친근감을 나타낼때는 그들이 광견병에 걸려 있다는 신호이다. 애완동물들은 정기적으로 접종을 받고 끈으로 묶어야 하며 밤에는 옥내에 두어야 한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애완동물이나 짐승을 보면 경찰, 보건소, 애완동물보호소(Humane Society)에 연락, 광견병의 전염을 막읍시다.

애완동물이 광견병에 걸린 짐승과 싸웠을 때는 애완동물을 손으로 만지지 말것. 죽은 동물은 만지지 말것. 수의사의 의견에 따를 것.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야생짐승과 접촉했을 때는 즉시 의사나 보건기구에 연락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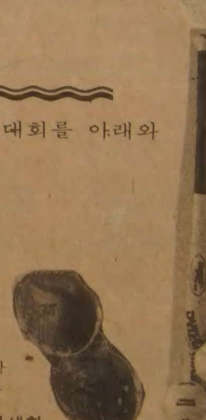
광견병에 대한 무료책자「짐승, 광견병과 당신(Animals, Rabies, and You)」는 다음곳에서 얻는다.
Ontario Health Resource Centre,
Health Promotion and Information Br,
9th Fl, Hepburn Block,
Queen's Park
Toronto, Ont, M7A 1S2

Ministry of Health
Ontario
Larry Grossman, Minister

공 고

금번 한인회에서는 교민 체력향상을 위해 한인친선야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 시 : 7월31일(토) 오전 8시30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 야구장
참가비 : 팀당 $60(주장회의때까지 납부)
종 목 : O.B. 팀 (전원이 30세 이상으로 구성)
대표팀 (중복출전 불가)
주장회의 : 7월23일(금) 오후 7시30분 한인회관
시 상 : ㅇ. 대표팀 1, 2, 3등
최우수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ㅇ. O.B. 팀 1, 2등, 최우수선수상, 미기상, 감투상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 어쏘시에이션) 룰을 적용하며 상세한 것은 주장회의에서 결정함.

연락처 : 하주용 ☎ : 769-5956 박재선 ☎ : 755-6434 브랜든운동구 ☎ : 598-3732
대회장 : 박인순, 고문 : 김문량, 진행위원장 : 박재선
심판위원(무순) : 정세용, 조동식, 박세영, 윤호영, 장인택, 최광준, 박재선, 조용덕
찬조금 명단 : 백이삼 $100 서춘원 $100 이희용 $100 서동현 $50
이인모 $50 호세환 $50 표봉길 $60 조규혁 $50 윤용타 $50
장영대 $50 이홍규 $50 박해영 $50 박찬도 $50, 서인현 $50

주최 : 토론토한인회체육부
후원 :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사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조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 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김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
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
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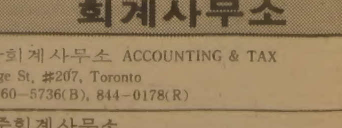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
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 : 533-2361
광고문의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 Variety Store에서 하루5시간 Help 해주실분(유경험자 원함). 또는 가게를 직접맡아서 운영하실분 구함. 전화 : 967-4461 (Mr. 용)

Full Time dishwasher구함. (주6일 월요일은 쉼)
일하는 시간: 11:00a.m-2:30p.m, 5:00p.m-11:00p.m.
Mike 전화 : 487-3508

유경험자 Manager 구함
오후8시에서 11시사이에 449-6098로 연락바람.

가게맡아서 하실분 구함(보증금 약간 필요)
매매도 가능. 오타와 지역.
전화 : 1-613-238-3837

Full Time Cashier 구함. (Day Time)
(Kipling & Bloor 근처)
전화 : 231-7944 (Mr. Hong)

세탁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무경험도 환영)
(Jane & Lawrence 지역) 오후 2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249-9331 (After 2:00p.m.)

경험많은 주말 가게 Helper 구함.
전화 : 278-8101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영어 개인지도 해드립니다. 쓰기, 읽기, 어휘등 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지도해드리며 시간당 $10로서 하루 Course는 5시간에 $50되겠읍니다.
성심 성의껏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해 드리는 것을 약속합니다.
전화 : 225-7648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매매

Plaza에 있는 그로서리가게, 건강상 급매(일요일문닫음)
주매상 : $4,000이상, 리스: 4년4개월+5년 옵션
렌트 : $840, 1196 Kennedy Rd.(직접 내방바람)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 Ne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7,000~$8,000. 리스 : 3년반 + 5년 option
로타리오 머신 있음. 아스킹 : $80,000
115 Montezuma Trail. (Brimly & Finch)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Bakery for Sale
직접 빵만드는 장비 포함.
소매, 도매 모두 취급(소매는 잘 자리잡혀진 주거지역에 위치, 공장에서 10분거리에 있음)
주매상 : $6,000 넓이 : 4,731 sq.ft.
아스킹 : $143,000
Anna Cheng 전화 : 421-2214 / 465-1360
Newbliss R. E. Corp.

일본식·한국식 음식점 매매.
Vancouver 부근(B.C) 좋은 장소임.
$80,000 현금 필요.
요리방식 지도해 드림.
Lakeviw Realty
Mr. Jack Im.
(R) (604)-591-5897
(B) (604)-588-9955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던 가게였음)
리스 2년+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Air Condition 급매. (Fedders)
용량: 36,000 B.T.U. Used One. 가격: $2,800
2 unit. 연락처: 277-8985, 656-6753(Ross)

잘 설비된 봉제공장을 매매코져함.
이 시간에 직접내방 바람. (월~금: 4:00 p.m~6:00 p.m)
292 Parliament St. (at Dundas)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년매상: $200,000 가격: $28,000 + 스탁
F. Gallo Realtor 전화: 1-383-9356

Grocery & Variety (새로 Open한 Store) 전화 : 431-4474
리스 : 5년+5년 Option (Lawrence & McCowan)
619 McCowan Rd.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 바람)

- 수퍼마켓 매매.
- 빌딩도 함께 팔 수 있음. (로렌스 × 빅토리아 파크)
전화 : 759-9331 Mr. 아트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1) 개인 Donut Shop (좋은 지역임)
주매상: $7,000이상 good mortgage
Rent: $2,200 아스킹: $290,000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 Variety & Gift. 8년 리스. 아스킹: $34,000
6개의 Pin Ball Machine도 Asking Price에 포함됨.
2) Variety & Gift(Jane & Lawrence) 아스킹 : $19,900
3)2 Apt 포함한 Grocery Store.
at Queen St. 아스킹 : $145,000
4) Store와 Apt.(at Super Location) 아스킹 : $250,000
5) Wasaga Beach에 있는 8개의 Cottage
아스킹 : $189,000
For More Information Call Doris Burda.
전화 : 763-5555
R. Cholkan & Co. Ltd. Realtor.

Fast Food Take-Out. 새로지은 Mall
(미시사가 지역) 주매상 : $1,800. 아스킹 : $50,000
전화 : Luba. 624-4247. 826-5942

성업중인 Variety Store 건물과 함께 매매.
주매상 : $3,600. 아스킹 : $85,900
전화 : 923-1206. Mrs. Lee (다운타운 지역)

Tuck Shop for Sale.(St.Clair & Yonge)
주변환경이 좋은 거주지역내에 있는 큰 건물안에 위치한 가게. 리스: 7년. 주매상: $3,700
Stegy Real Estate
759-4761
Mr. Vasos Alexandrou.

Grocery Store (Montreal 지역)
주매상 : $6,000(포도주, Beer. 화초등도 취급)
아스킹 : $63,000 + Stock. 리스 : 3년 + 5년
이층에 5 Bed Rm.이 있으며 뒷뜰에 정원이 있는 일급주택가에 자리한 살림집도 타협에 의해 Rent 가능함.
전화 : 1-514-674-6845 (Mr. 박)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아파트렌트

1 Bed Rm. Apt. 세놓음. (Downtown)
Sherbourne & Wellesley (언제든지 입주가능)
$380/M. 전화 : 537-3608 (Mrs. 리)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한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의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히소피아

메리야스

유가·우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어×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도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전화 : 534-1085 김춘탁

새한칼라현상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